



星武

제 38호
2009. 7.

공시 개교 60주년 특집



공군사관학교 총동창회
<http://www.kafaaa.or.kr>

대한민국 항공산업의 미래, KAI가 열어갑니다!





군인공제회 Mplus Convention Center

군인공제회 Mplus Convention Center가 웨딩서비스, 회의실, 교육장, 각종연회실 등 차별화된 서비스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회원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군인공제회!
 회원에게 특별할인가격으로 고품격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회원특별혜택
 예약문의 : 02-2190-2251~2



세계안보를 위한 중대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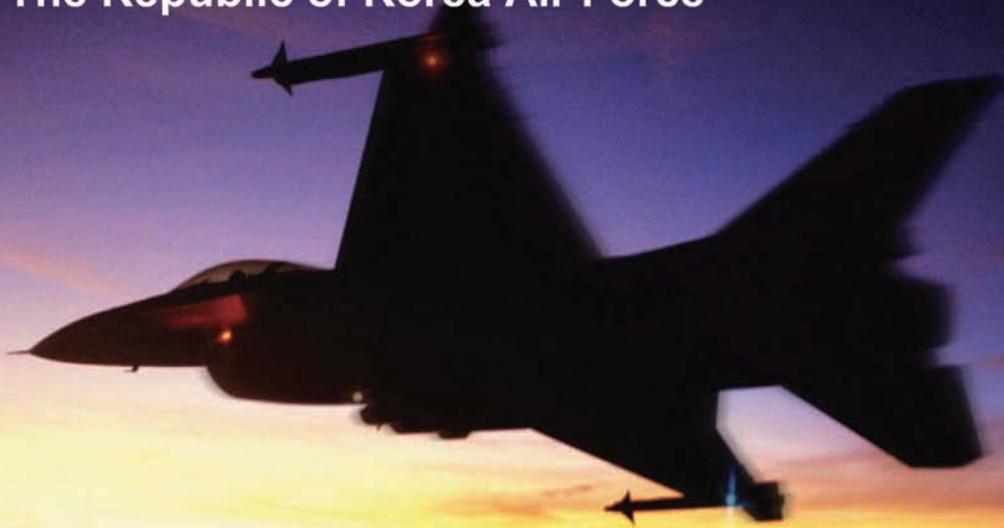
현재 그리고 미래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5세대 전투기를 개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F-35 Lightning II는 설계 단계에서부터 최상의 성능과 국제적인 임무수행을 고려하여 최첨단 기술을 구현한 다목적 전투기로서, 국토방위는 물론 연합작전까지 모든 임무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 F-35 Lightning II는 현재는 물론 향후 수십 년 간 해당국 공군의 작전 효율성을 현저히 증가시킬 것입니다. F-35 Lightning II, 세계 안보를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THE F-35 LIGHTNING II TEAM

NORTHROP GRUMMAN BAE SYSTEMS PRATT & WHITNEY GE ROLLS-ROYCE FIGHTER ENGINE TEAM
LOCKHEED MARTIN

공군 창군 **6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Congratulations
on the 60th Anniversary
of The Republic of Korea Air Force**



전자주사 배열방식인 **ESA (Electronically Scanned Array)** 화력제어 레이더(**FCR: Fire Control Radar**) 분야에서 **35**년 이상의 경험을 가진 **Northrop Grumman**사가 세계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Northrop Grumman사는 현재까지 **250**대 이상을 공급하였으며, 선도적으로 실제 작전 운용에 사용되는 **AESA (Active ESA) FCR**을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최고 회사의 **AESA FCR**을 구비 하십시오. 바로 **Northrop Grumman**사의 **SABR (Scalable Agile Beam Radar)**입니다. 하늘에서는 **2**등이 절대 존재할 수 없습니다.

With more than 35 years of experience, Northrop Grumman is the world leader in electronically scanned array fire control radars. Today, we have delivered over 250 systems and are the leading company with production AESA fire control radars in operational use. Get the first name in AESA fire control radar, because up here there is no second place.

OUR HISTORY **YOUR FUTURE**



Defence and civil security organisations everywhere have the same responsibility – to prepare for what might lie ahead. Saab's established international portfolio is built on over seventy years of experience in civil and military technologies, and our experts draw on our history of knowledge and learning to meet that demand.

We place great value on research and development, allowing us to keep adapting and evolving.

However, our customers know us as trusted specialists, and we are careful to maintain that reputation.

We have the ability to innovate swiftly while applying our expertise with intelligence and integrity.

Saab develops products and services for land, air and sea defence, as well as for a range of civil security applications. We draw on our tradition to shape tomorrow's security – our history is your future. ●●●●

PURPOSE	PREPARATION
FUNCTION	SECURITY
SAAB PROVIDES	EXPERTISE

www.saabgroup.com



SAAB



세계 글로벌 기업의 선택, 삼성압축기

가스터빈 기술로 개발한 터보식 Oil-free 압축기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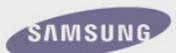


삼성압축기는 폭넓은 운용범위와 높은 운영효율로 Oil-free 공기를 제공하는 세계 최고의 터보압축기입니다.

제품 특징

- Oil-Free 압축공기 공급
- 컴팩트한 디자인으로 설치공간 최소화
- 낮은 전력소모로 운영비 절감
- 모듈방식 설계로 쉽고 빠른 정비
- 전국 어디서나 24시간 신속한 A/S 체계

모 델		SM 1000	SM 2000	SM 3000	SM 4000	SM 5000	SM 6000	SM 7000	SM 8000
유 량	m ³ /hr	900~1,550	1,700~3,000	3,000~5,000	5,000~8,500	8,000~15,000	13,000~24,000	20,000~46,000	46,000~122,000
모 터	HP	100~17,400							
토출 압력	Bar G	3.5~25							
크기(폭X길이X높이)	M	1.5x2.6x1.9	2.1x4.4x2.1	2.1x4.7x2.2	2.2x5.2x2.1	2.3x5.8x2.6	5.0x8.0x4.5	12.5x9.0x4.5	
중 량	Ton	3.2	7	9	12	18	45	80	



삼성테크윈

삼성테크윈주식회사
www.samsungcompressor.com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47-9 한국지식재산센터 14층 삼성테크윈(주) 파워시스템사업부
Tel : 02-3467-7535/7539 Fax : 02-3467-7540



표지사진

星武 Contents

공군소식

모교소식

총동창회 소식

개교 60주년 특집



'09 훌커밍 행사

공군사관학교 60년 역사	34
사진으로 보는 공사 60년	40
개교 60주년 기념식	46
명예졸업증서 수여	47
1기 사관들의 김포별의 추억과 6·25 참전	최규순 48
공사 주둔 기념비 건립	52
제주 대정초교 공사훈적비 보수 제막식 거행	53



개교 60주년 기념식

회원논단

한미동맹은 강화되어야 한다	박성국 54
21세기 美-中 관계 전망과 대한민국의 대비책	최명상 63

회원기고

공사 7기, 러비선수 생활의 소고	김석천 74
雄飛(KT-1) 개발 逸話	이재명 78
10기 사관 '백두산 여행'	이은봉 83
애뜻한 후회(後悔)	김성환 89
"A Thousand Winds"	손주현 93
야간비행	이봉길 96
한 걸음 두 걸음 7 Summits를 향하여...	이달호 99

발행일자 2009년 7월(제38호)

발행인 공사총동창회장

발행처 공사총동창회

전화 02-823-1091 (군) 923-7570

편집·디자인·인쇄 국군인쇄창(09075014)

· 본지에 게재된 개인 원고는 공사총동창회의
공식 견해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지난날의 꿈	임병선	104
생도생활 회고	김국창	107
지난날의 군수활동을 생각하면서	전승우	116
나의 제3의 인생 '농촌 생활'	서용택	120
카페, 우주선 <Silverstar 12>호를 말한다	배기준	127

건강코너

남성의 상징 전립선 튼튼 7가지 비결	130
WHO에서 발표한 몸에 해로운 10대 식품	131
숨어 있는 뇌경색 찾아 내는 법	132
견과류의 놀라운 효능	133

각 지회/기생회/동문 동정

지회 동정	134
기생회 동정	136
동문 동정	143

총동창회 알림

정기총회	152
회비 납부 안내	158
평생회비 납부 현황	159
공사재단 발전기금 현황	162
공군사관학교 발전기금 출연 현황	163
주소변경	164
각 기생회 임원 현황	167
편집후기/기고안내	168



총동창회 친목의 날 행사



공사 주둔 기념비 건립



총동창회기 이양

공군참모총장 이·취임식



제30·31대 공군참모총장 이·취임식이 10월 2일 이상희 국방부 장관을 비롯하여 합참의장, 육·해군 참모총장 등 군 고위급 인사와 역대 공군참모총장, 가족, 친지 등 내외 귀빈이 참석한 가운데 계룡대 대연병장에서 거행되었다.

제31대 공군참모총장으로 취임하는 이계훈 대장은 취임사를 통해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싸우는 방법, 일하는 방식 및 조직문화가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어서 이에 부합하는 지속적인 변화와 개혁이 요구되고 있는 바, 이와 같은 시대적 소명에 부응하기 위해 우리는 「항공우주군」을 지향하면서, 지금 당장이라도 싸워 이길 수 있고 미래 전장을 주도하며,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선진 정예화된 강한 공군」을 만들어 나가자”고 밝히며 역사적 소명을 인식하고 참모총장직 수행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였다.

한편, 김은기 前총장은 이날 이임 및 전역식을 끝으로 전투조종사로서 보낸 39년간의 군생활을 마무리하고 명예롭게 전역하였다.

제31대 공군참모총장으로 취임한 이계훈(李啓勳, 56세) 대장은 공사 23기로 임관하였고 8전투비행단장, 합참 교리훈련부장, 공본 정보작전지원참모부장, 국방정보본부장, 합참차장 등의 주요 요직을 역임하였다.

F-15K 전력화



참모총장은 '08. 7. 10, 11전비주기장에서 거행된 「F-15K 전력화 행사」를 주재하였다. 참모총장에 의해 대독된 축하메시지를 통해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의 기대와 성원이 가득 담긴 F-15K를 어떻게 잘 운용하는가는 대한민국 공군의 정성과 노력에 달려있음”을 피력하고 “우리 국민들이 F-15K 시대를 개막하는 공군에 보내는 깊은 격려와 뜻을 늘 기억하고, 항공우주군의 비전을 가진 첨단 과학군으로서 국가 전략사업인 우주산업에도 큰 기여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공군 블랙이글스 재탄생



공군은 지난 해 서울에어쇼에서 고별비행을 마지막으로 잠정 해체되었던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가 「서울에어쇼 2009」를 통해 다시 선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새롭게 선보이는 블랙이글스는 세계 최초의 초음속 훈련기인 T-50으로 운영되며, 전 세계에서 초음속기로는 유일하게 8기 대형으로 특수비행을

펼치게 된다. 금년 1월에 이철희 중령(공사 39기, 41세)을 팀장으로 재창설된 ‘블랙이글스’는 리더 박대서 중령(진)(공사 40기, 40세)을 비롯한 8명의 조종사를 새롭게 충원하였으며, 2009년 10월 거행될 에어쇼까지의 준비기간을 ①기종전환 ②특수비행자격 ③기동개발 ④부분훈련 ⑤전체 훈련 등 5단계로 나누어 세계 최고수준의 특수비행팀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예비역·현역 신년 인사회

참모총장은 '09. 1. 15, 공군회관에서 역대 참모총장, 공군전우회를 비롯한 예비역단체 임원과 예비역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 인사회를 가졌다.

이날 참모총장은 “60년을 면면이 이어온 선배님들의 「필승공군 정신」과 4대 핵심가치인 도전·헌신·전문성·팀워크의 「공군 정신」을 더욱 계승 발전시켜 예비역 선·후배님들이 보여주셨던 지대한 관심과 성원에 보답하겠다”면서, “서로 통하는 共同體인 공군인들이 따뜻한 정을 나누며 하나가 되기 위해 마련된 자리인 만큼 선·후배간에 ‘나’와 ‘너’가 아닌 ‘우리’임을 확인하고 우의를 돈독히 하여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참모총장은 공군 창설 60주년을 맞이하여 올해를 「항공우주군을 향한 새로운 60년을 준비하는 해」로 삼아 공군인 스스로도 자랑스러워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는 「강한 공군」을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마지막 임무 완수한 공군 다이만 부대



“필승, 다이만 부대! 모든 임무를 마치고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12월 21일 밤 어둠을 뚫고 공군 다이만 부대(58항공수송단) 소속 조종사, 항법사, 정비사 등 27명의 승무원이 탑승한 C-130 수송기 2대가 공군 5전술공수비행단 활주로에 착륙한다.

이번 비행을 끝으로 공군 다이만 부대는 모든 임무를 마치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공군 파병 역사의 한페이지를 장식하게 된다.

2대의 C-130 수송기는 한국시간으로 지난 14일 자이툰 부대원을 이라크에서 쿠웨이트 알리 알살렘 공항까지 수송하는 임무를 모두 마치고 19일 귀국비행을 시작하였다. 쿠웨이트에서 한국까지는 약 6,000km로 항속거리가 3,500km인 C-130 수송기로 한번에 비행할 수 없는 거리이다. 따라서 그동안 한국에서 쿠웨이트로 비행시 인도, 태국, 필리핀 등 3개의 중간 기착지에 착륙해 연료 보급과 항공기 점검을 실시하였다.

특히, 이번 마지막 비행에서는 그동안 중간 기착지에서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은 태국 해군항공사단장 소폰 분춤(Sopon Bunchom) 소장과 필리핀 공군 빌라모야기지 운항대대장 로리 알 파스쿠아(Rory S. Pasqua) 소령에게 이계훈 공군참모총장의 감사장을 다이만 부대장 고석목 대령(공사 31기, 49세)이 전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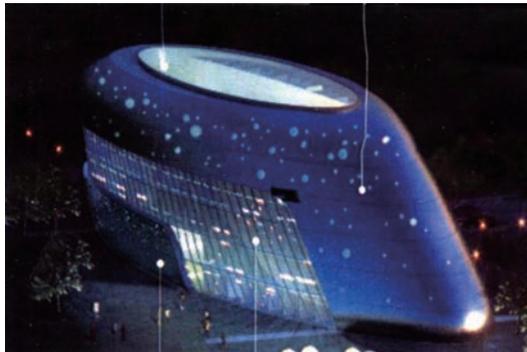
다이만 부대는 지난 2004년 10월 열사의 땅 쿠웨이트에 파병되어 이라크 자이툰부대와 다국적군의 병력과 군수물자를 공수해 왔으며, 지난 4년 3개월 동안 단 한번의 임무실패 없이 완벽하게 임무를 수행해 왔다.

또한, 지난 11월 6,000시간 무사고 비행기록을 달성한 다이만 부대는 병력 4만 3천여 명, 군수물자 4,600여 톤을 수송했으며, 총 340만km(지구 86바퀴)를 비행했다.

항공우주박물관 '제주특별자치도'로 결정

공군이 공모한 '항공우주박물관(가칭) 유치'가 '제주특별자치도'로 최종 결정되었다. '항공우주 박물관'은 국민들에게 항공우주분야에 대한 체험과 교육을 통해 꿈과 비전을 제시하고, 항공우주 역량의 홍보 및 지역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박물관이다.

서귀포 일대에 건립될 예정인 '항공우주박물관'은 제주특별자치도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항공우주에 대한 다양한 체험과 교육의 장을 제공하고, 조종사와 우주비행사를 꿈꾸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하늘과 우주에 대한 꿈을 키워줄 수 있는 새로운 관광명소가 될 것이다. 또한, 인근에 위치한 신화역사공원, 영어교육도시, 중문관광단지 등과 연계한 관광객 집객효과로 지역경제발전에 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008년 TOP GUN에 박문범 대위 선정

공군은 12월 10일 공군회관에서 '2008년 보라매 공중사격대회 시상식' 을 개최하였다.

올해 '하늘의 제왕, TOP GUN' 에는 공군 제38전투비행전대 111전투비행대대 소속 박문범(29세, 공사 50기, 주기종 : KF-16) 대위가 선정되었다.

박 대위는 실전적으로 평가방법이 보다 개선된 이번 보라매 공중사격대회에서 최우수 사격수인 TOP GUN의 영예를 안아 진정한 전투프로로 인정받게 되었다.



제41대 공군사관학교장 취임

공군사관학교장 취임식이 '08년 11월 12일 공군참모총장과 역대교장, 지역기관장, 공사발전후원회 임원 등 내외 귀빈이 참석한 가운데 공군사관학교 연병장에서 성대히 거행되었다.

이날 제41대 공군사관학교장으로 취임한 성일환(成日煥, 53세, 공사 26기) 중장은 이계훈 공군참모총장으로부터 지휘권을 이양받고 항공우주시대의 주역인 정예 사관생도 양성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신임 성일환 공군사관학교장은 취임사를 통해 “공군사관학교는 미래 전장을 주도할 국가방위의 핵심전력을 양성하는 곳”이라며, “세계 10위권의 공군력에 걸맞은 경쟁력 있는 학교로 발전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한편, 성일환 신임 공군사관학교장은 경남 창녕 출신으로 제17전투비행단장, 공군본부 감찰실장을 역임하였고, 각종 작전 및 국방정책에 전문성을 갖춘 인물로 정평이 나 있으며, F-4E(팬텀) 전투기 2,500시간의 비행 경력을 지닌 베테랑 조종사이다.



공사 57기 졸업 및 임관식 거행

공군사관학교 제57기 졸업 및 임관식이 이상희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군 내외 주요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3월 11일(수) 오후 2시, 공군사관학교 성무연병장에서 성대히 거행되었다.



16명의 여생도와 태국 위탁교육 생도를 포함한 158명의 57기 졸업생들은 재학 중 전공에 따라 각각 이학사, 문학사, 공학사 학위는 물론 전원 군사학사 학위를 함께 수여받았다. 또한, 이날 졸업과 동시에 공군소위로 임관하는 57기 졸업생들은 조종, 항공통제, 방공포병, 항공무기정비 등 공군의 다양한 특기를 부여받아 장교로서의 첫걸음을 내딛게 되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축하 메시지를 보내 “조국수호에 모든 것을 바치고자 하는 여러분이 정말 자랑스럽다”며, “젊은 패기와 열정으로 조국영공수호의 막중한 사명을 다해주시기 바란다”고 격려했다.



이번 57기 졸업식에서는 이소영(23세, 女) 소위가 전체 수석의 영광을 차지해 대통령상을 수상하였으며, 국방부 장관상(3등)에 빛나는 진해중(24세, 男) 소위는 대표 보라매상도 거머쥐어 2관왕을 차지하게 되었다.

제61기 사관생도 입학식 거행



21세기 항공우주시대의 주역이 될 제61기 공군사관생도 입학식이 27일(금) 오전 10시 30분, 성일환(54세, 공사 26기, 중장) 공사 교장을 비롯한 신입생 학부모와 친지, 선배 사관생도 등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군사관학교 성무연병장에서 성대히 거행됐다.

또한, 이번 입학식에는 태국 공군사관학교 부교장인 왓타나 마니나(Wattana Maneenai) 공군 소장과 100여 명의 태국 공사생도들이 참석하여 학교 시설물을 견학하고, 한국 생도들과 함께 간담회를 비롯한 친선행사를 하는 등 양국 공군사관학교간 우호를 증진하는 시간을 가졌다.

17명의 여생도와 태국에서 위탁교육 온 타와차이 텡생깨오(Thawatchai Thongsangkaew, 20세) 생도를 포함한 166명의 61기 사관생도들은, 지난 1월 22일(목) 예비생도로 입교하여 혹한 속에서도 5주간에 걸쳐 실시된 기본군사훈련을 무사히 마쳤으며, 이날 입학식을 통해 '예비'라는 이름을 벗고 정식 사관생도로서의 첫걸음을 내딛게 됐다.

제7회 전국대학생 안보토론대회

'08년 11월 6일(목)부터 8일(토)까지 서강대학교와 육군사관학교가 공동주최한 '제7회 전국대학생 안보토론대회'에서 공군사관학교 생도들이 참가한 대학 중 최고의 성적을 거두었다.

서울 육군사관학교에서 열린 이번 안보토론대회는 각 군 사관학교와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총 40여 개 대학에서 260여 명의 대학생이 참가하였으며, '북한의 비핵화 가능성과 바람직한 검증체계'를 비롯한 주요 안보현안을 주제로 6개 분과가 분과별로 발표 및 토론을 벌였다.

공군사관학교는 법정과장 박봉규 중령 지도하에 각 분과별로 1명씩 총 6명이 참가해 논문에 대한 평가부터 발표, 토론 등 3개 영역에 걸쳐 경연을 벌인 결과, 신경은(국제관계학과 3학년) 생도가 1분과에서 최우수상을, 이우(군사전략학과 3학년) 생도가 3분과에서 우수상을, 정상현(국제관계학과 4학년) 생도가 6분과에서 장려상을 수상하여 참가대학 중 가장 많은 수상자를 배출하는 영예를 안았다.

한편, 이번 대회 각 분과별 우수 논문 발표 및 토론자에게는 육군참모총장 상과 부상이 수여되었으며, 특히 분과별 최우수상 수상자 6명에게는 베트남을 방문하는 해외안보체험의 특전이 주어진다.



'08-2차 해외항법훈련 실시



공군사관학교가 4학년생도 80여 명을 대상으로 '08년 10월 21일부터 25일까지 4박 5일간 C-130 수송기를 타고 태국, 필리핀을 방문하는 해외항법훈련을 실시하였다.

생도들은 이번 해외항법훈련을 통해 태평양R28;인도양 상공에서 C-130 수송기 2대에 탑승해, 선배 조종사와 동승

하여 항법장비 사용법과 영공통과 절차, 비상상황 대처법 등 현장 비행 상황을 체험하였다.

또한, 이번 훈련에 참가하는 생도들은 지난 9월에 비행입문과정을 수료하여 조종사가 되기 위한 기본을 갖추었고, 졸업을 앞두고 실제 항공작전 임무를 수행함으로써 장차 정예 조종사가 되기 위한 자질을 갖추는데 한걸음 가까워졌다.

동남아 현지에서는 태국 비행단과 필리핀 공군사령부를 방문하여, 동남아 국가 공군과 군사교류 확대 및 우호증진에 기여하였고,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태평양전쟁 유적지를 탐방하고 교민친선행사를 통해 호국간성으로서의 책임감과 한국인으로서의 자긍심을 확대하는 기회도 가졌다.

특히, 이번 해외항법훈련은 공사 개교 이래 최초로 태국 공사에서 태국 생도들과 하루 동숙을 하며 우정을 나누기도 했으며, 이번 기회를 통해 우리 생도들은 태국 공사의 색다른 문화를 경험하고, 상이한 군 전통을 이해하는 좋은 시간을 가졌다.

한편, 장거리 비행체험 및 타국 군사시설 견학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해외항법훈련은 생도들로 하여금 공군작전에 대한 이해력을 증진하고, 주변국 군사력 이해 및 국제적인 감각과 시야를 기르기 위해 2004년부터 매년 2차례씩 실시해오고 있다.

육·해·공사 1학년 생도, 공사에서 한자리에 모여

공군사관학교는 '08년 6월 30일부터 7월 3일까지 사관생도간 우의를 다지고 각 군의 특성을 서로 이해하기 위해 육·해·공군 3군 사관학교가 공동 주관하는 '3군 사관학교 친선행사'의 일환으로 육·해사 1학년 생도들을 성무대로 초청하였다.

3군 사관학교 친선행사는 장차 국군의 기간이 될 육·해·공군 사관생도들을 대상으로 3군 간의 협동성 강화 차원에서 매년 실시하는 행사로 올해는 1학년은 공사, 2학년은 육사, 3학년은 해사에서 각 군 사관학교 동기생들과 3박 4일간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육·해사 1학년 생도들은 3박 4일의 행사기간 동안 각 중대별로 공사생도들과 함께 생활하며, 2일차에는 17·19전투비행단 견학과 조종사들이 처음으로 조종교육을 받는 212비행교육대대를 방문해 T-103 훈련기를 탑승, 활주로를 고속 질주하는 Hi-Taxi와 관속비행을 체험하는 등, 평소 경험하기 힘든 체험을 통해 공군의 특성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3일차에는 3군 사관생도들이 혼성된 중대대항 체육대회와 친선의 밤, 음악회 등 다양한 친목행사를 함께하며 서로간의 우애를 다졌다.

이날 음악회에는 김포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와 공군 마술병의 마술공연, 가수 리아의 라이브 무대가 준비되어 있어 한밤의 뜨거운 열기를 더해 주었다.

'09 흠커밍 행사



4월 24일 봄꽃이 만발한 모교 교정에서 1,000여 명의 공사인이 참가한 가운데 총동창회 흠커밍 행사가 성대하게 치러졌다.



이 날 행사는 임관 50주년(7기)과 30·20·10주년(27기, 37기, 47기)의 기념 축하행사 및 생도들의 열병, 분열과 축하비행, 고공낙하 등의 경축행사로 이루어졌다. 또한 각 기생별로 준비한 공사 발전기금을 전달하고, 총동창회에서는 각 기생회(8~56기)에서 모금한 생도후원금을 전달하였다.

특히 올해 흠커밍 행사에는 한국전쟁 참전 23개국의 국기를 계양하는 국기계양식이 열려 더욱 뜻 깊은 자리가 되었다. 임관 기념 기수들이 후배들을 위한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성금을 모아 참전 23개국의 국기계양대뿐만 아니라, 기념비 등을 설치하였다. 전 23개국 국기계양대는 앞으로 생도들에게 전쟁의 역사를 되새길 수 있는 교육의 역할뿐만 아니라, 방문객들에게도 조국의 소중함을 되새길 기회를 제공하며 공군사관학교의 자랑이 될 예정이다.



충동창회 친목의 날 행사

충동창회에서는 지난 해 가을(10. 29)과 금년 봄(4. 13) 2차에 걸쳐 각각 1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관악산에서 친목의 모임을 성대히 가졌다.

6·25 출격용사이신 팔순 노(老)병에서부터 젊은 청년들이 등산과 소풍행사에 참가하여 단풍과 꽃을 만끽하고 젊은 시절로 돌아가 끈끈한 전우애와 동문으로서의 정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다.



1차 추계 친목의 날 행사('08. 10. 29)



2차 춘계 친목의 날 행사('09. 4. 13)

제6회 친선바둑대회 개최

11월 19일 공군회관에서 실시한 제6회 공군사관학교 총동창회 친선바둑대회가 회원 4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거행되었다. 시중 화기에애하고 열기 띤 시합이었으며 지도사범 김수장 9단의 다면기 지도대국도 있었다.

이 날 행사를 위하여 기우회 고문이신 윤자중(1기) 전 참모총장, 기우회장이신 최홍선(5기)회원, 기우회 간사이신 정지수(11기)회원, 신성환(26기)회원이 금일봉씩 기부하였다.



대회결과

- ◎ 개인A조 : 우 승 채영현(2기)
 준우승 김종남(5기)
- ◎ 개인B조 : 우 승 육도석(14기)
 준우승 유성봉(15기)
- ◎ 복 식 : 우 승 이수전(5기), 이규형(11기)
 준우승 이원천(5기), 이승오(11기)



부대 방문

공군본부 예방('08. 7. 30)



공군사관학교 예방('08. 12. 10)

작전사령부 예방('08. 9. 3)



일선 부대 방문



①



③

- ① 제8전투비행단('08. 11. 12)
- ② 8전비 근무 후배들과의 간담회('08. 11. 12)
- ③ 제314방공관제대대('08. 10. 8)
- ④ 제573방공포대('08. 10. 8)



②



④

대한항공 공사동문회와의 친선모임



공사총동창회는 10월 22일 수원체력단련장에서 대한항공 공사동문회(회장 정희균, 22기) 회원들을 초청하여 화기에애한 가운데 운동을 즐기고 오찬을 가졌다.

모두 한마음으로 모교와 동창회 발전을 다짐하며, 대한항공 공사동문회에서는 총동창회 발전기금을 전달하였다.

아시아나항공 공사동문회와의 친선모임

공사총동창회는 3월 25일 아시아나항공 공사동문회(회장 정영빈, 26기) 회원들을 수원체력단련장으로 초청하여 유대를 다지고, 모교와 동창회 발전에 노력할 것을 다짐하는 유익한 모임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박성국 총동창회장과 임원진, 아시아나항공 공사동문회원 10명 등 총 16명이 참가하여 화기에애하게 운동과 식사를 함께하였으며, 아시아나항공 동문들이 총동창회 발전기금도 기부하였다.



공사 57기 졸업 및 임관식 총동창회장상 수여



공사총동창회 박성국 회장은 3월 11일 공군사관학교 연병장에서 거행된 제57기 졸업 및 임관식에 참석하여 이날 새로 임관한 158명의 소위들을 축하하고, 정인식 소위(로봇 항공반)에게 총동창회장상과 메달을 수여하였다.

국군의 날 행사 장병 격려



박성국 총동창회장과 공사 30기(회장 박국서), 32기(회장 최인영), 33기(회장 정남진) 일행은 9월 26일 잠실 운동장에서 건군 60주년 국군의 날 행사연습에 수고하는 사관생도 및 장병들을 위문하고 격려금을 전달하였다.

이번 행사는 후배들의 자발적인 건의로 이루어져 그 의의가 더욱 크다.

3군 사관학교 총동창회 친선모임



공사총동창회는 5월 14일 성남체력단련장에서 3군 사관학교 총동창회 친선모임을 가졌다.

이 날 모임에는 육사총동창회장 오명(육사 18기) 현 건국대 총장과 전임 해사총동창회장 이지두 제독(해사 19기) 등 20여 명을 초청하여 즐거운 운동과 만찬을 통하여 우의를 다졌으며, 3사총동창회의 상호 발전을 다짐하는 유익한 자리가 되었다.

공사총동창회 정기총회

공사총동창회는 2009. 6. 17 공군회관에서 제16차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주요업무 및 결산 보고와 제17차년도 임원선출 등을 의결하였다.('총동창회 알림' 참조)



제17대 공사총동창회장으로는 이한호 전 참모총장이 선임되었다. 이로써 총동창회 업무는 17기가 운영기수를 맡게 되었으며, 총동창회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이 기대된다.



제17차년도 총동창회 운영임원

회 장 : 이한호
 부 회 장 : 김석우, 강희간, 고영섭, 고종무, 송대성, 유정웅,
 윤병인, 이규대, 이용대, 임흥규, 장호근, 전영배,
 정구호, 차옥환
 감 사 : 김재수, 어수연
 사무총장 : 이문호
 후 원 : 공사 17기 사관 일동

이임사 >>>

존경하는 선후배 동창회원님과 16기 승운회원 여러분!

저희 16기가 제16차년도 총동창회 운영을 맡은 지 벌써 1년이 지나 17기 사관들에게 인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지난 1년간 저희가 총동창회 운영의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 선후배 동창회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16기가 총동창회 운영을 맡으면서 개교 60주년에 맞춰 공사의 뿌리 찾기 운동과 동문들의 친목 도모를 목표로 출발을 하였습니다.

다행히 동란 중 사관학교가 주둔했던 성남중고등학교와 제주 대정초등학교에서 원로 선배님들과 함께 기념비 제막식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매우 보람된 일이었습니다.

또한 많은 선후배들께서 공사인들의 친목 도모를 위해 2회에 걸쳐 실시했던 관악산 등반은 다시 한 번 우리들의 옛정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만남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선후배들이 정담을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지속되기를 바랍니다.

지나고 보니 의욕은 많이 있었으나 1년이 너무 빨리 지나간 것 같아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러나 훌륭하신 신임 이한호 회장님과 17차 운영위원들께서 총동창회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으로 믿고 기대합니다.



다시 한 번 그동안 많은 성원을 해주신 선후배 동창회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특히 이 자리를 빌어 지난 1년간 총동창회 살림을 직접 열심히 훌륭하게 이끌어 오신 박영기 사무총장에게 각별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저를 믿고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승운회 부회장단, 백동기·박영훈 성무지 편집위원을 포함한 모든 16기 동기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공사총동창회의 지속적인 역할과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 6월 17일

이임 총동창회장 박 성 국

취임사 >>>

존경하는 선후배 동문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17기 동기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영예로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적극 성원하여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총동창회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오면서 사관학교 뿌리찾기, 홈페이지 개선, 친목의 날 행사확대 등 많은 업적을 남기신 박성국 회장님을 비롯한 16기 선배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동문 모두가 같은 생각이겠지만, 저는 공군사관학교를 졸업했다는 사실에 큰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동문이 9,000명이 채 안되니 수적으로는 종합대학교 1년 졸업생과 비슷한 수준밖에 안됩니다. 우리 동문이 정치권력을 쥐었거나, 세계적인 석학·재벌을 배출한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우리 모두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공사10훈과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조국과 하늘에 바친다”는 교훈을 바탕으로 다져진 위국헌신의 군인정신과 애국심, 사명감으로 조국 영공수호의 소임을 다해 왔다는 것입니다.

초급장교 때부터 일선근무 시절을 돌이켜 보면 우리는 조조부터 야간 늦게까지 공휴일도 없이 전투초계 임무를 수행하여 잠시도 우리 영공을 비워 놓지 않았습니다.

항공기 결함이 생기면 밤을 새워 가동시켜 놓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로 받아들였으며 눈이라도 내리면 5분, 10분을 다투어 가면서 녀가래, 망치, 삽으로 깨고 치워 작전 가능상태로 만들어 왔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노력이 북한의 끊임없는 군사위협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도발을 억제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확신하며,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가 세계 최빈국에서 오늘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공군사관학교 동문이라는 사실에 자부심을 갖고 명예롭게 생각하는 이유이며, 이러한 전통은 반드시 계승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지금 현역에 있는 우리 후배들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것입니다. 북한은 2차 핵실험, 각종 유도탄 발사, 정전협정 무효선언, NLL 위협 등 갖은 만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들의 군사적 도발을 억제하고 응징할 수 있는 힘과 의지가 우리 공군에 있지만 어떤 도발이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또 어느 정도 응징을 해야 할지 많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만의 하나 조그만 실수라도 생기면 그 결과는 치명적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비역들은 확고한 안보의식을 바탕으로 복의 실체를 정확히 인식하고 그들의 어떤 도발에도 우리 공군이 주도적으로 응징할 수 있다는 공감대를 형성하여 우리 후배들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고 성원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총동창회가 공군과 공군사관학교의 발전을 위한 든든한 후원자가 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는 않겠지만, 우선 우리가 서로 이해하고 단결하여 일체감을 형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비역 한 사람 한 사람은 별 힘이 없겠지만 9,000명이 합심하면 상당한 힘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저는 우리 동문간의 유대를 강화하고 공사인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예비역과 현역간의 소통을 원활히 하고,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상부상조가 더욱 효과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공군이나 공군사관학교, 공군전우회, 그리고 총동창회 주관의 모든 행사에 우리 동문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이나 운영여건이 나이지면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에도 관심을 갖고 추진할 생각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17기동기들은 한마음으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동문 여러분의 많은 지도 편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우리 공군사관학교 총동창회를 설립하고 발전시켜 오신 선배님들과 지난 1년간 총동창회 운영과 발전에 큰 업적을 남기신 박성국 회장님과 16기 선배회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회원 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 6월 17일

신임 총동창회장 이 한 호

축 사 >>>

존경하옵는 역대 참모총장님, 교장님,
그리고 함께 자리해 주신 공군사관학교 총동창회 회원 여러분!

오늘, 공군사관학교 개교 60주년을 맞이하여 「공사총동창회 2009년도 정기총회」가 개최된 것을 의미있게 생각하며, 공군 전 장병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 1년 간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공군과 총동창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활동을 하시고 이임하시는 박성국 회장님을 포함한 임원진 여러분의 노고와 업적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신임 회장님으로 추대되신 이한호 총장님을 비롯한 신임 임원진 여러분께 충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아울러, 항상 모교와 공군발전을 위해 끊임없는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회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공사총동창회 회원 여러분!

최근 북한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을 통해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의 안정을 위협함에 따라 우리 군은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에 첨단전투력을 보유한 우리 공군은 적의 도발을 억제하고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서 항재전장의 위기의식을 갖고 적의 어떠한 도발에도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완벽한 대비 태세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대적 과제인 국방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공군 전 구성원이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되어 최상의 전투력을 발휘하기 위해 안으로 열리고 밖으로 연결된 '함께하는 공군, 하나 되는 강한 공군' 그리고 '신바람 나는 공군' 건설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우리 공군이 창설된 지 6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무에서 유를 만드셨던 창군기 선배님들의 도전정신과 신명을 바쳐 영공수호에 헌신진력해 오신 여러 선배님들의 높은 뜻을 기리며 「연합·합동 전장을 주도하는 항공우주군」이라는 공군의 비전 구현을 위해 지난 60년의 반석 위에 우주로 비상할 '새로운 60년'을 총력을 다해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이 같은 저희들의 노력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여러 회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 편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공군사관학교 총동창회가 공군발전과 국가안보에 더 많이 기여하면서 발전을 거듭해 나가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저희들도 총동창회의 발전을 위하여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끝으로, 뜻 깊은 정기총회 개최를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회원 여러분의 건안하심과 이한호 신임 회장이 이끄시는 총동창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 6월 17일

공군참모총장 대장 이 계 훈

공군사관학교 60년 역사

1. 건군과 공군사관학교의 창립



〈육군항공사관학교〉

대한민국의 건군(建軍)은 1945년 11월 13일 미 군정 법령 제28호로 공포된 국방사령부를 중심으로 그 기반이 조성되어 이듬해 4월 8일 미군정 법령 제63호 및 제64호에 의거하여 국방부로 승격되었는데, 이 국방부가 자주독립국가로 발돋움하려는 범국민적 여망 속에서 대한민국 국군 태동의 모체가 된 것이다.

한편, 항공에 대한 집념으로 뭉친 항공인들은 1946년 3월 15일 '중앙항공연구소'를 개설하고, 동년 5월 일본에서 귀국한 김정렬은 미 군정청과 긴밀한 접촉을 갖고 항공부대의 창설로 최용덕, 이영무, 장덕창, 박범집, 김정렬, 이근석, 김영환 등 7인의 항공계 지도자들이 1948년 4월 1일 육상경비대 보병학교에 입대하였다.

1948년 5월 15일 미 군정청은 육상경비국 내에 항공사령부를 서울 수색에서 창설하여 초대 사령관에 최용덕 중위를 임명하여 동년 7월 27에는 '항공부대'를 '항공기지부대'로 개칭하는 동시에 부대 주둔지를 경기도 김포군 양서면 송정리로 이동하였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육상경비국이 동년 9월 5일 "육군"으로 개편되자, 항공사령부도 "육군항공사령부"로 개칭되었다.

육군항공사령부는 정부수립 이후 처음으로 L-4형 항공기 10대를 미군으로부터 이양받아 9월 15일에는 선명한 태극마크의 우리 비행기가 한국 역사상 최초로 서울 상공에서 전시비행을 실시하였다.

1949년 1월 14일에는 경기도 김포에서 육군항공사관학교가 창설되어 공군독립의 기반이 구축되어 공군의 찬란한 미래를 약속하는 계기가 되어 정규 사관후보생 제1기는 6월 10일에 역사적인 제1기 사관후보생 입학식이 거행되었다.

2. 공군의 독립과 공군사관학교의 탄생으로부터 진해까지 시기까지

육군항공사령부는 1948년부터 공군의 독립에 노력을 기울여 1949년 6월 28일 육군본부 내에 항공국이 설치되고 마침내 10월 1일 대통령의 영단으로 육군항공사령부는 1,600명의 병력과 20대의 연락기를 가지고 육군에서 분리되어 “공군”으로 독립하였다. 그에 따라 육군항공사관학교도 명실 공히 “공군사관학교”로 개칭되어 새롭게 탄생하였고, 초대 교장 김정렬 대령이 공군참모총장으로 임명됨에 따라 이근석 대령이 2대 교장으로 취임하였다. 한편, 1기생의 교육은 1950년에는 한국전쟁의 발발로 인하여 정상적인 교육이 불가능하였다.



〈진해 캠퍼스 전경〉

공군사관학교는 6월 27일 당국의 비(非)전투부대 후퇴 방침에 따라 6월 28일 새벽 수원에 도착하였다. 6월 29일에는 다시 남하하여 대전으로 이동하였으며, 7월 3일 대구 해서국민학교로 이동

하였다. 7월 31일에는 다시 진해로 이동하여 약 2개월간 F-51 지상교육을 받았다.

1950년 9월 28일에 서울이 수복되자 공군사관학교는 진해기지에서부터 서울로 이동하여 성남중학교에 임시교사를 설치하고 제2기 사관생도를 모집하였다. 그러나 중공군의 개입으로 사관학교는 다시 철수하여 12월 22일 대구 칠성국민학교로 이동하였고, 12월 31일에 제2기 사관후보생의 입교식을 거행하였으나 전세(戰勢)의 악화로 다시 제주도 모슬포로 이동하여 대정초등학교에서 약 3개월간 주둔 후 1951년 5월 1일 진해 장천동 캠퍼스에 정착, 서울로 이전할 때까지 7년 동안 주둔하였다.

1951년 8월 5일 제1기 사관생도 83명에 대한 졸업식이 이승만 대통령을 비롯한 많은 내외귀빈이 참석한 가운데 진해 교정에서 성대히 거행되었다. 사관생도의 정신과 신념을 표현한 교가는 1951년 봄 전쟁 중에 김성태 작곡, 최용덕 작사로 제정되었으며, 공군사관학교 교육의 지표라 할 수 있는 공사십훈과 충(忠)·용(勇)·근(勤)·검(儉)이 사관생도의 교육방침이 되었다.

1955년에는 사관학교설치법이 제정·공포되어 사관학교도 일반 민간대학교에 준하게 되어, 1956년 4월 10일에는 제4기 사관생도 졸업생에게 최초로 이학사 학위를 수여하였다.

3. 서울 캠퍼스 시대



〈서울 캠퍼스 정문〉

1954년 7월 1일 김창규 장군의 위원장으로 사관학교 서울기지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1955년 6월 23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방동 394번지에서 역사적인 사관학교 기지 착공식을 가졌다. 1958년 12월 12일에 서울 캠퍼스로 이동하여 12월 19일 신축교사 준공식이 거행될 때까지, 약 3년

6개월에 걸쳐 대지 452,100여㎡에 연면적 22,440여㎡의 서울 캠퍼스가 건설되었다. 서울 캠퍼스는 7기생부터 33기생까지 26년간 2,804명의 보라매를 양성하였다.

1966년 4월 11일 박정희 대통령은 제4기 사관 임관 10주년 기념일을 기해 본교를 “성무대(星武臺)”라 명명하고 공사교훈인 지(知)·덕(德)·용(勇)의 휘호를 하사(下賜)하였다. 12월 20일에는 15~18기 졸업기념 사업으로 성무탑을 서울 캠퍼스에 건립하였다.



〈서울 캠퍼스 전경〉

1972년은 사관학교 교육과정의 획기적 전환이 이루어진 해로서 이학사 및 공학사 학위수여를 위한 교육과정으로 개정하여 국방관리학(이학사), 항공·기계·전자공학(공학사)의 4개 전공반 제도가 시행되었다. 1985학년도 2학기부터는 외국어학, 국제관계학, 경영학, 전산과학, 산업공학, 항공공학(2개반), 기계공학, 전자공학 등 8개 전공학과 9개반으로 증편되어 종래의 공학사, 이학사 학위 외에 문학사 학위도 수여하게 되었다.

4. 청주 캠퍼스 시대

서울 캠퍼스 주변의 도심화가 가속화되고 1976년 3월 27일 공사 제24기 졸업행사시에 수도권인 구 분산계획의 일환으로 구성된 본교 소산(疏散)추진위원회는 본격적으로 이전계획을 추진하게 되었고 1981년 5월 7일에 공군사관학교의 현 위치가 이동할 후보지로 채택되었다. 1983년 3월 20일에 토목공사가 착수되어 그해 12월에 총 3,762,000㎡의 부지 위에 청주 캠퍼스가 완공되었다. 그리하여 1985년 12월 21일에 대방동 캠퍼스에서 청주 캠퍼스로의 이전이 완료되었다.

1987년 3월 27일에는 제35기 졸업식이 거행되었으며, 이때부터 이학사, 공학사, 문학사 학위를 수여하였다. 4월 11일에는 청주 캠퍼스 인근에 활주로를 갖춘 별도의 기지를 완공하고 초등비



〈청주 캠퍼스 전경〉

행 훈련임무를 수행하는 제212비행교육대대를 통합하였다. 1987년 8월 1일부로 공군사관학교 교장의 계급은 소장에서 중장으로, 생도대장의 계급은 대령에서 준장으로 각각 격상되었다.



1997년 2월에 최초의 여자사관생도가 입교함에 따라 여생도 훈육을 위하여 공군간호장교와 육군에서 전군(轉軍)한 여군 장교를 여자 훈육관으로 보임토록 하였으며, 2002년 7월 22일에 지상 3층, 지하 1층 연면적 47백여㎡의 ‘하늘관’ 개관으로 생도들의 현대화된 편의시설 이용이 가능해 졌다.

2003년 1월 10일에는 향온·향습시설을 갖춘 지상 2층 건물의 박물관 수장고를 준공함으로써 역사자료를 보다 효율적으로 보존할 수 있게 되었다.

2006년 4월 5일 21세기 정보화시대에 부응하고 교육정보화 체계개선을 위하여 학술정보원이 창설되었다. 1972년에 도입된 T-41B항공기는 공군의 정예조종사 양성을 위한 초등 비행 훈련기로 사용되어 오다가 11월 28일 ‘고별비행’ 과 함께 퇴역되었으며, 차후 기종으로 2004년 7월 5일부터 도입된 T-103 단일기종으로 비행실습 과정을 운영해 오고 있다.

2008년 4월 1일 학교임무 및 교육목표 재정립을 위한 교육과정 및 학칙개정이 승인되었으며, 4월 14일 항공체력향상을 위한 ‘Ace Center’ 개관식과 5월 21일 제212비행대대 17만시간 무사고 비행안전기록을 수립하였으며, 10월 1일 국산1호 항공기 ‘부활(復活)호’ 국가등록문화재로 지정되었다. 또한 국내 우수 대학과의 교류는 계속 이어져 총 22개 대학교와의 다양한 학문적 교류를

추진해오고 있다.

2009년 6월 10일 공사 개교 60주년을 맞이하여 자긍심 고취와 뿌리찾기의 일환으로 공군사관 학교가 위치하였던 장소에 기념비 및 표지석을 설치하고자 3월 5일 공사 옛 교정(성남고) 기념비 제막식과 4월 15일 제주 대정초등학교 ‘훈적비’ 보수 제막식이 거행되었다.

이와 같이 본교는 역사적 전통을 기틀삼아 미래 공군의 주역이 될 ‘선진 정예 공군장교 양성’에 진력하고 있으며, 21세기 항공우주시대를 선도함과 아울러 최첨단 항공무기체제로 국가안전을 보장하고 국가이익을 실현하는 젊은 보라매의 산실이 될 것이다.



〈서울 성남중고 공사 주둔비〉



〈제주 대정초교 공사 훈적비〉

글 제공 : 공군사관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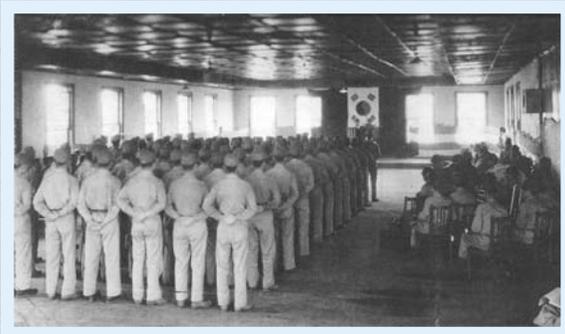
사진으로 보는 공사 60년

□ 김포 캠퍼스(1949. 1. 14 ~ 1950. 6. 27)



〈육군항공사관학교〉

- 김포군 양서면 방화동
- 육군항공사관학교로 출발('49. 1. 14)
- '49. 6. 10 개교(1기 사관 입교)
- '50. 10. 1부로 공군사관학교로 재탄생 (공군 독립)



〈1기 사관 입교식〉

- 1기 사관 97명 입교
- 초대 교장 김정렬 중령 교훈
 - 일류 공중 지휘관이 되라.
 - 일류 기술자가 되라.
 - 일류 신사가 되라.



〈학교 간부 및 사관생도〉

- 미군 건물 인수(본부 2동, 권셋 10동)
- 학과장 1개소
- 식당 : 후보생·사병 공용
- '50. 6. 27 후퇴

□ 성남 중학교(1950. 10. 10 ~ 1950. 12. 15)



〈성남 중학교 교정〉

- 9·28 수복 후 임시주둔(65일간)
- 교장 최용덕 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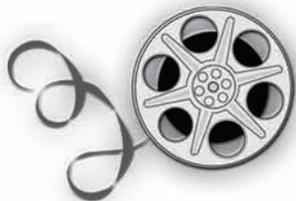
〈참모총장 수료식 훈시〉

- F-51 정비교육 수료식



〈참모총장 F-51MTD 미군교관 영접〉

- 2기 사관 1차 시험(서울지구)
- '50. 12. 15. 2차 후퇴



사진으로 보는 공사 60년

□ 제주 대정초교(1951. 2. 1 ~ 1951. 4. 23)



〈대정초교〉

- 제주도 대정읍 대정초교
- 1·2기 사관 교육
- 공군 핵심기간 요원 1,073명 교육



〈모슬포 훈련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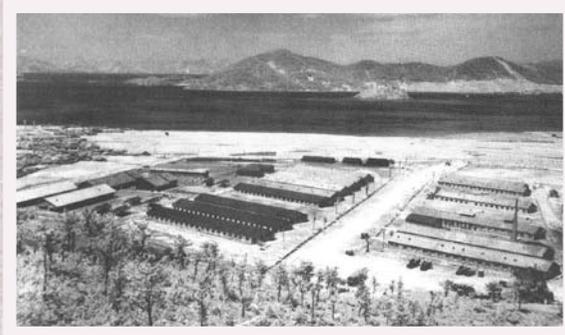
- 모슬포에서 야외 군사훈련(2기 사관)



〈대정초교 항공체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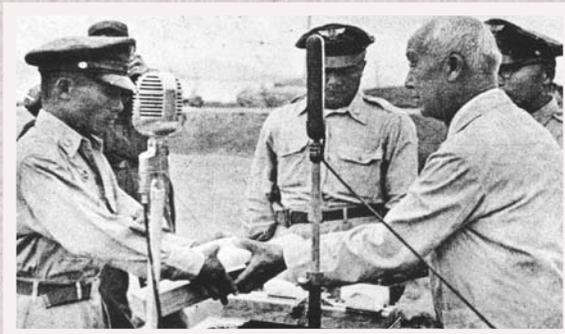
- 대정초교 교정에서 항공체조
(2기 사관)
- '51. 4. 24 진해로 이동

□ 진해 캠퍼스(1951. 5. 1 ~ 1958. 12. 11)



〈진해 캠퍼스 전경〉

- 진해시 장천동
- 1~6기까지 7년 동안 733명 졸업생 배출



〈1기 사관 졸업식〉

- 1기 사관 졸업식
- 이승만 대통령 교훈 하사('54. 3·1절)
‘武 勇’
- 교가 제정('51)
작사: 최용덕
작곡: 김성태



〈제1회 3군사관학교 체육대회〉

- 이승만 대통령 참관하에 3군사관학교
체육대회('54)
- 명예제도 확립('54)



사진으로 보는 공사 60년

서울 캠퍼스(1958. 12. 12 ~ 1985. 12. 21)



〈서울 대방동 캠퍼스 전경〉

- 서울 영등포구 대방동
- 7~33기 사관까지 26년 동안 2,804명 졸업생 배출
- 현 보라매공원



〈1971 사관 졸업식〉

- 교훈 새로 제정('66) '智德勇'



〈관악산 돌파 훈련〉

- 연 1회 관악산 돌파 훈련('66~'74)

□ 청주 캠퍼스(1985. 12. 21 ~ 현재)



〈청주 캠퍼스〉

- 충북 청원군 남일면 쌍수리
- 34기부터 5,210명 졸업생 배출



〈비행 교육〉

- 초등비행 교육 실시
- F-41 → F-103으로 훈련기종을 교체하면서 비행 입문 과정으로 변경 ('08. 8. 1)



〈57기 졸업식〉

- 최초로 여자생도 모집('97)

편집 : 공사총동창회

개교 60주년 기념식



공군사관학교는 '09. 6. 10로 개교 60주년을 맞이하였다. 1949년 김포에서 '조국의 하늘은 우리의 손으로 지키자'는 신념으로 창설된 공사는 개교 이래 57개 기수의 정예 공군장교 8,700여 명을 배출해 우리나라의 영공을 철통같이 지켜왔다.



한국전쟁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굳건히 극복하고 오늘날의 세계적인 사관학교로 성장시킨 주역들이 모교 연병장에 모여서 지난날을 회고하며 손주 같은 후배들과 어울려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자축연도가 됐다. 특히 이날 식전에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끝까지 함께하지 못하고 중도탈락한 동문들에게 명예졸업장 수여식도 거행하여 한층 뜻깊은 행사가 되었다.

동문 모두들 “하늘로! 우주로!”를 외치며 조국 영공수호와 우주공군으로의 도약을 다짐하는 축제였다.

명예졸업증서 수여



공사 개교 60주년 기념행사시 공사인의 대화합 차원에서 명예회원 24명에 대한 명예졸업증서 수여식이 '09. 6. 10 모교 연병장에서 거행되었다.

수십 년 전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끝까지 함께하지 못한 아쉬움을 털어버리는 순간이었다. 가족과 친지들도 함께하여 꽃다발을 안겨주는 장면이 여느 졸업식을 연상케 하였다.

제일 선배인 이주성(7기) 명예회원은 명예졸업자 대표로 열병차에 탑승하여 늙은 후배들을 열병하며 마음 든든해 하였고, 모두들 경축연에도 참가하여 동문들의 환영을 받았다.

▣ 명예졸업자 명단

- 7기 이주성
- 8기 김규완
- 10기 손동현, 전재순, 최정석, 이근성, 이재성
- 13기 이상정, 이선필
- 16기 장석춘
- 19기 곽해수, 심종보, 한장석, 남상문
- 20기 성민영
- 23기 권오봉
- 24기 박철규
- 27기 정종호, 최승렬
- 30기 이경운, 이창규, 심재천, 박성희, 유철식

1기 사관들의 김포벌의 추억과 6·25 참전

1. 공군 창설보다 앞서는 사관학교 역사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될 때만 해도 우리나라에 “공군”이라는 단어는 존재하지 않았다. 공군 창군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 등이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이었다.

과거 일본군이나 중국군에서 공군으로 복무했던 장병은 있었으나 모두 육군으로 배속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새 대한민국 정부가 공군 창설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는데 중국 국민당 장제스(蔣介石) 총통의 1번기 조종사 출신인 최용덕 씨를 첫 국방차관으로 임명하였다.

대한민국 공군 창설의 막중한 책임을 진 최용덕 차관은 가장 중요하고 긴급한 업무가 장차 공군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일단 김포 방화동에 위치한 미 육군항공부대 시설의 일부를 차용하여 “육군항공사관학교”를 창설하기로 하였다.

2차대전 때의 일본군 전투기 전대장(편대장) 출신인 김정렬 육군 중령에게 사관학교 개교 준비 업무가 떨어졌고, 1949년 1월 14일부터 김정렬 육군 중령이 중심이 되어 사관생도 모집 계획을 비롯하여 각종 교육과정 편성 등 기본 교육환경 조성 작업에 들어갔다.

우리 1기 사관 97명이 감격적인 입교식을 거행한 1949년 6월 10일은 대한민국 공군사에서 가장 중요한 날의 하나로 영원히 기록되었다.

당시 육군 항공사관학교는 해방 직후 미국이 주둔했던 부대의 부지를 보수하여 만든 학교로 본부 콘크리트 건물 1동과 20여 채의 크고 작은 퀸셋 건물 정도가 전부였다.

입교식 때 착용했던 교복이나 군화는 미국 군복과 군화가 지급되었는데 옷에 몸을 맞추고 군화에 발을 맞추어서 대강 비슷한 것을 골라서 입고 신었으며 몇몇 생도는 재봉사에게 따로 부탁해서 수선하여 입기도 하였던 것으로 기억한다. 원인은 미군으로부터 무상 지급된 군복과 군화가 그 규격이나 치수에 상관없이 인원수대로 배당되었기 때문이었다.

김정렬 초대 교장은 “실질강건(實質剛健)과 “충·용·근·검(忠勇勤儉)”을 교육목표로 세우고 우리 1기 사관생도들에게 다음 세 가지를 항상 강조하였다.

- 일류 공중 지휘관이 되라.
- 일류 기술자가 되라.



1기 사관 최규순

- 일류 신사가 되라.

일류 공중 지휘관이나 일류 기술자가 되라는 것은 사관생도에 대한 당부의 말로서 당연한 것이겠지만, “일류 신사가 되라”는 말은 참으로 신선한 충격이었다. 그 말은 현역에서 은퇴한 현재까지도 1기 생도들이 언제나 가슴 속 깊이 간직하고 있는 말이기도 하고, 동시에 이 말은 1기 생도들이 후배 생도들에게 반드시 전달해 주고 싶은 말이기도 하다.

입교 후 몇 개월 안 되어 1949년 10월 1일 대한민국 공군이 정식으로 창군되자 육군항공사관학교는 “공군사관학교”란 이름으로 제자리를 찾았다. 공군이 창군됨에 따라 대한민국 국군의 기본 편제가 비로소 완성되었고, 1956년에 “국군의 날” 제정 시에도 육군과 해군의 창군기념일인 10월 2일, 10월 11일보다 공군의 10월 1일에 더 큰 의미를 두어 10월 1일은 “대한민국 국군의 날”로 지정하게 된다.

김정렬 교장은 대한민국 공군의 초대 참모총장으로 자리를 옮겼으며, 제2대 교장으로 이근석 대령이 부임하였다. 이근석 교장은 사관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있어서 일반교양교육과 항공과학기술 교육이 적절한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1950년 5월 14일 전 국방부 차관이자 공군 항공기지 사령관인 최용덕 소장이 공군사관학교 제3대 교장으로 부임하였다. 사관학교 교장의 직급이 중령에서 대령으로, 대령에서 소장으로 격상된 것이었다.

2. 전시에도 계속된 사관학교 교육훈련

최용덕 교장이 새로 부임한 지 한 달 정도 지난 6월 25일 일요일 새벽 북한 인민군이 기습적으로 남침하여 내려왔다.

당시 대한민국 장교 중 가장 실전 경험이 풍부했던 최용덕 교장이 6월 26일 김포지구 경비사령관으로 급히 발령이 났고, 서한호 부교장이 교장 직무대리로 발령되었다.

6월 26일 당일 북한 전투기가 3차례나 날아와서 여의도와 김포비행장을 공습하는 통에 그 날의 일과는 연습이 아닌 실전상황에서의 공습 대피훈련만 반복되었고, 정규 교과로서의 교육활동은 당연히 중단될 수밖에 없었다.

6월 27일 우리 1기 사관들은 김포 별판의 본교 상공에서 우군기와 적군기의 공중전 실제상황을 목격하게 되었다. 3군 사관학교 생도 중에서는 공군사관학교 생도가 최초였다.

이 날 낮 12시경 적의 전투기 2대가 김포비행장에서 주한 외국인을 철수시키고 있는 우리 측 수송기를 공격할 목적으로 김포 상공에 나타났는데, 그때 수송기를 엄호하기 위해 김포 상공에 대기 중이던 미 극동 공군소속 F-82와 적기가 공중전을 벌인 것이다. 2대의 야그기를 격추시켜 상황이

종료되는가 하였는데, 낙하산으로 탈출하여 지상에 내려온 북한군 조종사가 갑자기 본교 쪽으로 권총을 발사하는 것이 아닌가! 물론 본교에서 99식 소총으로 응사해 사살하기는 하였으나, 우리 생도들에게는 더없이 좋은 전투경험이 되었다.

그날 저녁 가랑비가 부슬부슬 내리는데, 갑자기 수원까지 야간 행군훈련 명령이 하달되었다. 1기 사관 생도들은 일제히 비를 맞으며 김포에서 수원까지 계획에 없던 야간 행군을 하게 된 것이다. 비가 와서 날씨가 그리 덥지 않고 밤이라 다행히 행군하기에는 더없이 좋은 조건이었다.

그날 생도들에게는 발표를 안했지만 그날 밤의 행군은 그저 단순한 훈련 명령이 아니었고 사실은 전국 후퇴 명령으로 금방 돌아올 줄 알았던 생도들의 행군은 끝을 알 수가 없었다.

그날 밤 새 작업복, 새 군화는 물론이고 비상금과 시계까지도 고스란히 내무반에 놓아둔 채 낡은 작업복에다 낡은 군화만 걸치고 행군 훈련차 김포를 떠났던 우리 생도들, 그때 모포 1장과 항공 양식 2통을 지급 받은 것이 김포 별판의 마지막 추억이 될 줄이야.....

그 이후 대구와 진해를 돌아 잠시 서울로 그리고 또다시 제주도 모슬포를 거쳐 진해로 이동해야 하는 그야말로 파란만장한 시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었다.

생도들에게 작전상 후퇴이든 뭐든 후퇴를 한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주지 않았던 당시의 대대장 전명섭 중위가 5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서운한 마음으로 남아 있다.

만약 그때 내가 대대장이었다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내가 그 자리에 있었어도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았을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나중에 공군부대의 지휘관이 된 후에도 나름대로 정답을 찾아보려 애를 썼지만 아직도 그 상황에서의 모범 답안이 떠오르지 않는다.

어쨌든 우리 1기 사관들은 치열한 전쟁상황 속에서도 교육을 계속 받았고, 이 시기에는 비행훈련에 필요한 항공과학기술에 관련된 내용이 주류를 이루었다. 학교가 이리저리 전전하는 동안에도 대구와 사천 기지에서 F-51 무스탕 전투기와 L-4 항공기의 지상 학술교육을 이수하여 조기에 전투 조종사로서 전투에 참여 할 수 있는 기량을 연마하였다.

공군사관학교 1기 사관이라는 특수성과 전쟁 중이라는 특별성이 맞물려 교육과정은 2년에 불과했지만 투철한 군인정신과 사명감으로 1기 사관들은 누구보다도 열심히 교육훈련에 임하였던 것으로 기억한다.

3. 공군 임관과 6·25 참전

1951년 8월 5일 진해에 위치한 공군사관학교 교정에서 이승만 대통령을 모시고 83명에 대한 제

1기 졸업식 및 임관식이 성대히 진행되었다.

임관 후 사천 제1훈련비행단에서 소정의 비행훈련과정을 마치고 1952년 12월에 1차, 2차, 3차로 나누어 강릉 제10전투비행단에 배속되어 미 5공군전투기 출격명령서(FLAG ORDER)에 의해 출격을 시작했다.

1953년 7월 27일 남북간 휴전협정이 체결될 때까지 1기 사관 출신 출격조종사 34명을 배출했고 아쉬웠던 것은 상사의 배려만 조금 있었다면 100회 출격조종사도 탄생이 가능했다는 것이 1기 사관으로는 매우 섭섭하고 아쉬운 점이다.

출격 중 애석하게도 적의 포탄에 맞아 애기와 더불어 전사한 임택순 동기는 1기 사관 출신 첫 번째 전사자로서 1953년 1월 23일 첫 출격 후 11회 출격시 애기와 더불어 전사했고 휴전협정이 체결될 때까지 총 4명(임택순, 장창갑, 김형일, 고광수)의 전사자와 3명의 작전비행 중 순직자를 내는 등 참으로 희생이 많았다.

삼가 명복을 빌며 1기 사관 출신은 후배들에게 6·25때 국가를 위하여 사관출신의 명예를 위해 정말로 잘 싸웠다고 전해주고 싶다.

4. 맺음 말

오늘날 공군사관학교가 “세계로 우주로”의 발돋움을 하고 있을 만큼 성장한 것도 알고 보면 1기 사관이 겪었던 전란 속의 애환과 쓰라림이 밑거름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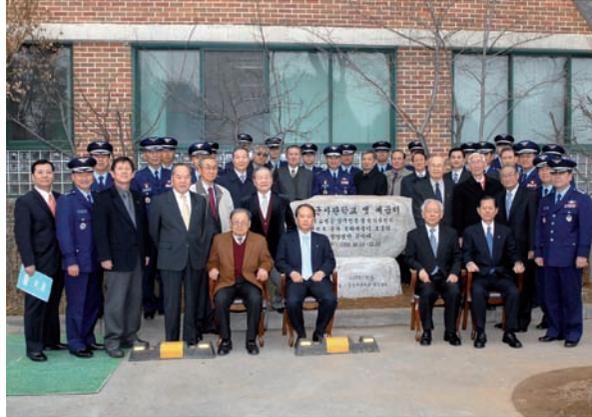
공군사관학교가 김포에서 문을 연 것을 시작으로 전란 중 대구로 진해로 서울로 제주도 모슬포로 그리고 또다시 진해로 수차례 옮겨 다녀야 했던 것은 1기 사관의 애환을 대변해 주는 것 같이 당시에는 모든 것이 고통스러웠다.

그러나 나이 80을 넘은 지금에 와서 생각하면 젊은날의 고귀한 추억으로 오래 간직하고 싶고, 맥아더 장군이 국회에서 연설시 노병은 죽는 것이 아니고 사라진다고 했지만 우리 1기 사관은 맥아더 장군처럼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후배들이 영공수호를 위해 완벽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그늘에서 든든한 방파제 역할을 하면서 후배들을 격려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싶다.

대한민국 공군사관학교의 무궁한 발전과 후배들의 끝없는 도전을 기원하면서 개교 60주년 기념으로 이 글을 쓴다.

대한민국 공군이여! 영원하라!

공사 주둔 기념비 건립



공사 개교 60주년을 맞아 3월 5일 총동창회에서는 모교 뿌리찾기의 일환으로 한국전쟁 중 공사 젊은 보라매들이 임시로 주둔하며 호국의 정신을 함양했던 성남중고등학교 교정에 주둔 기념비를 세웠다.

이 자리에는 당시 이 학교에서 · 사관생도 수업을 받았던 1기사관, 공사 선 · 후배, 총동창회 임원들 그리고 원석학원 이사장 및 관계자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뜻깊은 제막식을 치렀다.



제주 대정초교 공사훈적비 보수 제막식 거행



4월 15일 팔순의 老병들이 60년 전 옛 배움터를 찾았다. 한국전쟁 중 임시로 주둔하며 호국의 정신을 함양했던 제주 대정초등학교 교정에 서 있는 ‘공군사관학교 훈적비’를 보수하여 제막식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당시 사관생도였던 1기 사관(윤자중 전 총장 등 10명), 2기 사관(김상태 전 총장 등 9명)과 총동창회장단, 공사부교장과 참모들 그리고 대정초교 교장과 임직원 및 제주지역 유지들이 다수 참여한 가운데 군악대 연주하에 엄숙히 거행되었다.

60년 만에 찾은 옛 보금자리에서 어려웠던 시절 향수어린 회고담과 충정어린 안보의식을 강조 하기도 하였다. 또한 모두들 어려웠던 시기에 대정초교의 도움에 고마움의 뜻을 전하였다.

공사에서는 대정초교와 자매 결연을 맺어 학생들을 대상으로 초청행사를 실시하였고, 장학금도 매년 전달하고 있다.





한미동맹은 강화되어야 한다



총동창회장 박성국

1. 서론

1953년 10월 1일 한미 상호 방위조약 체결로 시작된 한미동맹은 냉전 이후 지난 반 세기 동안 가장 성공적인 국가간 동맹 중 하나로 평가되어 왔다. 강력한 한미동맹관계가 있었기에 한반도에 전쟁이 억제될 수 있었으며 국내적으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과학 등 여러 분야에서 눈부신 발전을 가져올 수 있었고, 세계적으로 2008년도 세계경제순위 13위의 경제대국으로 올라설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2000년 6월 김대중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간의 대화, 교류가 이어지면서 한국민들의 북한에 대한 위협인식이 감소되는 반면 2002년 발생한 미군 장갑차에 의한 여중생 사망 사건을 계기로 유발된 촛불시위가 점차 젊은 세대들을 중심으로 반미감정으로 확산되었으며 2008년 4월 한미 FTA 반대, 특히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등을 외치며 청계광장 앞에서 대규모의 촛불시위가 발생하게 되면서 결국 한미관계가 불편해지게 된 것은 사실이다.

최근 들어 북한의 2차 핵실험, 단·중·장거리 미사일 발사, 개성공단 문제 등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북한의 호전성을 볼 때 한미동맹관계는 우리의 안보는 물론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이에 따라 본 내용은 한미동맹의 수립과 환경변화, 그 필요성을 살펴보고 한미동맹을 강화시키기 위한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2. 한미동맹사

한미 양국은 1866년 미 상선 제너럴셔먼호 사건으로 인해 1871년 미 군함이 강화도를 침공했던 신미양요로 첫 접촉이 있었으나 결국 1882년 5월 「조·미 평화 수호 통상 및 항해에 관한 조약」의 체결을 계기로 처음 공식적인 관계를 수립하였다. 그러나 실질적인 한미동맹관계는 1950년 6월,



〈미 Arlington 국립묘지〉

북한의 도발로 한국전쟁이 발발하면서 UN 안보리의 결의에 의하여 한국 방어를 위한 미군의 참여로 혈맹의 관계로 맺어지게 되었다. 1953년 정전과 함께 한미간 상호 방위조약이 체결되었고, 방위조약은 1954년 11월 18일부로 발효되었다.

'60년대 중반 이후부터 한미동맹관계는 카터 대통령에 의한 주한 미군 철수 시도 등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으나 1978년 11월 7일에는 한미 연합군 사령부(CFC : Combined Forces Command)를 창설하여 한미 연합 방위체제를 확고히 다지는 계기가 되었다. 사령부 창설과 함께 전쟁 중 맥아더 사령관에게 위임되었던 '일체의 군지휘권(Command Authority)'은 '작전통제권(Operational Control)'으로 수정되었으며 전략지시 1호에 의거 연합사령관은 각 구성군 사령부를 통해 한미군을 작전통제하게 되었다. 그 후 제24차 한미 연례 안보협의회의(SCM)에서 평시 작전통제권을 한국군에 이양하기로 합의한 후 1994년 12월 1일부로 한국 합참의장에게 반환되었다.

한미 양국은 2007년 2월 24일 워싱턴에서 개최된 양국 국방장관 회담에서 2012년 4월 17일부로 한미 연합사를 해체하고 한미간의 역할을 지원과 피지원(supporting(미), supported(한)) 관계로 전환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어서 2007년 6월 28일에는 한국 합참의장과 주한 미군 사령관이 양국을 대표하여 한미 지휘관계 전환계획서에서 서명하였다. 이로써 그동안 30여 년 이상을 한반도에서 전쟁 억제력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던 연합군 사령부의 시대가 종말을 고하게 된 것이다.

3. 환경변화

지난 반 세기 동안 한미동맹은 역내 평화와 안정을 지키는 성공적인 동맹으로 발전하였으며 한국의 고도성장을 가능케 한 변영의 초석이 되어 왔으나, 국제정세의 변화와 국내 환경변화로 인해 새로운 변화의 압력을 받게 된 것이다. 이러한 한미동맹관계의 변화요인은 여러 가지를 들 수 있겠지만 크게 다음의 세 가지를 들 수가 있다. 우선은 지난 10여 년 간 소위 친북, 좌파 정권의 등장이며, 둘째는 한국의 비약적인 경제 발전에 의한 한국의 위상 변화를 들 수가 있고, 셋째는 미국자체의 세계 전략 변화를 들 수가 있다.

우선 지난 10년간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추진해 온 햇볕정책의 결과 한국인들의 대북 위협 인식이 크게 이완되었다는 것이다. 과거 적으로만 생각했던 북한을 우리가 도와주어야 하는 같은 동포로 인식하는 분위기가 확산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주한 미군의 주둔을 근간으로 하는 한미동맹의 근본적인 필요성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이다. 그동안 여러 기관에서 실시했던 여론조사에서 미군을 북한보다 더 위협적인 존재로 생각하는 결과가 나온 것은 예상된 결과이다.

다음은 한국사회의 급속한 산업화에 따른 경제적 성장과 민주화의 결과로서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과거 일방적으로 미국의 지원을 받던 시대와는 크게 달라졌다는 것이다.

오늘의 한국은 과거의 한국이 아니다. 한국전쟁 이후 세계 최하위 수준의 빈곤국에서 벗어나 수출입 규모나 기타 경제규모로 볼 때 세계 11~13위권의 경제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삼성이나 LG의 전자제품이나 통신제품은 세계 최상의 브랜드 파워를 갖게 되었다.

또한 정치적으로도 서구 선진국들에 비해 짧은 기간에 고도의 민주화를 이룩하였고, 그동안 '86 아시안게임, '88 올림픽, '02 월드컵을 개최하였으며, 1996년에는 세계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국제적 행사를 통해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면서 국민들의 자긍심도 고양됨에 따라 대외적으로도 더는 불평등하고 불공정한 대우를 용납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갖게 되었다.

이제 한국은 과거와 같은 미국의 단순한 피보호자가 아니라 대등한 입장에서 어엿한 안보협력 파트너로 대우받기를 원하고 있다.

그러나 대등한 한미관계는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의지와 행동으로 달성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며 오로지 한미 두 나라의 상호 이해와 국익증진에 기초한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다.

다음은 미국 자체의 세계전략 변화로써 탈냉전(post cold war)시대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으로 자리 잡았던 미국이 예기치 못했던 대규모 9·11 테러를 당한 후 세계 전략에 대한 전반적인 수정을



가하게 되었다. 소위 탈 탈 냉전(post post cold war)시대 새로운 미국의 군사전환(military transformation) 정책을 보면 주한 미군의 병력을 감축하는 대신 첨단무기를 한반도에 재배치하면서 한국이 상황에 따라 주한 미군의 융통성 있는 투입과 철수를 허용하고 도와주기를 바라고 또한 동남아 테러 사태나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확산에 대하여 한국이 상당한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며 테러와의 전쟁을 위해 주한 미군이 계속해서 주둔할 수 있는 우호적인 주둔 환경을 조성해 주기를 원하는 것이다. 결국 미국의 안보전략은 과거 ‘위협에 기초한 군사전략(Threat-Based Planning)’에서 ‘능력에 기초한 접근방법(Capability-Based Approach)’을 도입하게 되었다.

4. 한미동맹의 필요성

국제사회에서 세력균형이란 전쟁방지를 통해 국제체계의 안정적 유지와 상호 안보를 보장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대한민국의 경우 한반도 주변 전략 환경의 변화를 수용하면서 한국의 국익을 최대한 보장해 줄 수 있는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 동북아지역의 안정적 균형 그리고 세계시장



으로의 자유로운 접근이라는 세 가지 요소에 대한 위협요인에 대처하고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지정학적으로 미·일·중·러 4강의 중심에 있는 한국으로서는 타 국과의 동맹(Alliance)관계를 유지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현실이다.

그러면 과연 우리는 누구와 손을 잡아야 하는가?

한국전 이래 지금까지 한국의 외교안보정책의 핵심은 한미동맹이었다. 21세기의 장기적 관점에서 한국의 선택은 어떠해야 하는가?

한동안 한국의 21세기 대외정책 방향을 둘러싸고 표출되는 국내의 논의 가운데에는 그동안 미국에 편중되어 있는 상황에서 벗어나 중국과의 관계를 격상시켜 미·중 사이에서 균형정책을 취함으로써 자주성을 확보하자는 주장이 있었으나 중국은 고대부터 중국이 세계를 다스린다는 천하사상, 그리고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라는 중화사상에 따라 대외관계를 맺어 왔으며 밖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지금도 여전히 패권을 추구하고 있다.

이른바 동북공정을 통해 고구려와 발해의 역사를 중국사에 편입시키려는 데서도 쉽게 그 의도를 엿볼 수 있다.

통일을 위해 중국과 좋은 관계를 조성해 나가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이를 위해 한미동맹관계를 해체하거나 미·중 중간에서 균형정책을 취하기 위해 기존의 한미동맹관계를 약화시킬 경우 자주 역량으로 한국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한다는 것은 어려울뿐더러 오히려 혼란과 안보상의 불안정을 가중시킬 가능성만 높아지게 된다는 것이다.

미국은 지리적으로 한반도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있을 뿐 아니라 한반도 주변 4강 중에서 한반도에 대한 영토 야욕이 없는 유일한 나라이다. 역사적으로 한반도를 호시탐탐 노려온 일본, 중국, 러시아 3국을 견제하기 위하여 손을 잡아야 할 나라가 어디인지는 자명하다.

결국 세계 최강의 미국만이 주변 강대국들의 반대를 억누를 수 있는 힘이 있으며 미국이 한국편이 되지 않는 한 한국의 평화통일은 대단히 어려울 것이다.

냉혹한 국제관계의 현실에서 미래 한국의 안보가 감정적 판단에 맡겨져서는 안 된다. 이제는 “싫다”, “좋다”를 떠나서 한국의 안보를 둘러싼 전략 환경을 냉철히 판단하고 장기적이며 실용주의적 입장에서 한미관계를 과연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를 고심해야 할 때이다.

5. 한미동맹의 발전방향

1996년 미·일 양국이 전략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동맹관계를 재정립하였듯이 한미동맹도 지속적으로 유지 발전시키기 위한 새로운 비전 제시가 필요하다.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시키기 위해 다음의 세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한미동맹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획득해야 한다.

우선 일부 국민들 저변에 깔려 있는 반미감정을 최소화시키는 대국민 홍보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언론방송을 통한 홍보드라마 제작, 미군에 대해 잘못 게재되어 있는 교과서 수정 등을 통해 반미 정서를 불식시키고 민간차원의 미담사례를 발굴 전파한다. 또한 주한 미군 장병들에 대한 우리문화 소개 행사 등 다양한 친선활동을 꾸준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경제적 지원을 통한 북한과의 대화유지에만 급급해오다 보니 북한의 실상에 대해 언급을 자제해 왔으나 이제는 북한의 선군정치, 핵, 화생무기 등을 포함한 가공할 군사력, 무력을 통한 남북통일 정책, 인권문제 등 북한의 호전적인 실상을 국민에게 모두 알림으로써 국민들의 확고한 대북관을 확립시켜 주어야 한다. 북한은 이제 개발된 핵 탄두를 소형화시켜 장거리 미사일에 장착할 수 있는 능력 개발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 그 능력을 다 갖추기 전에 우리는 우리의 생존을 위한 대비책을 수립해야 한다. 차제에



전작권 환수와 관련하여 전작권이 국가통수권이나 지휘권 및 주권과는 다른 개념이란 사실도 국민들에게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 아직도 많은 국민들은 전작권 환수가 마치 잃었던 주권을 찾아오는 것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실정이다.

둘째, 북한문제 관련 한미공조를 강화해야 한다.

그동안 북한문제와 관련 6자회담에서 한미공조를 잘 이루어 왔으나 매 회담에 앞서 특히 북핵과 관련한 한미간의 사전조율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한국은 한미 양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요인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북한의 군사적 위협, 대량살상무기, 테러의 위협에 대해 미국과의 인식 차이를 좁혀가야 한다. 핵을 비롯한 대량살상무기, 테러에 대해서 그동안 한국만 위기의식을 못 느꼈을 뿐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이 심각한 위협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특히 테러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국제공조에는 우리의 국력에 걸맞는 직접적인 참여가 요구되고 있다. 한미공조가 반드시 필요한 몇 가지 사안을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북한은 2006년 핵실험과 관련하여 유엔에서 채택한 유엔안보리결의안 1695호 및 1718호의 대북제재방침도 일축했으며 이에 대해 유엔안보리는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했다.

그러므로 미국이 주도하고 세계 각국이 참여하는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 구상(PSI :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과 미사일 방어(MD : Missile Defense) 계획에 한국도 그 직접적 당사자로서 적극 동참해야 한다.

PSI는 핵, 미사일, 화학무기 같은 대량살상무기(WMD : Weapons of Mass Destruction)가 불량국가나 국제테러조직으로 옮겨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2003년 미국 제안으로 시작되어 이미 94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국제공조체제로 그동안 우리는 PSI 목적과 원칙을 지지한다고 하면서도 PSI 훈련에는 참가하지 않고 옵서버 자격으로 관련 브리핑만 받아왔었으나 늦었지만 5월 26일부로 정부에서 PSI 전면 참여를 선언한 것은 매우 다행한 조치이다. MD 계획도 북한은 이미 2006년 10월 첫 핵실험을 하였으며 지난 4월 5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이어 5월 25일 2차 핵실험을 실시함으로써 결국 핵과 그 운반수단을 보유하게 되어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대상으로 위협을 가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반드시 미사일 방어계획에 동참하여 공조체제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 차제에 2001년 미사일 기술 통제체제(MTCR : Missile Technology Control Regime) 가입으로 제한된 우리 미사일의 최대 사거리 300km를 북한 전역에 도달할 수 있도록 최소 700km 내지 1,000km까지 연장하도록 재협상을 해야 할 것이다. 원래 이 합의는 우리가 MTCR에 가입 당시 미국이 북한과 미사일 동결조치에 합의하면서 북한을 미사일 기술통제체제(MTCR)에 가입시킨다는 전제하에 우리가 수용하였으나 이제는 북한의 미사일 동결조치가 깨져 한미 미사일 합의의

회원논단

전제 조건이 무너졌으므로 우리 미사일 사거리 연장의 명분이 생겨 강력히 재협상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 기회에 어렵겠지만 이미 북의 핵 보유가 기정 사실화되어 가고 있는 마당에 한반도의 비핵화 선언에 의해 철수되었던 미국의 전술 핵무기를 재전개시켜 우리도 간접적이거나 핵 억지력을 갖도록 해야 한다. 핵에 대한 억지력은 핵밖에 없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이러한 전술 핵의 재배치는 북한과의 핵 협상 시 협상 카드로서도 효과가 있을 것이다. 한미양국은 이러한 공동의 위협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공동의 가치와 목표를 설정하고 21세기 변화에 맞게 동맹관계를 발전시켜 나아가야 한다.

이를 더욱 효율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한미관계에서 한·미·일 3개국의 공조관계로 추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현재 미·일 관계는 과거 한미관계보다 더욱 밀착된 관계이기 때문이다.

드디어 UN 안보리에서 북한의 2차 핵실험을 응징하기 위한 UN 안보리 결의안 1874호가 6월 12일 마침내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

선박검색, 무기금수, 금융제재 등 이번 결의의 핵심내용을 이행하는데 정부는 국제공조에 적극 호응하여야 한다. 과거 UN 결의안 1718호는 이행이 제대로 안되다 보니 유명무실하게 되었던 전례를 거울삼아 이번에는 구체적인 대북 제재안을 수립하여 철저하게 이행시켜야 한다.

그리고 한미간의 확실한 공조를 위해서는 서로 상대방이 어려울 때 도와 주는 것이 중요하다. 사실은 이라크전 파병시에도 우리 군이 많은 역경을 이기고 훌륭히 업무를 수행했음에도 결국은 파견 시기와 병력 규모 및 역할에서 아쉬움을 남기는 결정이었다.

어려울 때 도와주는 친구가 진정한 친구이듯이 미국이 어려움을 겪는 지역에 파병해 줄 때 더 큰 보답을 우리가 어려울 때 받을 수 있게 된다. 즉, 현 미국 정부가 우리에게 공식적으로 요청을 하고 있지는 않으나 현재 미국이 아프간에서 우리의 역할을 간절히 기대하고 있을 때 기꺼이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 지난 5월 6일 정부가 발표한 아프간 지원 확대 계획을 보면 경찰 오토바이 300여 대, 구급차 100여 대 등 향후 3년간 7,400만 불의 지원과 의료, 직업훈련, 태권도 교관 등 전문인력 60여 명을 파견하는 내용이었는데, 실제 미국이 원하는 것은 전투병력이다. 이렇듯 우리가 장비 등 만을 지원



〈Key Resolve 연습에 참가 중인
함모 USS John C. Stennis호〉



하면 결국 우리도 유사시 장비 등만 지원받게 될 것이다. 소위 Global Korea를 주장하면서도 우리는 아직까지 받기만 하고 국익이 되는 것만 생각해 왔다면 이제는 미국과 국제사회에 우리의 능력에 걸맞게 기여를 해야만 세계화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전작권 환수계획의 무효화 내지는 북 위협이 안정될 때까지 만이라도 당분간 환수시기를 연장하는 것이다. 참여정부에서 전작권 환수를 합의할 때와 현재 우리의 안보환경은 달라졌다. 북에서 2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후에도 중·단거리 미사일을 수차례 걸쳐 발사하였으며 앞으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등 위협적인 현 상황은 안보상 매우 위태로운 시기가 되어버렸다. 공교롭게도 전작권 환수시기인 2012년은 북에서 강성대국 완성의 해로 정해 놓고 있으며 마침 2012년 4월 15일은 김일성 생일 100주년 기념을 계획하는 등 그들에게는 의미있는 해인데 하필 이때 우리가 전작권 환수(2012.4.17)와 연합사 해체를 계획한다는 것은 심각히 재고해야 할 필요가 있다. 더구나 참여정부에서 전작권 환수계획을 발표할 때 이러한 국가의 안위에 관한 중대결정을 사전에 국민 공감대를 얻거나 국회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했으므로 이제는 이성적인 판단하에서 미국과 재협상을 시도해야 한다. 마침 지난 2월 4일 한미 협회 조찬연설에서 월터샤프 연합사령관은 전쟁이 발발할 경우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연합공군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연합사가 해체되면 오산기지에 한미 연합 공군사령부가 창설될 것이라고 언급하였는데, 이는 유사시 미 공군전력을 운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반도에서 전쟁역지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매우 다행한 조치라고 생각된다.

셋째, 한미동맹을 포괄적, 역동적 동맹관계로 발전시켜야 한다.

여기서 포괄적 관계는 군사 안보적 차원에서 민주주의, 인권 및 시장경제의 공동가치를 바탕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를 포괄하는 관계를 말하며 역동적 관계는 양국의 민·관 여러 분야의 다양한 참여를 유도하여 한미관계를 전향적이고 미래 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한국정부는 미 정부와의 협의 채널을 확대하고 민간차원의 교류가 활성화되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 정치 안보분야에서의 장관급 전략대화, 경제분야에서의 자유무역협정(FTA)에서부터 환경, 문화 등의 민간활동 교류 확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고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마침 6월 16일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갖고 한미동맹을 미래지향적이고 포괄적인 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한미동맹 공동비전'을 채택하였으며 여기에는 북한이 핵무기로 도발할 경우 핵우산을 포함한 미국의 확장된 억지력(extended deterrence)을 보장하는 안보 공약이 포함되어 있어 한미 양국간의 강화된 동맹관계를 보여주었다.

6. 결 론

한반도가 세계 유일의 분단지역으로 전쟁 가능성은 높으나 전쟁은 억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전략권 환수의 재고 등 굳건한 한미동맹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현실이다. 지금까지 한미동맹의 역사와 주변 환경의 변화 그리고 한미동맹이 왜 필요한지를 살펴보았으며 그 발전방향으로써 우선은 한미동맹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지지를 얻어야 하고 다음은 북한문제와 관련하여 본문에서 언급한 제반 현안문제에 대해 상호 협상을 통한 한미 공조를 강화해야 하며, 앞으로는 한미동맹을 포괄적, 역동적인 동맹관계로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자유민주주의라는 정치적 연대,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한 경제적 동맹 그리고 제도화된 군사적 동맹을 통해 한국은 미국과 포괄적이고 호혜적이며 역동적인 동맹관계를 실천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한미동맹은 과거에도 그리고 미래에도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한국의 중요한 자산으로써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강화되어야 한다. 🇺🇸🇰🇷





M

Members

L

Letter

21세기 美-中 관계 전망과 대한민국의 대비책



16기 사관 **최명상**
(인하대 정치외교학과 객원교수)
(Paris 1-Sorbonne 국제정치학 박사)

I. 서 론

미국 역사상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탄생했다. 세계사적 사건이다. 바락 오바마(Barrack Obama)는 변화(Change)를 선거구호로 내세워 대통령에 당선됐다. 미국인들은 이라크전쟁 실패와 금융위기 등의 8년간 부시(George W. Bush) 공화당정부에 염증을 느끼고 새로운 변화를 기대를 걸었다. 따라서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사회는 물론 국제사회에 많은 변화를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된다. 폴슨(Henry Paulson) 전 미국 재무장관은 글로벌 금융위기의 책임이 중국에 있다고 했다. 미국의 클린턴(Hillary Clinton) 미 국무장관은 지난 2월 20일 방중 시 후진타오(胡錦濤) 주석에게 세계 경제활성화를 위한 조치와 미국채권의 더 많은 구입을 요청했다. 중국의 언론들은 ‘중국의 자본주의 구세주론’을 거론했다. 미국인들의 탐욕에서 비롯된 자본주의 시장경제 위기를 중국만이 구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18세기에도 중국이 미국을 경제위기에서 구했다며 ‘중국의 자본주의 구세주론’을 들먹였다. 미국과 중국이 수교한 지 올해로 30주년이다. 중국 공산화 이후 한반도에서 전쟁을 치른 두 나라는 1972년 처음 만났다. 미국의 키신저(Henry Kissinger) 전 국무장관은 Nixon 전 대통령과 함께 중국을 국제무대에 끌어내어 미소양극국제체제(Bi-Polar International Systems)를 다극국제체제(Multi-Polar International Systems)의 국제질서로 변화시켰다. 또한 중국은 덩샤오핑(鄧小平)의 흑묘백묘론(黑猫白猫論)에 따른 개혁개방정책으로 경제대국이 되었다. 작년 말 미국에서 시작된 금융위기는 세계적 경제위기로 치닫고 있다. 새로운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미중관계를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가. 강대국으로 부상 중인 중국을 잘 다룰 수 있을까.

두 강대국 사이에 낀 한반도가 예의주시할 대목이다. 따라서 나날이 강대국화되는 중국과 새로운 대통령을 맞이한 미국의 관계를 전망하고 그에 대한 한국의 대비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Pax Americana와 중국의 강대국화 그리고 미-중 관계 전망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적 강대국으로 부상한 미국의 대아시아 정책은 미일동맹을 주축으로 아시아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모색하는 것이며, 한미동맹으로 한반도에서 전쟁을 억제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미국의 대아시아 안보정책은 1990년 소련이 붕괴되고 미국주도의 국제질서인 Pax Americana가 형성되어 가면서 변화하고 있다. 중국의 위협을 미리부터 억제하자는 중국봉쇄론(china containment policy)과 중국의 도광양회(韜光養晦)와 화평굴기(和平崛起)정책으로 21세기 말까지는 중국 동반자론(china partnership policy)을 유지할 것이라는 상반된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변화를 선거이슈로 당선된 오바마 대통령의 중국정책은 중대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중국 청나라는 유럽의 서세동점에 따라 1840년 아편전쟁을 계기로 몰락해 갔다. 손웬(孫文)은 1911년 10월 10일 신해혁명(辛亥革命)으로 중화민국을 일으켰지만 결국은 마오탈동(毛澤東)의 공산주의 혁명이 성공하여 1949년 10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을 세웠다. 마오탈동 사망후 덩샤오핑은 1978년 개혁과 개방정책으로 정치체제는 공산주의를 견지하되 경제체제는 자본주의로 전환하여 고도의 경제성장과 강대국을 만들었다. 1989년 동구공산권이 무너지고 소련이 붕괴할 때도 중국은 사회주의를 구가했다. 이제 2009년 세계적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이해서 중국이 자본주의를 구하고 전 인류의 평화와 번영을 가져올 수 있을까. 세계적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FT)는 최근 유럽을 순방한 원자바오(溫家寶) 총리와의 인터뷰에서 ‘중국 구세주론’에 동의하는지 물었다. 그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중국은 인구 13억 명의 개도국이기에 내부 문제 해결에도 바쁘다”고 에둘러 답했다. 덩샤오핑(鄧小平)의 도광양회(韜光養晦) 가르침에 충실한 의례적 답변이었다. 하지만 원자바오 총리는 세계의 금융위기 원인이 중국에 있다는 비난발언에는 한 마디 했다. 중국 고전 『서유기(西遊記)』에 빗대 “미국의 비난행위는 저팔계가 삼지창으로 반격하는 꼴”이라고 했다. 저팔계가 스스로의 공만 내세우고 잘못은 인정하지 않듯 미국 채권을 열심히 사준 중국에 감사하기는커녕, 오히려 금융위기의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는 비판이다. 좀처럼 보기 드문 중국 지도자의 미국 비난이다. 중국인들의 미국을 보는 시각에 상당한 변화가 감지된다. 미국에 대한 조소는 중국에 대한 자부심으로 비화되고 있다. 명분 없는 이라크 침공과 금융위기로 미국의 권위가 실추되면서 생긴 현상이다.



M

Members

L

Letter

1. 중국 봉쇄론(The China Containment Policy)

지난 해 12월 22일 서울 르네상스 호텔에서 열린 ‘미국 신행정부 출범과 동북아 위기관리’ 국제 세미나에 참석한 송즈용(熊志勇) 중국외교학원 교수는 2009년으로 수교 30주년을 맞는 미중관계에 대해 비관적 전망을 내놓았다. 중국 내 유명 미국 전문가인 그는 “선거운동 기간 달라이 라마를 만나려 했던 오바마가 취임 이후 그와 회동할 경우 중미 양국 관계가 크게 손상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바마가 대선공약으로 내세운 외교정책은 첫째 16개월 이내 이라크에서 철군, 둘째 중국과 유럽을 중시하는 현실외교, 셋째 대화를 통한 직접외교로 북한핵 해결과 인권개선 촉구, 넷째 외교 방식에 의한 이란 핵문제 해결 및 제재방안 강구, 다섯째 대테러 전쟁의 책임있는 종식, 여섯째 자유무역협정반대, 일곱째 적극적 시장개입과 규제의 필요성 등이다. 또한 오바마는 후보시절 중국의 위안화 고환율정책에 대하여 통화조작(currency manipulation)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심하게 비난한 바 있다. 그러면 변화를 목표로 출범한 오바마 행정부의 대중국정책은 어떻게 바뀔 것인가. 우선 오바마 행정부는 국제적 금융위기 해결을 위해 중국과 보다 유연한 관계를 전개할 것이다. 부시 전 대통령은 취임 초기 중국의 인권문제 등에 비판적인 태도를 취했었다. 하지만 중국의 확대되는 경제력과 정치·군사적인 부상은 티베트 시위 무차별 탄압에도 불구하고 부시의 베이징 올림픽 참석으로 이어지는 등 전략적인 관계 발전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오바마 행정부도 금융위기에 빠진 미 경제를 살리기 위해 중국과의 협력관계를 강화할 것이다. 그러나 차후 중국이 티베트와 인권문제를 개선하지 않거나 그럴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민주당 주도의 의회가 나설 수 있다고 본다.

미국이 9·11테러사태 이후 신설한 국가정보국(DNI)의 존 네그로폰테(John Negroponte) 전 국장은 “미국 정보 당국이 장기적으로 가장 중요시해야 할 문제는 중국이다. 우리 아이들과 손자 손녀들은 중국이 세계무대에서 매우 강력한 국가가 되는 세상에서 살게 될 것”이라고 증언한 바 있다. 미국과 중국관계는 1972년 시작한 이래 소련해체까지 대소역제를 위한 전략적 동반자관계였다. 하지만 1989년 천안문사태 이후 양국관계가 악화되면서 군사교류도 정지되었다. 더욱이 미국은 중국의 반국가분열법 제정 이후 대만과의 군사협력을 노골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군사전문가들은 미국이 양안 긴장을 명분으로 과거 중국과 대만 간에 취해 온 ‘전략적 모호성’을 포기한 것이며 지난 2월 미일 외무 및 국방 각료급 안전보장협의위원회에서 대만해협을 공동 전략목표로 설정한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이와 같이 벌써부터 미국과 일본은 공동으로 서서히 중국위협에 대한 중국봉쇄론(china containment policy)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중국의 군사력증강은 북한을 포함한 역내 일부 아시아 국가들의 친중화(親中化)에도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하겠지만 대만에 위협이 증가되어 양안 간에 긴장이 고조되고 일본의 군사대국화에

빌미를 주어 오히려 동북아시아지역의 세력균형(balance of power)이 깨어짐으로 인하여 북한핵에 이어 불안이 더욱 가중 될 개연성이 있다. 아울러 미국도 아시아지역에서의 안보국방정책 강화로 그 영향력 증대에 나설 것이다. 장기적으로 Pax Americana를 지향하는 미국의 적극적 개입으로 중국에 대한 봉쇄정책의 강화와 중국 내부분열책이 증가될 것이다. 중국의 동북아시아 패권을 두려워하는 일본도 미일 동맹선상에서 중국의 민족분열을 획책할 것이다. 따라서 2030~'50년 중국이 미국의 GDP를 능가할 경우 미국은 한국-일본-대만-베트남-티베트-키르기스스탄-위그르(신강)-몽골-만주(조선족)를 띠로 연결하는 중국 봉쇄전략이 점점 더 노골화하여 미국과 중국 간에 긴장이 고조될 것으로 전망할 수 있다.

2. 중국동반자론(The China Partnership Policy)

그러나 중단기적으로 미중의 경제적 관계는 이미 상호의존적 깊숙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급격한 변화는 없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그러한 사례는 베이징올림픽을 앞두고 티베트인들의 독립 투쟁을 할 때 잘 나타났다. 중국정부는 폭력으로 티베트인들을 말살하려 한다는 국제적 비난을 의식해서 50년간 대화를 거절해 왔던 티베트의 정신적인 지도자인 달라이 라마와 대화를 가졌었다. 겉치레 형의 만남으로 유럽 정상들이 속속 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할 것을 거부하고 있을 때 미국 대통령은 그런 거부행렬에 가담하지 못했다. 미국의 노조와 야당 대선후보들은 중국에 무역 압력을 가하라고 주장하고 중국의 위안화를 절상하도록 외교적인 압력을 가하라고 목청을 높였다. 심지어는 중국의 수출시장으로 미국을 누구보다 개방하는 데에 앞장을 섰던 클린턴 전 대통령도 중국의 대미수출을 견제할 것을 주장했다. 하지만 Bush 전 대통령은 미중 경제관계가 상당하기 때문에 선뜻 베이징올림픽 참석거부를 발표할 수 없었다. 그러면 과연 중국이 미국의 경제를 해칠 정도로 경제력이 강한지 살펴보자. 중국은 저렴한 노동력과 독재정치로 노조 운동을 막아 놓은 덕으로 현재 2조 달러의 잉여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 이 액수는 세계 최고액수이다. 물론 그들에게 가장 큰 수출시장은 미국이다. 그런 막대한 잉여 현금의 70%를 중국은 미국에 투자하고 있다. 이 중에서 4,000억 달러는 미국의 정부채권, 주식 및 회사채에 투자를 하고 있다. 외화(\$) 최대보유국인 중국이 보유액의 상당부분을 싼 가격으로 처분하면 미국의 달러화는 더욱 약화할 것이고 그런 달러의 급격한 약화는 미국 경제에 타격을 입힐 것이라는 중국 경계심을 부추기는 경제인들도 있다. 그렇지만 이 4,000억 달러는 미국 재정부가 거래하는 전체적 거래 액수 중의 단 하루분에 불과하다. 다시 말해 중국은 미국의 경제를 급격히 해칠 정도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결론이다.

이런 사정을 알고 있는 중국은 미국의 최근 금융위기에도 미국의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조치를 절대로 취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국은 미국의 경제에 깊은 신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미국에 투자를 계속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올림픽 경기로 완공된 500여 개의 최신식 비행장의 건설에 요하는 거의 모든 장비를 미국에서 구매했다. IBM의 PC사업을 중국이 인수했고 레노보(Lenovo)라는 회사명으로 그 회사의 본부를 미국에 둔 것도 주목할 만한 친미 조치이다. 미국의 월 마트(Wal-mart)사는 연간 500억 달러 이상의 중국물품을 구입하고 있다. 미국이 중국의 경제에 견제를 하지 않고 중국이 미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단기적으로 양국의 이런 조심스러운 태도는 당연하며 최선의 조치로 본다. 따라서 미국 정부는 중국의 인권 탄압이나 북한 난민의 강제 송환 등을 비난하지만 이는 극히 형식적인 비난일 뿐 심각한 경제적 보복 정책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 양국은 서로 필요불가결의 무역 동반자임을 서로 알고 있는 것이다. 부시 전 대통령은 결국 올림픽의 개막식에 참가했으며 양국 간의 사업 거래량은 올림픽을 기하여 더욱 증가했다. 이와 같이 중단기적으로 미국의 대중국 정책은 중국이 어느 정도 성장할 때까지 경제협력동반자로 유지할 것이다. 중국도 당분간 미국이 지배하는 Pax Americana 국제질서를 인정한 상태에서 자국의 영향력을 점진적으로 증대시키는 기회주의적 외교정책(opportunistic diplomatic policy)을 견지할 것이다. 따라서 중단기적으로 미중관계는 경제적 동반자관계를 계속 유지해 갈 것이다.

Ⅲ. 21세기 한중관계와 전략 및 대비책

중국강대국화는 한국에도 중국과 지속적으로 우호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즉 친미보다 친중을 주장하는 <중국기회론>과 중국의 Pax Sinica는 한국에 위협적인 존재가 될 것이라는 <중국위협론>의 상반된 주장이 학계는 물론 정계에 대두되고 있다.

1. 중국의 강대국화가 한국에 미치는 영향

중국은 2008년 베이징올림픽과 2010년 상하이 만국박람회 개최 이후 획기적 국위고양과 경제 발전으로 미국에 버금가는 세계적 강대국화, 즉 Pax Sinica를 꿈꾸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강대국화에 대한 예측과 전망은 학자들 따라 상반적이다. 먼저 중국이 집단안보와 민주체제 평화론 등으로 점점 더 공산정권체제가 자유민주체제로 변화하면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가들과 협력 지향적으로 경제성장과 모든 분야가 계속 발전이 가능할 것으로 보는 주장과 중국의 경제적 급성장이 혼란을 가져올 것으로 보는 상반된 주장이 있다. 사회적으로 중국 내의 연안지역과 내륙지역의 소득 격차 확대와 부패문제, 정치적으로 공산당정권의 정통성문제, 중앙정부의 정치체제위기, 티베트

위그르 몽골 만주 등 비한족(非漢族)의 이탈로 향후 20~25년 사이 중국체제의 근본적 위협과 심각한 위기가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국력신장의 불가피한 결과로 강대국이 된 중국은 공세적이고 호전적으로 변화하여 Pax Cinica를 꿈꾸며 영토분쟁에 군사력을 자유롭게 사용하고 지정학적 우세를 확보할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한미동맹의 전략적 동맹격상이 중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지역평화를 위한 것임을 중국에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이미 중국은 주한미군이 한반도 및 역내 안정자 역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유연한 대 한반도정책을 구사한 바 있다. 즉, 중국은 주한미군이 일본의 핵무장이나 군사대국화를 견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면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이다. 문제는 중국입장에서 한반도 평화와 그 이후의 한미동맹의 역할과 주한미군의 전력구조가 중국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고 확인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한 것이다. 한국 입장에서도 중국과의 호혜적인 통상이의 위축과 상실이라는 기회비용을 지불하지 않기 위해서는 한미동맹이 중국의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악화되면 한국은 중국과의 관계 역시 나빠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한미동맹관계는 한중관계와 비교했을 때 역사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우선순위를 한미동맹관계에 두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되면 경제적으로 한중관계를 확대해야 할 한국으로서는 여간 어려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한국은 미국이 노골적으로 중국봉쇄를 강행하기 전까지는 미중관계가 악화되지 않도록 외교적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안정적인 미국과 중국의 관계는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에 이바지할 뿐만 아니라 한반도 안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해 5월 27일부터 3박 4일 일정으로 중국 베이징과 칭다오를 국민 방문했다. 이대통령은 베이징에서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과 한중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관계를 기존의 전면적 협력 동반자 관계에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의 격상을 추진하는 등 협력 확대를 위한 다각도의 방안을 논의했다. 첫째, 한미동맹을 근간으로 하되 중국과 외교관계를 전략적 협력동반자로 격상시켰다. 둘째, 중국과 다양한 교류접촉으로 중국 군사정책에 투명성을 촉구하고 공해상에서 함정 및 공군기 조우시 협력을 약속했다. 셋째, 중국을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기여국가로 유도하기 위하여 동북진흥계획 협력적 추진, 고구려사문제 열린 정책주문, 에너지 환경안보 협력 등을 협의했다. 넷째, 북한문제에 대한 중국의 책임강대국 역할을 요구했다. 북한문제에 대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촉구하고 베이징 6자회담을 주도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북한의 개혁 개방을 강권하도록 했다. 다섯째,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 형성 통해 동북아시아 공고한 평화유지를 위해 아세아지역포럼(ARF), 상하이협력기구(SCO), 아세안+3협력기구, 동북아협력대화(NEACD), 아태안보협력이사회(CSCAP) 등 안보대화노력 지속으로 개방주의 채택을 합의했다. 이렇게 양국관계



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고 외교 안보 경제 사회 문화 등 전 분야에서 협력체제가 강화되고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시아, 나아가 전 세계적 이슈에 대한 긴밀한 협조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중 정상회담에 대한 미국의 공식적인 반응은 없었다. 그러나 최근 미국 관료와 학자, 특히 바락 오바마(Barack Obama)도 이명박 정부가 중국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과 합의한 양국 간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에 주목한 바 있다. 미국의 주요 동맹국 중 중국과 이런 관계를 맺은 것은 한국이 처음이기 때문이다. 영국, 일본, 캐나다 등은 중국과의 ‘전략적 파트너 관계’에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여 왔다. 자칫 중국의 군사력 확대와 티베트 탄압을 지지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중 합의를 두고 워싱턴에서는 “이명박 정부가 아닌 노무현 정부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라고 평가하는 이도 있다. 이와 같이 한중관계는 중장기적으로 경제적 동반자관계를 유지하며 실리를 추구할 것이나 장기적으로 미중관계 패권경쟁으로 악화되어 미국이 중국봉쇄정책을 노골화할 경우 한국은 한미동맹에 더욱 충실하여야 할 것이다.

2. 21세기 미-중 관계 변화에 따른 한국의 국제정치적 전략 및 대비책

가. 한미동맹 강화를 위하여 Pax Americana 지지하고 PSI/MD 가입 및 아프간 파병

21세기 한국은 미국이 주도하는 Pax Americana 국제질서에 순응하여 한미동맹을 전략적으로 격상하고 PSI/MD에 가입하고 아프가니스탄 파병을 적극적으로 하여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2008년 4월 17일 코리안 소사이어티 연설에서 한-미동맹은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일대에서 영향력을 발휘해야 한다는 발언을 했다. 이 발언은 사실상 PSI와 MD의 참여방향으로 결정한 듯 보인다는 보도도 있었다. 북한과 중국은 한국의 PSI와 MD 참여에 대해 경계를 하며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나설 것이다. 한국의 PSI와 MD 가입의사에 관해 베이징대학교 조선문화연구소 교수는 한국이 PSI와 MD에 참여할 경우 주변국과의 갈등은 불가피하기 때문에 참여해서는 안된다고 했다. 북한 역시 이에 대해 노골적인 위협을 하고 있다. 한마디로 ‘미사일로 미사일을 맞추는 게임’이라 할 수 있는 MD 구상은 1983년 레이건 미국 대통령이 미국제일주의를 내세우며 전략방위구상(SDI)을 발표하면서 등장하기 시작했다. ‘별들의 전쟁(star wars)’이라고 잘 알려진 이 구상은 소련의 붕괴로 5백억달러 예산만 낭비한 채 중단될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미국은 1991년 스타워즈의 축소판으로 ‘제한적인 공격에 대한 전지구적 방위’(GPALS)를 발표했다. 클린턴 행정부에서는 TMD와 NMD 연구 및 배치 추진을 공식화했다. 부시 행정부는 TMD와 NMD를 통합하여 불량국가들의 대륙간 탄도 미사일로부터 미국 본토를 지키고 또한 미국 동맹국과 해외 주둔된 미군을 보호한다는 명분하에 대다수 나라들이 강력히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MD를 추진했다.

이명박 대통령도 MD 문제가 매우 민감한 사안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 중국 등과 외교적 마찰을 일으킬 수 있는 사안을 함께 검토하여 당장 참여하겠다는 것보다 5~10년을 두고 장기적으로 추진할 과제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다만 김대중과 노무현 정부에서 MD 참여를 거부한 것에는 정치적인 고려가 지나치게 개입돼 있었으므로 이를 백지상태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명시적으로 참여를 선언할 필요도 없이 우회적인 방식으로 미사일 방어에 관한 기술을 습득하고 그 장점을 취하면 된다는 것이다. 한국은 북한이나 주변국의 미사일 위협에 노출돼 있으므로 어떤 식으로든 대비책이 필요하다. 잠정적으로 미국의 MD 네트워크에 협조하면서 외형적으로는 자체적인 대비책이라는 명분을 세우면 주변국과의 마찰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본다. 시민단체 등의 반대도 마찬가지다. 오바마 대통령의 정강정책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을 일본, 호주와 함께 아시아의 주요 동맹국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는 후보시절 “한반도를 넘어서는 도전에 대응할 수 있는 21세기 비전”을 강조하며 새로운 차원의 관계 모색을 역설하기도 했다. 그는 대화와 협력을 통한 다자주의와 미국의 국익 확대를 위한 외교 활성화를 지향했다. 이에 국제공조를 중시하는 외교정책이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새로운 단계로 나아갈 가능성에 무게를 실지만, 동시에 국익이 충돌했을 때 얼마나 유연하게 대처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아프가니스탄 파병이다. 2001년 9·11 테러사태’를 계기로 미국은 아프간에서 탈레반 정권을 몰아내고 친미정권을 세웠다. 하지만 아프간의 상황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는 이라크에서 철군하고 대외 군사작전의 중심을 아프간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한국정부의 역할을 요구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한국이 아프간에 파병 명분은 한국의 국제적인 영향력 향상과 국제사회에서의 역할증대 및 한미동맹 강화이다. 오바마는 우리가 우물쭈물하는 사이 일본에 파병을 요청할 수 있다. 일본이 파병할 경우 한미관계가 소원해질 수 있다. 일본의 군사대국화 기회가 될 수 있다. 아프간 파병의 국익은, 첫째 군사력의 발전이다. 실전경험이 요구되는 군의 간부 능력강화와 전투군수체계가 발전될 것이다. 둘째, 한국의 국가적 위상과 국제적 영향력 강화이다. 셋째, 민간경제 이득이다. 베트남 특수처럼 민간기업의 재건 참여를 통한 국익이다. 넷째, 한미동맹 강화이다. 다소 희생과 어려움이 있겠지만 아프간 파병은 베트남 파병처럼 한국 국익증대의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다.

나. 한-중관계의 정치적 경제적 발전전략 및 대비책

중단기적으로 한국은 중국과 전략적 우호협력관계를 강화하고 발전시켜야 한다. 중국의 중요성은 지전략적인 인접국이며, 한국의 최대 교역국이고, 북한문제 해결의 가장 중요한 레버리지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한국은 중국과 해양 분쟁문제를 안고 있으며, 환경문제 등 초국



가적 문제와 관련한 협력이 요구되고 있다. 중국의 강대국화는 한국이 지역 강대국인 중국과 협력 관계를 강화하여 안보문제를 해결하고 국제적인 이익을 공동으로 추구할 필요성을 증대한다. 한국과 중국은 해외자원에 의존하고 있고, 경제적인 순기능적 협력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으며, 북한문제에 대한 부분적 공통의 이해를 갖고 있는 등 많은 협력분야를 갖고 있다. 특히, 남북이 통일되거나 획기적인 관계개선이 이루어질 경우 양국 간 교류는 경제분야 이외에도 사회·문화적으로 급격히 확대될 것이며, 국가발전에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 특히, 한국은 중국과의 분쟁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억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는 양국관계가 협력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때 보다 잘 이루어질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적대적 관계보다는 상호 협력관계에서 국가 간에는 분쟁을 협상으로 해결할 수 있다. 강대국 중국과 대결하여 분쟁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문제는 협상과 타협에 의해 한국의 의지를 관철하는 것이다. 중국은 강대국으로서 위상과 동맹세력의 규합을 위해서 우호적인 한국과 보다 협력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다. 중국의 군사적 잠재력과 강대국으로의 위상을 고려한다면 한중간 분쟁에서 한국이 국제적 지원을 획득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 한국은 평시에 한국의 권익에 대한 메시지를 정확하게 중국에 전달하고 이를 유지하겠다는 기정사실화 전략과 함께 상호간 협력관계를 활용해야 할 것이다.

한국과 중국의 2007년 교역규모는 1,600억 달러로서 2006년 1,300억 달러에서 급격히 증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2010년경에는 2,000억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의 2007년도 대외교역 규모가 7,000억 달러임을 고려할 때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3%에 달하고 있으며, 이는 중국의 교역 비중이 1992년 4%에서 얼마나 급격히 증가해 왔는가를 잘 말해준다. 이러한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의 심화는 중국이 경제적 지렛대를 이용하여 한국에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수단을 증가할 것이다. 한국은 중국의 이러한 영향력을 제한하기 위해서 무역국가의 다변화 노력과 함께 경제 기술적으로 중국의 한국에 대한 의존도를 심화시킬 수 있는 수단과 능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IV. 결 론

국제정치사적면에서 중국의 강대국화에 의한 미중의 대립관계는 21세기 가장 큰 국제사건이 될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현재까지 가장 큰 국제질서의 변화는 미국이 시도하는 Pax Americana에 도전한 소련의 세계 공산화정책이었으나 70여 년 만에 소련의 붕괴로 끝났다. 이 기간 중에 한민족은 이념적으로 분열된 가운데 냉전국제체제로 조국이 분단되었고 동족상잔의 한국전쟁을 치르며 중국군의 개입으로 아직도 분단의 슬픔을 겪고 있다. 다행히 미국과 동맹관계를

맺은 대한민국은 그동안 엄청난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이루어 이제 선진국의 문턱까지 왔으나 소련과 동맹관계를 맺은 북한은 공산독재체제 속에서 주민이 기아선상에 허덕이고 있다. 따라서 한국은 이러한 중차대한 국제질서의 변화 속에서 중국 강대국화에 대한 입장은 '중국 기회론'과 '중국 위기론' 모두에 대하여 대응책을 단기/중기적 장기적으로 준비하여야 한다. 중국의 강대국화에 대한 단기/중기적인 한국의 대응정책으로는, 첫째 Pax Americana를 지지하고 미국과의 공조체제를 강화하여야 하며 한미동맹을 기축으로 중국과 협력관계를 설정하여야 한다. 둘째, 중국과 전략적 동반자관계로 경제 통상협력을 더욱 발전시킨다. 셋째, 중국을 북한에 대한 경제적 레버리지 활용 및 남북통일의 적극적 후원자로 발전시킨다. 넷째, 중국의 군사력증강에 대비 한국의 군사력을 질적 우위 및 전략적 억제능력을 확보한다. 다섯째, 원유확보와 수출증진을 위해 미국의 해상수송로 보호네트워크에 적극 참여한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2030~'50년 중국의 초강대국화의 Pax Sinica가 현실화되어 위협이 되고 Pax Americana 지향의 미국이 노골적으로 중국봉쇄정책을 강행할 경우 우리도 한미동맹에 의거 행동하지 않으면 안 된다. 다만 중국을 자극하지 않도록 은밀히 진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베이징 올림픽 성화 봉송 과정에서 나타난 반중 시위사태와 티베트의 분리 독립 유혈시 보았듯이 중국이 내부분쟁 56개 민족갈등과 불만이 폭발하여 구소련 같이 분열될 개연성도 없지 않다. 한국의 경우도 그랬다. 국민모두 잘살아보자고 새마을 운동가를 외치며 조국 근대화에 매진할 때는 민주화에 대한 욕구가 그리 심하지 않았다. 소위 개발독재에 대한 저항도 그리 크지 않았다. 그러나 경제성장이 이루어지자 국민들의 욕구는 커지기 시작했다. 국민들의 저항이 독재체제를 민주주의 체제로 바꾸었다. 요즘은 한국국민들의 욕구는 다양하고 너무 심해져서 연이은 촛불시위로 현정질서가 위기를 맞을 지경이다. 개인 GNP이 2만불을 넘는 경제성장에 따른 자신감과 풍요로움에서 오는 일종의 정신적 방향이라고 본다. 중국도 경제의 계속적 성장으로 개인당 GNP가 5000불 가까이 되는 2025~'30년이 되면 인민들의 욕구는 다양하게 더 많이 표출되기 시작할 것이다. 티베트 같은 분열시위사태는 위그르지역 외몽고지역 그리고 만주의 조선족지역에서 야기될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예비하여 동북 3성에 거주하는 조선족의 독립국가인 가칭 '신발해(渤海)민주공화국' 건설을 적극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중국은 그동안 동북공정(東北工程) 등으로 발해 역사를 당나라 때 변방 지방정권으로 왜곡하고 우수한 조선족의 분산이민정책을 펴오고 있지만 조선족들이 역사의 진실을 깨달을 때 티베트족 못지않은 분열운동이 폭발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우리는 우선 남북한이 먼저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의한 통일한국을 이루고 아울러 장기적 우리 한민족 모두의 한과 염원인 옛 광개토태왕 때의 고구려 땅을 포함한 원대한 강대국을 이룰 준비를 하여야 한다. 길림성의 연변지역을 중심으로 요동성과 흑룡강성에 흐트러져 있는 조선족들에



M
Members

L
Letter

게 우리가 한민족이며 역사적으로 한 뿌리임을 인식시키고 그들의 ‘신발해민주공화국’ 건설의지를 불태워주고 경제적으로 실질적인 도움을 주어야 한다. 21세기는 세계화 정보화 시대이다. 과거 소련의 연방국가들이 분리된 채 지금은 국가이익을 위해 유럽연합(EU)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앞 다투어 가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시아지역도 지역적으로 아시아연합(AU)을 이루지 못할 때 19세기 서세동점역사가 재현될 수도 있다. 이러한 중차대한 시기에 하루속히 남북한이 통일되고 이런 연후에 한반도의 통일한국과 동북 3성의 드넓은 만주 땅에 세워질 신발해민주공화국의 통합을 통하여 가칭 『한발(韓渤)민주연합공화국』 또는 『신 고구려민주공화국』의 역사적 구현도 국가 대전략 차원에서 은밀히 준비하여야 할 때라고 확신한다. 한국은 놀라움의 땅 미래는 극적이고, 강력한 감정 및 엄청난 결과로 전개될 것이기 때문이다.



공사 7기, 럭비선수 생활의 소고



7기 사관 김석천

럭비(RUGBY FOOTBALL)의 기원은 19세기 초 영국 중부에 위치한 RUGBY라는 소도시에서 축구 경기 중 William ellis라는 학생 선수가 패전이 싫어 마지막 종료시간을 앞두고 Rule에 없는 공을 안고 상대방의 골문으로 돌진한 것이 처음 유래로 되어 있다.

럭비는 다른 운동과는 달리 위험을 무릅쓰고 몸을 던져야 하는 강인한 투지력, 오직 전진만 있고 후퇴가 없는 격렬한 운동이기 때문에 승부만을 지상 목표로 하는 군인들에겐 최적의 Sports라 하겠다.

그래서 많은 구기운동 중 Rule상, For Ward position(전방 공격수)에 위치한 선수는 필히 Head set(머리 보호대)를 꼭 착용해야만 하는 유일한 운동이기도 하다.

7기생 럭비선수는 총 8명(공영화, 김덕준, 김동수, 김석천, 박용기, 오재영, 정종석, 황병인)이었으며, 이 중에서 고교 때 유경험자는 3명(공영화, 김덕준, 오재영), 나머지 5명은 유사 또는 개인 운동 경험자로서 공사 입교 후 체격 및 Speed test(100m 달리기)에서 합격점을 받은 자로 선발되었다.

이런 자들을 두고 가칭 “Made in 空士”라 불렀지!

매일 거듭되는 고된 운동으로 학과장에서 거의 즐다시피(?)한 오전 수업을 마치면 땀 냄새가 코를 찌르는 유니폼으로 갈아입고 오직 삼사체육의 승리를 위해 연병장에서 럭비 훈육관(대위 김동호, 공사 3기), 체련 교관(대위 이강석, 일명 와리바시/1회용 나무젓가락)과 코치(김형태, 장태국씨, 배재출신)님들의 감독하에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매일 3~4시간씩 머리 박고 몸 던지고 비지땀을 흠뻑 흘려야 하루 일과를 마칠 수 있었다.

이때 메추리 일부 약은 몇몇은 ‘운동해서 별 볼일 없겠구나, 학업에 지장이 많고 괜히 몸 다치게



되면 나만 손해다' 하는 현명(?)한 판단으로 피병을 내어(어깨, 허리통증 등) 며칠간 입원했다가 훈육관 및 체련 교관의 면담으로 도중하차한 숨기지 못할 일화도 있었답니다.

때때로 신상철 교장님(준장, 전 주 월남 대사)이 교본부 앞 연병장 사열대 위에 서서 선수들의 운동 모습을 오랫동안 보고 계시면 퇴근하던 장교 버스가 정문을 나가지 못하고 멈춘 후 다들 차에서 내려 교장님의 눈치를 보며 저희들을 향해 억지스러운 격려의 신호를 보내는 웃지 못할 모습을 연출하곤 했었지.

비가 내린 뒤 돌, 자갈이 앙상한 진해 연병장에서 3m 태클(Tackle)을 연속적으로 하다보면 양쪽 엉덩이에 피멍이 들 수밖에 없고, 이 상태로 잘 정리된 서울 동대문 구장에 들어서면 그 부드러움이 마치 침대 위에서 툽구는 듯한 착각이 들 때도 있었다.

선수 대군이었던 5기 선배가(총 10명) 조종 교육차 휴연히 떠난 후 6기 선배는 전 생도가 소수인데다 럭비선수는 단 한 사람뿐이라 있는 등 없는 등 그나마 3학년 초에 조종 교육 떠나고, 믿었던 8기 후배는 총 5명뿐, 게다가 9기마저 4명이었기에 불운(?)의 7기는 거의 4년간 Full time 땀 수밖에 없었지요.(팀당 총 15명)

'57년, 삼사 체육대회를 앞두고 서울 합숙 중 대방동 성남고등학교 운동장을 가까스로 빌려(당시 서울 대방동 공군본부를 통해) 오후 연습을 하는데 김석원 교장(예, 육군 준장/6·25당시 제1사단장)께서 운동장에 나와 처음 보는 운동이라 관심이 커 다가와 경기 규칙을 물으시기에 “럭비는 후퇴가 없고 오직 전진만 하는 운동”이라 했더니 그 다음날 수업 후 전 학생들을 단체로 관람케 했으며 운동장 사용도 며칠간 쉽게 허락 받았으며 (당시 운동장 사용이 무척 힘들었음) 그 해부터 성남고에도 럭비부가 창설된 웃지 못할 뜻깊은 일화가 있음.



〈이승만 대통령 임석, 동대문 구장〉

'58년, 춘계 대학 럭비 경기에선 서울대학을 맞아 무려 64:0이라는 전무후무한 천문학적 스코어로 승리를 거두고 귀대했으나 코치의 지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월권, 월기) 훈육관 및 와리바시 교관으로부터 몽둥이로 호되게 당한 적도 있었답니다. 삼사 체육경기를 앞두고는 매일 약 3~4시간씩 연습타가 동대문 운동장 주경기에서 전후반 총 80분을 뛰고 나서도 힘이 남아 돌았고

'58년, 춘계 대학 럭비 경기에선 서울대학을 맞아 무려 64:0이라는 전무후무한 천문학적 스코어로 승리를 거두고 귀대했으나 코치의 지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월권, 월기) 훈육관 및 와리바시 교관으로부터 몽둥이로 호되게 당한 적도 있었답니다. 삼사 체육경기를 앞두고는 매일 약 3~4시간씩 연습타가 동대문 운동장 주경기에서 전후반 총 80분을 뛰고 나서도 힘이 남아 돌았고



〈7기생 선수와 지도자들〉

게다가 스탠드에서 터져나오는 우리 생도 응원단의 목이 터져라 파이팅 소리를 들으면 너무나 긴장되고 흥분되어 피가 나고 손발 한 쪽이 부러져도 모를 지경이었습니다.

그리고 공사 력비가 3사 대회에서 3년 연승한 데에는 선수들의 투지와 기량은 물론이지만 이면에는 신 교장님의 각별하신 관심과 격려가 크게 작용했었다는

결과로 단언하고 싶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지금은 작고해(05.9) 계시지 않지만 매년 공군회관(대방동) 예비역 하례식 때마다 참석하셨고, 노구(老驅)(24년생)라 힘없이 서 계시다가도 내가 가까이 다가가 인사드리면 “그래 자네! 7기생 력비선수였었지, 공영화도 제주도에서 오늘 왔어? 너희들 력비 우승모습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 그때가 내 인생의 최고 기쁜 시절이었던가 봐!” 하시면서 내 두 손 꼭 잡고 반가워하시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곧 다가오는 Home coming day를 앞두고 당시 정말 형용할 수 없는 갖은 기합과 배고픔 등 괴로웠던 4년간의 생도 생활이었기에 5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도 좋은 추억은 온데간데없고 나쁜 것들만이 내 눈 앞에 주마등같이 스쳐가기에 잠시 추억의 몇 토막을 글로 옮겨 보았습니다.

끝으로 애석하게도 비행 작전임무 수행 중 불의의 사고로 순직 및 질병으로 고인이 되어 후배들이 축하해 주는 성스러운 졸업 5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치 못하는 김덕준, 박용기, 황병인 전우에게 삼가 명복을 빕니다.

* 참고 : 연도별 삼사 체육대회 개최 현황

- '54~'87년 : 서울 동대문 구장(력비, 축구)
- '88~'98년 : 각 사관학교에서 순회 경기(전 운동 종목)
- '99~'02년 : 다시 복합 ('54~'87년 동일, 서울에서)
- '02~현재 : '88년~'98년으로 돌아감.



M

Members

L

Letter

* 재교 시절 각종 럭비경기 우승 현황(55~59년)

- 1955. 삼군 사관학교 체육대회 우승
- 1956. 전국 대학 춘기 리그전 우승
- 1956. 종합 선수권 대회 우승
- 1957. 대학 춘기 리그전 우승
- 1957. 삼군 사관학교 체육대회 우승
- 1958. 대학 춘기 리그전 우승
- 1958. 삼군 사관학교 체육대회 우승
- 1958. 종합 선수권 대회 우승
- 1958. 자유중국 초청 한국 대표 선발전 우승

(육군 프로 대표팀(M.I.G)과 결승에서 승리하였으나 피교육자라는 신분 때문에 출국치 못했음)



雄飛(KT-1) 개발逸話



20기 사관 이재명

이제 세계 시장에 훈련기를 수출하게 된 우리나라는 훈련기 분야에서는 세계적인 수준의 훈련기 개발 및 생산체계를 보유하고 있으며 장차 훈련기 분야에서는 계속 경쟁력 있는 수출국 지위를 유지할 수 있으면 합니다.

연구 개발 초기에는 우리나라는 항공기의 독자 개발 경험이 미비하고 항공기 개발관련 인프라가 아직 발달되지 않아 미국의 Cessna에서 개발한 T-37 공군 기본훈련기를 대체할 공군 기본훈련기를 우리가 개발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방과학연구소에서는 개발을 해도 초기에는 별로 믿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공군 기본훈련기인 KT/A-1과 수출용 XKT-1을 개발하면서 연구개발의 일선에서 직접 체험한 일화를 소개하겠습니다.

연구개발 당시 한국에서는 항공기 창정비 및 제공호 공동생산에는 경험이 축적되어 있으나 독자 연구개발 경험이 없으므로 항공기 연구개발을 위한 인프라는 구축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군용 기본 훈련기는 안전하면서도 기본훈련 임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하며, 특히 스핀 훈련의 비행 특성 및 회복 특성 우수성 여부에 따라 개발 성공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영국에서 개발한 Firecracker 기본 훈련기는 야생마 같이 다루기 힘든 스핀 특성 때문에 개발은 성공하였지만 양산은 실패한 훈련기입니다. 비행에 경험이 없는 학생 조종사가 스핀을 회복하지 못하고 놀라서 손발을 조종간에서 떼더라도 자동으로 회복되는 훈련기를 개발하는 것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명명식 때의 일화를 기억해 보겠습니다. 1995년 11월 김영삼 대통령으로부터 친필 휘호로 “雄飛”를 하사하시어 命名式을 공군 15혼성비행단 기지에서 수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최초의 명칭은 여명과 웅비로 상신하였습지만, 雄飛로 결정되었습니다. 명명식 하루 전 날 시범비행 예행연습의 일



환으로 Cuban-8 기동을 하던 중 시험비행 조종사가 사출 좌석에서 무의식적으로 자동 사출하여 항공기가 배면으로 추락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조종사들이 사출되어 개산이 되자마자 활주로에 조종사들의 발이 닫는 것을 보았을 때는 아찔한 위험한 순간이었지만 조종사들의 신발이 활주로에 안전하게 닫는 것을 보았을 때는 일단 안심을 하였습니다. 연구개발 도중 비행사고를 없애기 위하여 모든 것을 바쳐 노력하였건만 막상 사고가 나고 보니 앞이 캄캄하고 막막할 뿐이었습니다. 1호기가 배면으로 추락한 지점은 미 육군 헬기들이 주기되어 있는 주기장 바로 옆에 있는 활주로 잔디밭이었습니다. 아! 이제 모든 연구개발 사업은 끝났구나 하는 생각이 머리를 스쳐 갔습니다. 그토록 비행사고 방지와 시험비행 조종사들의 생명을 아끼고자 노력하였지만 올 것이 오고야 말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앞이 캄캄하고 정신이 아찔하였습니다. 바로 조종사들의 건강을 확인하기 위하여 기지병원으로 갔습니다. 병원에 갔을 때 조종사들의 외상이 없고 건강상태가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일단 안도하고 사고조사를 시작하였습니다. 공군본부 감찰감실에 전화를 하여 국방과학연구소에는 비행 사고조사 경험이 없기 때문에 도와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당시 참모차장님께서 공군소속 항공기가 아니므로 국과연 자체에서 조사를 주관하면 공군본부 감찰관실의 사고조사 전문가를 파견해 주시어 사고조사를 도와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사고조사를 위하여 밤샘을 하며 현장 보존한 부품을 찾아내기 위하여 활주로 잔디밭을 샅샅이 뒤지며 파편을 완전히 수거하고 조사한 결과 배면에서 회복 기동 시 사출좌석 핸들에 이상이 있어 조종사의 조종간 조작 시 다리 힘에 의하여 사출되었다는 것을 찾아냈습니다. 하마터면 연구개발 사업이 중단될 수도 있는 큰 사고이었지만 연구개발을 계속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들의 즉각적인 사고 원인 파악이 가능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초기 탐색 개발 기간 중에는 실험시제 항공기 2대를 개발하였으나 비행시험 할 수 있는 아무런 장소와 시설이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공군의 시험비행장을 물색하여 그 중 사천기지에 격납고를 빌려서 비행시험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꼭, 결혼 초 남의 집 단칸방 살림살이나 비슷하였습니다. 연구원들이나 회사 연구원들이 앉을 자리가 없어서 비행시험용의 작은 임시 건물을 지어서 비행시험 브리핑도 하고 연구원들이 비행시험에 대기하기도 하였습니다. 당시에는 사천기지까지는 대전에서 4시간 30분 이상이 소요되는 꼬불꼬불한 길로 출장을 다녀야 했습니다. 연구원들은 아침 일찍 비행시험 준비를 위한 출장 중 아스팔트길에 결빙된 것을 인지하지 못한 채 운전하다 교통사고가 나는 일이 많았으며 골절이 되는 사고도 자주 발생하였습니다.

인도네시아 수출에 얽힌 일화를 소개하겠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무슬림 국가로서 테러지원국 명단에 들어 있었으며 군사 물자 수출이 금지된 나라였습니다. 그러므로 KT-1B는 수출 계약은 되었지만 일부 부품이 미국 및 선진국으로부터 수출 승인 EL(Export License)을 받아야 수출이 가능

회원기고

하였으므로 사실상 수출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항공기 부품의 국산화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다시 한 번 느끼고 부품국산화에 박차를 가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기계장비인 에어컨, 브레이크 및 항공전자 장비 등에 들어가는 일부 주요 부품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당시 국산화가 되지 않은 품목이어서 수입하지 않고서는 사실상 수출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당시 미국으로부터 인도네시아 수출 E.L.을 위하여 주미 한국 대사관 무관부와 주 인도네시아 한국 대사관 무관을 통하여 꾸준히 교섭한 결과 마땅한 해결책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일부에서는 수출이 불가능한데도 왜 수출계약을 했느냐며 나무라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망연자실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 이때 다시 한 번 증명되었습니다. 당시 미국에서는 9·11 테러 발생으로 무슬림 인구가 가장 많은 약 2.5억 인구인 인도네시아의 위상이 매우 높을 때 부시 대통령과 인도네시아 여성 대통령 메가와티 스카르노와의 정상회담이 계획되어 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천우일회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외교적인 노력을 기울여 KT-1 수출문제가 양 정상 간의 의제로 채택될 수 있도록 주미 한국 대사관과 외무부 그리고 주 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을 통하여 끊임없이 노력한 결과 드디어 양정상의 회의에서 KT-1 훈련기는 살상무기가 아니므로 수출을 허용한다는 정치적 해결을 통하여 수출이 가능하였습니다. 이후부터는 점진적으로 많은 부품이 국산화되어 국산화율을 높이고 부품을 수출할 수 있는 항공 산업국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일부 부품을 국산화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습니다.

또한 인도네시아 공군에서 KT-1의 감항인증을 요구한다하여 인도네시아 공군의 감항인증 사무실에서 시험비행 조종사가 와서 으름장을 놓는 일이 있었습니다. 감항인증을 미국 FAA 수준으로



〈인도네시아 수출용 KT-1B〉

하지 않으면 비행기를 인수하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당시 인도네시아 공군 감항인증 당국에서는 한국 공군의 감항인증을 원하였습니다. 공군에는 항공기의 감항인증 관련 전담부서나 사무실이 준비되지 않은 실정이었습니다.

이러한 때를 미리 대비하여 유럽 JAA(Joint Aviation Agency)의 이태리 감항인증 당국 사람들을 초청하여 FAA 인증에 대비한 모든 FAR-23 서류(Statement of Compliance)를 미리 갖추어 놓았었습니다. 이후 인도네시아의 감항인증 국장 및 시험비행조종사들의 시험요구를 비행 시험완료와 국방부 합참의 전투사용가 판정 구비서류를 제시하여 그들의 감항인증 요구를 무난히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해외 수출 요구는 계속 증가하여 남미, 중미 및 동남아시아 등의 세계 시장에서 계속 KT-1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국가에서의 공통점은 기총 및 무장을 장착할 수 있기를 희망하는 국가가 많았습니다. 멕시코, 과테말라 등의 정정이 불안하고 마약사범이 많은 나라는 특히 무장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훈련기로 개발한 KT-1은 기총을 장착할 수 있는 장비 개발과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들 국가의 수출요구에 호응하기 위하여 수출형 XKT-1을 한국 항공우주산업(주) 자체에서 개발하기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수출형 XKT-1은 Analog 계기는 모두 Digital 계기로 조종석을 디지털화로 전환시켰으며, HUD, OBOGS(Onboard Oxygen Generating System), ABS(Anti-Skid-Braking System), 조종실 여압 등의 세부계통의 장비를 최신으로 개량하였습니다. 또한 로켓, 기총 장착 및 필요시 Bomb을 자동으로 폭격할 수 있는 CCIP(Continuously Computed Impact Point), CCRP(Continuously Computed Release Point) 등의 최신 항공전자 무장계통을 장착하였습니다. 개발 초기에는 T-28이나 T-37과 같은 구식 훈련기만 생각하신 분들은 이러한 최신시스템을 KT-1급의 훈련기에 장착할 필요가 있는가 하며 비판적으로 성능개량이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항공전자 및 항공장비 시스템의 빠른 성장 및 발전 속도를 이해하지 못하여 수출형 XKT-1을 개발하지 않았다면 오늘날 터키 수출은 꿈도 꾸지 못 할 뻔 하였다.

그동안 터키 국방부와 공군에서는 터키 공군용 기본 훈련기로 KT-1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터키 국방성 및 공군 고위급 장성들과 국방성 획득관계관들이 방문하여 KT-1을 시승하고 브라질 Embrare사의 Super-Tucano보다 성능이 우수하고 현대화된 장비로 성능 개량된 것을 확인하고 항공기의 수입을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훈련기 시장을 석권하고 있는 기존 회사인 브라질의 Embrare사와 스위스 Pilatus사 등에서는 사운을 건 경쟁으로 온갖 좋은 조건을 모두 제시하였습니다.



〈터키 수출용 KT-1T〉



〈공군 기본훈련기 KT-1〉

특히 브라질 Embrare사에서는 터키 공군이 Tucano기를 기본 훈련기로 구매하면 설계자료뿐 아니라 터키의 항공산업 발전을 위한 획기적인 제안을 하였습니다. 우리의 수출기로 자체 개발한 XKT-1의 시험 비행 결과 XKT-1기가 탁월한 기동성과 조종성 및 Digital화된 All Glass Cockpit 등이 부각되어 최종으로 터키 공군 훈련기로 선정될 수 있었습니다.

회원기고

이러한 모든 것이 가능하였던 것은 전 공군의 염원인 우리의 독자 훈련기를 갖고자 하는 선·후 배님들과 동기생들의 무한한 지원과 사랑으로 가능하였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이루어 놓은 결실이 계속 성공하기 위해서는 세계의 기본훈련기와 고등훈련기 시장은 확실히 선도할 수 있도록 끊임없는 기술 개발을 해야 할 것입니다. 전 세계 훈련기 기술과 시장은 한국이 주도하기를 기원합니다.





M

Members

L

Letter

10기 사관 ‘백두산 여행’



10기 사관 이은봉

공사 10기 사관! 1958년도 2월에 입교했으니 50년, 무려 반세기란 세월이 흘렀다. 50년 전에 우리 10절회(십절회는 10기 사관 친목회 명칭이다)원들이 처음 만나 연을 맺어 오늘에 이르렀으니 거기에 담긴 희로애락이야 얼마나 많고 또 그 사연들이 깊고 깊었겠나? 지난해(2007) 말 송년회에서 입교 50주년 기념 해외여행을 하자고 회원 모두가 동의했고, 회장단에서는 이의 실행을 위해 김한용 회원을 여행단장으로 선임하고 치밀한 준비를 해온 결과 이번 여행을 결행하게 됐다.

지난 '08.6.12. 인천공항 출국장에는 쌍쌍 부부 12명, 홀로 회원 2명, 총 14명이 모였다. 송중호 회장, 김시호 총무 부부를 비롯해서 권영락, 김한용, 이은봉, 장풍길 부부와 김순호, 임승옥 회원이 함께 모였다. 아침 07:30까지 인천공항에 집결하게 되었으나 20~30분 전에 모두가 공항에 도착했다. 일찍 일어나 시간 맞추느라 잠도 설쳤으려면 모두가 한결같이 밝고 명랑해 보였다. 부인네들은 손자, 손녀를 두고 있는 할머니들이건만 마치 초등학교 소녀들처럼 만남의 수다가 요란하고 웃음꽃이 만발했다. 우리 일행은 출국 수속을 끝내고, 중국 연길 행 아시아나 항공기에 탑승했다.

우리의 이번 여행은 보통 일상인들이 하고 있는 관광 여행과는 사뭇 다르다. 우리 10기 사관이란 명칭을 내걸고 처음 떠나는 해외여행이요, 그 여행 목적지가 백두산(비록 중국 쪽이긴 하지만)과 고구려, 발해 등 우리 조상들의 유적지, 그리고 일제 통치하에서 독립운동을 펼쳤던 곳, 바로 옛 만주 땅을 밟아 봄으로써 우리 조국과 민족의 얼을 현장에서 체험하고 우리의 인식을 새롭게 정립해 보자는데 여행의 깊은 뜻이 있었다.

우리 일행은 그날 정오 무렵 연길 국제공항에 도착했다. 명칭만 국제공항이지 초라하기 짝이 없었고, 중국 공군이 이 비행장을 같이 쓰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연길은 연변 조선족 자치주의 중심 도시로 마치 한국 내의 어느 도시에 온 것처럼 친근감을 느끼게 한다. 백두



<장백 폭포>

산이 가까워서 우리나라의 많은 관광객들이 끊임없이 찾는 곳이기도 하다. 우리 일행은 '10철회 입교 50주년 기념 백두산 등정'이란 현수막을 앞에 내 걸고 본격적인 관광길에 올랐다.

제일의 여행 목표가 백두산 등정이었기에 1,800m의 고지에 위치한 장백산 국제 호텔로 향했다. 가는 길에 북한과 중국의 국경지대인 도문에 들렀다. 거기에는 두만강이 두 나라의 경계선을 이루고 있었다. 두만강의 강폭이라야

40~50m, 강 건너에는 북한군 초소가 있었고, 좀 멀리에는 북한 동포들의 건물도 보인다. 우리 한국인 관광객들이 배를 타고 북한군 초소 근처에 빵이나 과자, 담배 등을 던져 놓으면 사람들이 보지 않은 사이에 감쪽같이 수거해 간다는 안내인의 설명이다. 그래도 체면은 차리는 모양이다. 얼마나 배고프고 굶주리면 그러랴!

두만강 변을 따라 7~8km를 달리며 북한의 산야를 눈여겨 바라보았다. 산은 온통 민둥산이었고, 거기에는 밭을 많이 조성해 놓았고 그 밭에는 옥수수 같은 작물을 심어도 거의 수확이 안 된다는 이야기다. 비료가 없어 쓸 수 없으니 토지는 박토가 되어 피폐한 땅이 되어 버렸기 때문이다. 우리는 백두산으로 가는 도중에 龍井에 들렀다. 이 龍井이란 도시는 우리 독립군이 활약했던 지역으로 흥범도 장군의 독립군이 일본군을 격파한 봉오동 전투 전적지가 있는 곳, 또 그곳 나지막한 야산에 '一松亭' 과 그 밑을 흐르는 '海蘭江' 도 굽어보았다. 우리들의 선인 독립운동가들이 이곳을 넘나들며 항일 의지를 불태웠던 곳이라서 더 애착을 느끼게 되고 내 가슴이 뭉클해짐을 금할 수 없었다.

용정시에는 우리 민족혼이 숨쉬고 있는 용정 중학교가 있다. 지금은 우리 조선족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었고, 일제치하에서는 독립운동의 중심지였으며 교내에는 독립 시인 尹東柱 시인의 시비가 있었다. 항일운동 기념전시관에는 꽤 많은 자료들이 전시되어 그 당시 선배들의 눈부신 활약을 보면서 늦게나마 마음으로부터 경의를 표했다. 일행 모두가 같은 생각이었는지 우리 10철 총무는 즉석에서 금일봉을 준비하여 '공사 10기 사관 일행 유적지 탐방' 이라 방명록에 기록하고 전시관 담당 직원에게 전달하니 이 또한 아름다운 정경이었고 내 마음도 흐뭇해지더라.



다음은 이번 여행의 백미(白眉)라 할 수 있는 백두산 등정이다.

백두산을 오르기 위해선 산 바로 아래의 숙소에서 하루 밤을 자야 한다. 그래서 1,800m의 고지에 있는 장백산 국제 호텔에서 1박을 청해야 했다. 다음날 아침 일찍 등산길에 올랐다. 오르는 등산로에는 노천 온천이 흐르고 그 온천물은 계란을 삶을 정도로 꽤나 뜨거운 온천수였다. 일행은 삶은 계란을 사서 먹으며 가파른 계단 길을 오르고 또 올랐다.

장백 폭포를 옆으로 끼고 오르는 계단 길은 거의 70~80도 경사가 되는 듯, 일행 모두가 그렇게 힘들어 했다. 그러나 우리들이 누구더냐? 10철의 철인들 아닌가? 천지 물에 손을 담가 보는 게 이번 여행의 최고 소원이라며 무거운 발자국을 옮긴 결과 한사람의 낙오자도 없이 모두가 '천지' 등정에 성공했다. 모두가 환호하며 기뻐한 것은 물론 천지의 깨끗한 물에 손을 담그니 지금까지 말로만 들던 백두산, 그 산을 온통 정복했다는 성취감을 만끽할 수 있었다. 천지는 물이 저수된 곳이기 때문에 산의 最 頂上은 아니다. 일행은 다시 지프(jeep)를 타고 천지에서 약 400m 더 높은 天門峰에 오르니 그곳에서는 천지의 전체 전경을 내려다 볼 수 있었다.

백두산 정상, 이 정상에 서니 형언할 수 없는 환희를 느끼게 되고, 동시에 민족, 국가, 그리고 분단의 아픔 등 온갖 상념을 가져 본다. 그래서 이조 세조 때, 南怡 장군이 작시한 시조 한수를 속으로 중얼거리 본다.

白頭山石 磨刀盡 (백두산 돌을 칼로 다 갈아 없애고)
豆滿江水 飲馬無 (두만강 물을 말에게 먹어 없애어)
男兒二十 未平國 (사나이 스물에 나라를 평정 못하면)
後世誰稱 大丈夫 (누가 후세에 대장부라 일컬으랴)

그리고 나서 발길을 옮겼다. 하산하면서 하늘과 천지를 다시 쳐다보고 내려다 본다. 날씨도 우리 일행의 입교 50주년을 알아보고 기념해 주는 듯 그렇게 쾌청할 수가 없다. 1년 내내 이처럼 쾌청한 날씨는 약 20여 일에 불과하단다. 우리는 그 20일 중 하루를 택한 복 받은 관광객이 된 것이다.

백두산 정상을 정복하고 내려와 노천 온천장에서 온천욕을 하고 나니 그 기분! 온 세상천지가 내 것 같은 기분이었지. 장백산 등정을 마치고 다시 연길 시내로 이동했다. 연변 자치주에 거주하는 우리 조선족의 생활 실상을 보기 위해서였다. 연길 시내의 야경을 구경하고 백산 호텔에 투숙, 백두산등정으로 누적된 피로를 풀었다.

다음 날(6.14) 조선족들의 생활상을 들여다보기 위해 연길 시내의 거리를 따라 관광했으며, 조선



〈백두산 천지〉

족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건물 등도 돌아 봤다. 특히 이곳 연길 시에 있는 연변 과학기술대학에서는 姜胃勳 회원이 교수로 봉직하고 있어 우리 10월회 여행단을 공식 초청해 줘서 그곳을 방문하게 되었다. 이 대학 학생들은 대부분 조선족의 자녀들로 구성되어 있었고 교수진은 보수를 받지 않은 자원봉사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특이한 체계로 학교가 운영되고 있었다. 우리 姜 교수도 그들 교수 중의 한 사람으로서 완전히 무보수 봉사

하는 교수생활을 하고 있었다. 멀리 외국에 나와 조선족 후진 양성에 심혈을 경주하고 있는 姜 회원의 희생과 봉사 정신에 찬사와 박수를 보내고 싶었다.

조선족 후손 젊은이들의 과학 기술 교육도장을 돌아 본 다음 우리 일행은 또 다른 여행길에 올랐다. 2일간에 걸쳐 연길 시내를 포함해서 중국, 북한의 접경지역 관광을 했고 백두산 등정까지 마쳤으니 우리는 여행 일정에 따라 중·러 국경지역도 관광하지 않을 수 없었다.

먼저 흑룡강 성 牡丹江市를 찾았다. 연길에서 그곳까지는 5~6시간이 걸리니 얼마나 먼 곳인가. 고속도로도 아니고 편도 1차선 길 연도에는 중국 변방의 농촌을 구경하게 된다. 어느 농촌 마을 앞에서 휴식을 취하게 된 바, 그곳 화장실을 가보니 큰일을 보는 화장실이 칸막이도 안 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8·15 해방 전·후 때에도 볼 수 없었던 기이한 현상이다. “문화의 차이이겠지” 생각하면서도 오늘날 중국인의 생활 단면을 보는 것 같아 중국은 아직도 요원하구나 하는 생각을 가져 본다.

다음 날(6. 15) 목단강시를 출발, 중·러 국경지대인 “綏芬河”로 향했다. 시골길이고 또 멀기도 멀었다. 거의 한나절이나 걸린 차타기 여행, 중·러 국경지대 그곳은 출입국 관리 사무소 건물이 크게 서 있었고 나지막한 울타리 하나로 러시아와 중국이 경계하고 있었다. 우리의 남·북 분단 휴전선과는 달리 양쪽에 두 나라 국기만이 아주 평화롭게 펄럭이고 있었다. “綏芬河” 시내에는 러시아인이 중국인과 비례해서 약 1/3 정도는 되는 듯했다. 중국인은 동양인, 러시아인은 서양인, 지역은 같은 지역이면서도 인종은 확연히 달랐다. 이곳은 중·러 〈종합 무역구〉로 지정된 곳이어서 조금은 국제도시의 면모를 갖추고 있는 셈이다.

우리 일행은 ‘수분하’의 holiday inn hotel에서 1박하고 옛 발해 유적지 탐방에 나섰다. 발해



궁터는 黑龍江省 寧安市의 광활한 평원에 자리하고 있었다. 옛 우리 조상들이 이처럼 광활한 지역에 터를 잡아 나라를 세운 걸 보니 조상들의 지혜가 대단했었다는 생각을 갖게 된다. 그러나 발해 옛 터를 둘러보는 순간 실망감이 엄습해 온다. 발해가 고구려의 후손, 아니 우리 배달민족이 세웠다는 말은 그 어느 한쪽 구석에서도 찾아 볼 수가 없었고 오직 당나라 시기에 북방의 말갈족이 건립한 지방 민족 정권으로 건국된 국가였음을 명시하고 있고 이는 곧 중국 소수족의 정권이었던 거다. 한술 더 떠서 발해국의 영토가 남으로는 함흥에까지 이르렀다는 기록을 하고 있다. 이거 기가 막히는 일이 아닌가? 내가 한국인이기에 유적지의 관광은 역사와 문화가 숨쉬는 관광지로서 가치가 큰 건데 우리 일행이 둘러 본 길림성, 흑룡강성의 과거 우리 역사속의 유적지는 살아 숨쉬고 있지 않았다. 전부가 중국 역사로 둔갑, 왜곡되고 또는 말살되어 버렸기에 죽어버린 유적지였고, 배달족의 후손인 나에게 커다란 실망과 허탈감만을 안겨주었다. 중국은 우리의 옛 역사와 문화를 송두리 채, 깡그리 없애버리려는 장기적인 책략을 가지고 있음을 실감한다. 중국의 소위 ‘동북 공정’의 정책을 현장에서 눈 여겨 보는 순간이다. 중국의 또 하나의 ‘동북 공정’은 조선족 관리 정책에서 들어 난다.

흑룡강성 제2도시인 목단강시에는 조선족이 약 12만 명이 살고 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조선족 학교가 있어서 어린 2세대들이 한국 교육을 받았는데 학생 인원의 감소와 경제적 운영난으로 문을 닫았다고 한다. 학생들이 중국 학교로 옮기다 보니 완전한 중국인이 돼 버린 것이다. 연변에도 흑룡강성에서도 조선족은 감소되고 있는 형편이다. 왜? 젊은 조선족은 돈 벌이를 위해 중국 전역으로 흩

어져 살며 중국인과 결혼하게 돼 완전한 중국인이 되어버리는 경향이 많아진다 는 이야기다.

그뿐만인가, 우리나라 ‘東海’는 중국이 발행한 지도상에 모두가 ‘日本海’로 표기되어 있다. 이것 문제 아닌가? 중국 정부의 정책이 한반도 무시 정책을 펴고 있는 가운데 중국에 거주하는 우리 동포들의 현 주소가 이러하고, 우리 조상들이 세웠던 고구려, 발해의 옛 역사가 이렇게 갈기갈기 찢기고 왜곡되어 버렸어도 우리 한국 정부나 우리의 역사를



〈발해 유적지〉

회원기고

연구하는 전문 역사학자 그 어느 누구도 이 같은 사실을 제기하여 시정하려는 노력의 시도를 보지 못해 매우 안타깝다.

나는 우리의 애국가 한두 구절을 떠올리며 다시 한 번 생각해 본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중국에 와 보니 그 동해는 일본해로 불리어지고 있고 백두산은 장백산으로 부르고 있다. 것처럼 아끼고 우려했던 백두산, 그 산은 장백산이고(백두산이란 말은 북한 측 쪽까지도 아예 안 쓴단다.) 동해는 일본해로 불리고 있더라 말이나. 우리 일행 모두는 국가 안보의 일익을 담당했던 사관학교 출신 예비역 장교들이다. 이번 여행도 비록 안보 일선에선 물러났지만 중국을 통해 우리의 과거 역사현장과 북한과의 접경지역을 답사함으로써 내 나라 한국의 정체와 실체를 확인하는데 여행의 주안점을 두었었다. 우리는 백두산을 등정했지만 사실은 중국의 장백산을 등정했고, 우리 역사를 온통 왜곡해버린 중국 역사 현장을 다녀 온 기분이다. 우리는 일정에 따라 인천 공항으로 돌아오긴 했지만 돌아오면서도 씩씩한 마음, 그리고 생각이 여행의 즐거움을 반감시키는 것 같아 조금은 안타까웠다.

이번 ‘10월회 입교 50주년 기념 여행’이 그냥 구경하고 돌아 온 여행이 아니고 그래도 중국이 우리 한반도에 대해 잘못하고 있구나 하는 문제들을 현장에서 보고 인식하고 왔다는 것, 이것이 보람이요, 수확이라면 수확이라 본다. 며칠간의 짧은 여행, ‘走馬看山’식의 표피만을 보고서 깊은 이야기를 할 수야 있겠느냐마는 한국에서 듣던 이야기와 이번 현장 답사로의 느낌, 그것은 거의 일치된 사실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 여행에 같이 동참했던 동기생, 친구 여러분! 모두들 수고했고, 건강한 몸으로 돌아 왔으니 무척이나 기뻐구만. 5박 6일 동안 같이 웃고, 함께 즐거워했던 친구들의 앞날에 신의 가호와 함께 늘 건강한 생활이 영위되길 기원한다.





M

Members

L

Letter

애뜻한 후회(後悔)



8기 사관 김성환

나는 퇴역한 이래, 매년 6월 현충일이면 국립묘지를 찾는다. 동기생들의 묘역을 찾아 참배하는 것은 물론이고 꼭 빠지지 않고 찾는 후배 묘역이 있다.

공군대위 오창선
1968년 4월 23일
수원에서 순직

올해는 그가 순직한 지 40년이 되는 해다. 그만 생각하면 너무나 기억이 생생하고 가슴이 아프다.

1959년 여름, 사관학교 생도시절의 마지막 휴가를 보람 있게 보내기 위해 나와 이용식, 우흥기, 김기열 생도 4명은 현재 인천국제공항으로 변해버린 서해 용유도 해수욕장으로 갔다.

그 때는 인천항에서 자그마한 통통배로 4시간을 가야 했지만 우리는 지루한 줄도 몰랐고, 일주일 예정이었지만 사흘을 더 넘겨 열흘을 머물 정도로 재미있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까까머리 고등학교 학생이 우리 천막으로 찾아왔다.

“형님들! 소주 한 잔 하실까요?”

하며 한 시간도 더 되는 먼 거리에 있는 민가에서 구해온 소주 한 병을 내놓았다. 그러나 우리는 신분이 사관생도임을 밝히고 생도 규율상 술을 마실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소고기 통조림을 넣어 끓인 감자찌개와 함께 식사를 권하였다. 저녁을 먹으며 생도 생활의 이모저모를 소개하였더니 그 까까머리 학생은 자신을 인천 제물포 고등학교 1학년이라고 소개하였다. 그리고 자신도 3년 후에는 형님들처럼 멋진 공군사관학교 생도가 되어 꼭 만나겠노라고 주소를 적어달라고 하였다. 그래서

회원기고

‘공군사관학교 4학년 김성환 생도’라고 메모해 주곤 그 후 나는 그를 까맣게 잊어 버렸다.

몇 년의 세월이 지났다. 대구 1전투비행단에서 고등비행 교관(T-33)생활을 하고 있을 때였다. 한 장의 편지가 날아왔다. 발신자는 공군사관학교 1학년 오창선 생도였다.

편지를 읽어보니 용유도 해수욕장의 바로 그 까까머리 고등학생이었다. 그는 공군사관학교 13기 생도가 되어 있었고, 이번 여름휴가 때 꼭 찾아뵙겠노라는 내용이 쓰여 있었다. 편지쓰기를 싫어하는 나였지만 너무나 반갑고 기특하여 꼭 오라고 답장을 써 보냈다.

그리고 몇 달이 지난 어느 여름날 비행을 끝내고 무더위에 지쳐 쉬고 있는데 면회실에서 한 사관생도가 찾아왔다는 연락이 왔다. 옛날 그 까까머리 어린 학생이 의젓한 사관생도가 되어 찾아온 것이었다. 당시에는 대구 비행장에 관사가 없어 내가 묵고 있던 시내의 하숙집에서 며칠을 재우고, 여의도와 대구를 오가는 정기 수송기 편으로 그를 되돌려 보낼 생각을 하였다.

당시는 먹을 것도 귀한 때라 귀교시키기 전날 영양보충을 시켜 주려고 부대 내 미군 장교식당으로 데리고 갔다. 당시엔 먹기가 쉽지 않았던 프라이드 치킨을 시켜주고, 내가 먹을 맥주도 두 통 주문하였다.

한참 맛있게 먹고 있는데 때마침 7항보단장 이OO 대령과 참모 몇 사람이 우리 식탁 앞을 지나 갔다. 그 중 소령 한 분이 우리 식탁으로 다가와 생도 이름을 묻기에 아무 생각 없이 그의 이름을 가르쳐 주었다.

며칠 후 비행교관 생활로 바뀐 나에게 공군사관학교에서 출두명령 통지서가 날아왔다.

내용인즉, O월 O일 O시에 대구기지 미군장교식당에서 생도에게 술을 마시게 했다는 내용인데, 발신자는 생도 전대장 백OO 대령이었다. 너무 억울하고 답답하여 궁리 끝에 그의 동기생인 대구비행단 부단장 이OO 대령을 찾아뵙고 자초지종을 이야기하였다. 술은 내가 마셨지 생도에게는 마시게 하지 않았노라고 말씀드렸다.

설명을 들으신 부단장님은 화를 참지 못하고 전화기를 들더니(당시에는 Dail 전화가 없었다.)

“교환!, 교환!, 공군사관학교 생도전대장실 대라!”

한참 후 전화가 연결되었다.

“OO이가? 내, OO이다.”



“X 주고 뽀 맞는 격이지, 후배가 선배 찾아오면 술도 한 잔 할 수 있는 것이지 그걸 가지고 비행 교육에 바쁜 교관을 사관학교까지 오라고 부르나?”

“맹세코 술도 마시지 않았다는데... 하루에 2번씩 비행하는 바쁜 사람을 오라 가라 부르면 안 되지?”

“전대장님께서 잘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마지막엔 애교스럽게 너스레를 떨며 안부대화로 마무리를 하고 전화를 끊었다. 부단장님께서 염려 말고 가라고 하기에 감사 인사를 하고 부단장실을 나왔다.

이제 모든 일이 잘 해결되었으리라고 생각하고 비행교관 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오 생도에게서 또 편지가 왔다. 생도 명예제도에 의한 처벌 1급 비행을 당하여 6개월 간 매일 한 시간 씩 완전무장을 하고 연병장을 직각보행하는데 너무 힘들어 자퇴를 할까 한다는 내용이었다.

나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아 열 번도 더 편지를 보내어 남자가 한 번 결심한 진로를 그렇게 쉽게 바꾸는 것이 아니라고 충고도 하고 때로는 위로와 격려를 하여 결국은 견디어내게 하였다.

‘그 때 그가 결심한 대로 자퇴하게 하였더라면.....’

그런 오해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는 4년의 생도생활을 무사히 끝내고 임관하였다. 초등, 중등 비행과정을 마치고 내가 있는 고등 비행훈련에 입과하였는데 참으로 대견스럽고 반가웠다. 관심을 가지고 그의 비행성적을 살펴보았더니 성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다. 내가 가르쳐볼까 생각도 하였지만 내가 가르치면 쉽게 생각하고 딴 생각을 할 것 같아 대대의 방침대로 석차 순에 의해 학생배정을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그랬더니 김OO 대위(순직)가 그의 담당 교관이 되었다.

본인이 꼭 전투조종사가 되기를 위하여 관심을 가지고 비행훈련을 지켜보았는데 잘하는 편이 아니었다. 그래서 김 대위에게 여러 번 신경을 써달라고 부탁하였는데, 아니나 다를까 김 대위는 오 소위가 단독비행을 하기에는 무리라고 하였다. 그래서 내가 몇 번 더 태운 후 단독비행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김 대위에게 사정을 하였다. 다행히 첫 단독비행에서는 의외로 착륙을 잘하여 또 한고비를 넘기게 되었다.

회원기고

이후에도 여러 번 그와 같이 비행을 해보니 성격이 차분하지 못하고 서두르는 편이며, 침착하지 못하면서 자존심은 강하였다. 그는 8남매 중 장남이었다. 교관은 비행기술을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생의 성격을 파악해서 비행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단점을 고쳐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나는 그에게 여러 번 정신이 번쩍 들도록 혼도 내주고 매도 때렸다. 오 소위는 나와 김 대위를 믿고 참으로 힘든 고비들을 잘 넘겨주었다. 그리고 드디어 비행과정을 수료하고 전투조종사가 되어 가슴에 Wing을 달고 빨간 머플러를 매게 되었다. 내가 가르친 20여 명의 학생들이 수료할 때보다 더 기쁘고 보람찼다.

오 소위는 17대대에서 F-86F 전술과정을 마치고 수원 109대대(F86-D)로 배속되었고, 나도 5년간의 교관생활을 끝내고 신형기인 F-5A 도입과 동시에 수원 102대대로 전속되었다.

어느 날 하루 일과를 끝내고 퇴근하려고 대대를 나서는데 F-86D 2대가 야간 전술비행을 하기 위하여 편대 이륙 직후 요기가 활주로 방향으로 추락하는 것이 아닌가? 대대로 돌아와 추락 조종사가 누군지 확인해보니 장기는 이OO 소령(5기 사관) 이었고 요기는 바로 오창선 중위였다.

눈앞이 캄캄해졌다. 그 많은 동료와 동기생이 순직할 때도 울지 않았던 나는 흘러내리는 눈물을 멈출 수 없었다.

‘그 때 담당교관이 도태시키자고 할 때 내버려 둘 걸.....’

또 한 번 후회가 막급하였다.

하지만 40년 전 그와 특별한 인연을 가진 늙은 선배로서 또다시 그의 묘비 앞에 서니 그에 대한 후회는 애뜻함으로 변하여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그리고 그 애뜻함은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죽음도 불사하며 조국 창공을 함께 누비던 모든 조종사들 간의 뜨거운 전우애의 또 다른 모습이란 것을 깨닫게 된다.



M

Members

L

Letter

『인생은 충분히 길다』

“A Thousand Winds”



1기 사관 손주현

인생을 거창하게 논의하고자 하는 제목이 아닙니다. 지나온 근 80년의 시간의 길이가 새삼 놀랍고 아련하여, 그 긴 세월을 어떻게 살아왔나를 생각하다가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Seneca)의 말을 떠올립니다.

“인생은 충분히 길다. 사람들은 태만과 낭비로 허송할 따름이다. 유효하게 사용하면 위대한 성취를 이룩할 만큼 충분한 시간이다.”

선현들이나 당대 작금의 훌륭한 인사들은 짧은 시간도 슬기롭게 살면서 많은 업적을 쌓음으로써 매우 알찬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렇다 할 성취가 없는 나와 같은 사람은, 삶의 길이의 가치를 느껴보지 못한 깊은 회한의 아픔을 안고 있습니다.

30세에 세상에 명성을 떨치고(양명), 40에 제반사에 미혹되지 아니하고(불혹), 50세에 이르러 하늘의 명운을 깨닫게(지천명) 되었다는 논어의 말씀과는 한참 멀고 동떨어진 세월이었습니다.

은퇴와 회갑의 나이인 60대를 넘기면서도 만사에 깨달음이 미흡하고 혼란스럽고 자칫 미혹되기 일쑤였습니다.

이제 황혼의 일몰시에 당도하여 어두운 밤이 되기까지의 시간의 미묘하고 절박함에 마음이 쏠릴 때입니다.

머리와 몸은 퇴화하여 가고, 유성처럼 번개처럼 빠른 속도로 변천하는 작금의 세상은 나와는 한참 저 먼곳을 내달리고 있습니다.

보기에 추하고 언동이 소란·부산스럽고 혐오스럽게 여겨지기 쉬운 황혼기의 짧지 않은 시간을 보다 깔끔하게 보낼 수 있는 사람은 슬기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애처롭게 여기고 아끼려는 사치함마저 없다면 저마다 살아가는 인생이 보다 각박하고 힘들 것 같습니다.

회원기고

60대를 넘기면서 여생이 얼마남지 않았다는 단순하고 가벼운 생각이 어느덧 5년, 10년, 15년으로 이어져서, 이렇듯 긴 여생이 될 줄 알았으면..... 하는 후회스럽고 어쭙잖은 80이 되어갑니다.

사람은 생각하는 갈대(파스칼)(호모사피엔스)라고 하지만, 한편으로는 놀 줄 알고 즐길 줄 알기 때문에 (호모루텐스)인간이라고도 합니다.(여기서 호모루텐스의 조건을 눈여겨 보아야 합니다. 즉, 자유성, 비밀상성 및 이해관계와의 무관함 들입니다.)

당나라의 시성 이백은 “천지 우주는 만물의 역려(여관/호텔)이며, 광음(시간)은 천대만대의 과객(손님/나그네)이니, 인생은 꿈과 같도다. 존각도 아까우니 밤에도 촛불을 밝혀놓고 놀고 즐기지 아니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수사법(rhetoric)인지 궤변(sophism)들을 끌어들여서 이리지도 저리지도 못하였던 아쉬움에 대한 자위를 하고자 합니다.

이따금 유능한 예술가나 경제가들은 인생은 너무 짧다고도 개탄합니다만, 요즈음 같은 저출산·고령화 사회에서의 가중되어 가는 사회적 제반 부담률을 생각하면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을지도 모를 일이며, 더구나 그런 분들의 업적에 대한 가치·평가는 후세 사람들에 의하여 확정지어집니다.

근래 평균수명이 길어져서 황혼기(후기 고령기)로부터의 길어진 인생계획의 중요함을 새삼 느끼면서, 호모사피엔스로서나 호모루텐스로서 두루 흡족한 삶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합니다.

※ ※ ※ ※ ※

세계 여러 사람들의 가슴속에 파고들어 큰 감동을 준 좋은 ‘시’ 하나를 이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1977년 한 유명 영화감독의 장례식에서 할리우드(Hollywood)의 대스타 존 웨인(John Wayne)이 이 시를 낭독하였으며, 1987년 세기의 미녀배우 마릴린 먼로(Marilyn Monroe)의 추도식에서, 그리고 2001년 뉴욕의 세계무역센터가 잔학한 ‘테러’에 의하여 폭파되어 처절하게 희생된 많은 영혼들의 1주기를 맞아 그라운드 제로(Ground Zero)의 추도식에서도 낭송되는 등, 이렇듯 세계적으로 알려진 훌륭한 시이지만, 그 작자를 찾아보려고 하는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몇몇 설만 있을 뿐 아직 지은이를 찾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슬픈 일이 있을 때마다 애송되는 가슴을 울려주고 감싸주는 그런 시입니다. 애통한 죽음을 자연의 아름다운 눈이나 햇볕, 바람, 아침의 소리와 가을비, 그리고 별과 꽃과 새와 같은, 우리가 가까이 사랑하고자 하는 아름다운 것들로 이어주고 승화시켜주는 그러한 시입니다.



M

Members

L

Letter

“A Thousand Winds”

Do not stand at my grave and weep.

I am not there, I do not sleep.

I am a thousand winds that blow.

I am the diamond glint on snow.

I am the sunlight on ripened grain.

I am the gentle autumn rain.

When you awake in the morning's hush,

I am the swift uplifting rush

Of quiet birds in circled flight.

I am the soft stars that shine at night.

Do not stand at my grave and cry,

I am not there, I did not die.

“천의 바람이 되어”(본인의 서투른 번역)

내 무덤 앞에서 울지 마세요.

나는 그곳에 없습니다. 나는 잠들고 있지 않습니다.

나는 천의 바람이 되어..... 천의 바람이 되어 하늘을 날고 있습니다.

나는 겨울 흰 눈 위의 다이아몬드의 반짝임입니다.

나는 잘 익은 곡식 위에 내리쬐는 따스한 햇볕입니다.

나는 산과 들을 조용히 적셔주는 가을비입니다.

당신이 아침의 소리와 더불어 깨어날 때,

나는 작은 새처럼 하늘을 맴돌며 솟구쳐 오릅니다.

나는 밤하늘에 부드럽게 빛나는 작은 별입니다.

내 무덤 앞에서 울지 마세요.

나는 그곳에 없습니다.

나는 죽지 않았습니다.

야간비행



18기 사관 이봉길

항공기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장막을 친 듯 캄캄한 하늘을 바라보며 숨을 훅 들이마시게 된다. 속도가 붙으면서 양편에 늘어선 활주로등이 빠르게 지나간다. 바퀴가 지면을 뜨자 캄캄한 어둠 속으로 내 온 몸이 쑥 빨려 들어가는 것 같다.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야간비행은 달이 없는 그믐밤이 제격이다. 완전한 어둠 속에서 세상의 모든 것을 떠나 그 무엇과도 닿지 않는 나만의 세상을 만날 수 있어서 좋다. 헤어날 수 없는 어둠 속에 영영 묻혀 버릴 것 같은 두려움도 잠깐, 인간들이 만들어낸 수많은 빛을 떠나 어둠 속에 던져진 편안함은 다시 빛의 세계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

달이 밝으면 마음을 종잡을 수 없다. 지상의 온갖 것들이 희미하게 형체를 드러낸 모습을 보면 갈 곳 없는 나그네처럼 마음 부칠 데가 없어진다. 또 산 그림자에 덮인 마을, 강물과 호수에 반사되는 달빛, 나를 따라오는 항공기 그림자에 지상을 떠난 내 마음을 붙잡히기가 싫어진다.

망거미가 질 무렵의 박모(薄暮) 비행은 하늘 높이 올라 갈수록 더디게 지는 해와 찬연한 노을이 나를 초조하게 만든다. 점점 짙어가는 노을 속으로 떨어지는 해를 보고 있으면 나도 지는 해를 따라 하늘 저편으로 빠져드는 것 같다. 지상은 어둠에 잠겨 가는데 층층을 이룬 노을만 가득 찬 하늘에 홀로 떠 있노라면 여운이 긴 종소리처럼 가슴이 아리고 왜 그런지 자꾸 슬퍼진다.

야간비행에서는 귀가 열린다. 엔진소리가 더 크게 들리고 프로펠러에 바람이 감기는 소리, 날개를 스치는 공기의 흐름이 느껴진다. 비행기가 숨을 몰아쉬는 듯한 둔탁한 엔진 소리에 마음이 급해지고 내 심장의 고동소리, 가슴의 울렁임이 해머로 바위를 치는 소리처럼 들리기도 한다.

주간비행에서는 들리지 않던 온갖 소리에 놀라 창밖을 내다본다. 어둠은 색깔이 없다. 어둠은 깊은 숲 속처럼 막막하고 바다 속 같이 무겁고 깊다. 지금 이 순간 비행기는 하늘에 떠 있는 것이



아니라 심연에 잠긴 듯, 보이는 것도 없고 움직임도 느껴지지 않는다. 비행기뿐만 아니다. 비행기와 한몸이 된 내 자신도 빛이 닿지 않는 깊은 바다 속에 잠겨버린 것 같다. 어둠 속에 갇히면서 늘 빛 속에서 익숙했던 나의 존재도 사라져 버렸나보다. 놀라서 기내등을 밝혀본다. 창 밖 어둠 속에 외로움에 젖은 한 사나이가 보인다.



야간비행은 고적하다. 캄캄한 하늘, 허공 중에 떠있는 항공기와 나. 정작 어둠 속에 잠긴 내 마음은 편안하다. 작은 불빛에 비친 계기반을 유심히 들여다 본다. 크고 작은 계기들의 바늘이 가늘게 떨고 있다. 고도 34,000피트 상공을 마하 0.80로 날아가고 있다. 내 귀에는 큰 고장이라도 난 것처럼 요란하게 들렸던 엔진소리와 거친 바람소리에도 계기들은 제 자리를 가리키고 있다. 더 이상 어둠 속에 홀로된 나를 보고 싶지가 않다. 인간은 원래부터 누군가와 함께여야 했던가, 왜 혼자 사는 세상을 상상할 수는 없는지…….

“별과 친하지 말라.” 병아리 조종사로 처음 야간비행을 나갈 때, 선배 조종사가 한 말이다. 감상에 빠지지 말고 비행에 집중하라는 말이지만, 공중에 올라가면 소년처럼 한가하게 별을 헤아리며 동화 속 같은 환상에 젖을 틈도 없다. 그때는 지상의 불빛에 미련을 떨치지 못하고 밤길에 길 잃은 어린아이처럼 울고 싶었다. 세월이 지나 고참 조종사가 되어서 하늘에 별이 보이기 시작할 때면 이미 별도 하늘도 낭만의 세계에서 떨어져 있었다.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본다. 별이 보인다. 수많은 별 속에서 별을 찾는다. 오랜 세월 하늘을 나르면서도 동심의 꿈도 젊음의 낭만도 다 앗아가 버린 야간비행이지만, 때로는 내 마음의 행로를 이끌기도 한다. 저만치 캐노피 오른 편 위로 오리온좌 한가운데 나란히 별 셋이 반짝이고 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식구들의 눈을 피해 다락방에 숨어들어 울던 때, 작은 창으로 보였던 별, 다시는 만날 수 없는 어머니를 그리워하며 ‘엄마별’이라고 정했다. 자라면서 어머니가 보고 싶으면 마당으로 뛰쳐나가 저 별을 찾았다. 하지만 어른이 되고 서울 하늘 아래서 한동안 잊고 있었던 별이다. 해외 비행을 하면서 대양을 건너 몇 시간이고 나란히 함께 가는 저 별을 만나면 생전의 어머니를 뵈듯 반갑고 편안했다. 그런데도 왜 그런지 ‘엄마별’만 보면 자꾸 눈물이 난다. 이제는 사랑하는 가족이 있고 더 이상 슬프지도 아프지도 않는데…….

멀리 어둠 속에서 희미한 불빛 하나가 깜박거린다. 작은 불빛이 점점 커지는가 했더니, 여객기 한 대가 날개 끝에 파랑고 빨간등을 밝히고 저만치 왼편 날개 아래로 지나간다. 저 비행기에도 나처럼 잠 못 이루고 어둠을 지키는 누군가 타고 있겠지. 그렇다. 야간비행은 나만 깨어있는 게 아니다. 밤새 항로를 지키며 조종사들과 교신하는 관제사들과 비행기를 띄우고 착륙을 기다리는 정비사들도

회원기고

있다. 뿐인가, 집에서 비행 나간 사람을 생각하며 기다리는 가족들도 있다.

생텍쥐페리는 야간에 아프리카 상공을 비행하다가 사하라 사막에 불시착하였다. 그는 길을 잃고 고통스런 나날을 보내면서 죽기로 마음먹었다가 종종히 빛나는 하늘의 별을 보고 “지금 파리에서 나의 아내와 아이들도 저 별을 보고 있겠지?”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는 밤을 새워 자기를 찾고 있을 동료들과 집에서 기다리는 가족을 위해 이번에는 자신이 살아 돌아가는 것이 그들을 구하는 길이라고 생각하기에 이른다.

밤하늘에서 고적한 시간을 견디고 있는 조종사들에게도 함께 가는 별이 있어 마음의 길을 찾고 별을 바라보며 기다리는 사람을 생각한다. 내게도 이 시간 잠들지 못하고 나를 걱정하고 돌아오기를 고대하는 가족이 있다. 이 밤 지상에서 같은 별을 보고 있을 사람들을 위해 빛과 그림자가 있는 지상으로 돌아갈 시간이 기다려진다.





M

Members

L

Letter

한 걸음 두 걸음 7 Summits를 향하여...



19기 사관 이달호

7 Summits라고 하면 언뜻 서방 선진국인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태리, 캐나다, 그리고 이웃 일본을 가리키는 G7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선진 7개국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7개 대륙의 최고봉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구체적으로 언급해 보면 북미 대륙의 매킨리(6,194m), 남미 대륙의 아콩카과(6,959m), 오세아니아의 카르스텐스(4,884m), 아프리카의 킬리만자로(5,895m), 아시아의 최고봉이자 세계 최고봉인 에베레스트(8,848m), 유럽의 엘브러즈(5,642m), 마지막으로 남극 대륙의 최고봉인 빈슨매시프(4,897m)를 7 Summits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등반가라면 7 Summits를 오르는 게 꿈이요 일생의 도전으로 여기는 게 당연할 것입니다.

등반가도 아닌 제가 감히 7 Summits를 언급한다는 게 가당치 않은 일이라는 걸 잘 알고 있지만 7대륙 최고봉에 올라가 보고 싶다는 그런 꿈까지 포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부터 제가 그런 꿈을 갖게 된 사유를 적어 보려 합니다.

조직생활에 얽매있던 사람들이 퇴직을 하게 되면서 그동안 해보지 못했던 일에 관심을 가지거나 또는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새로운 세계에 입문하는 건 아주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 중에 가장 보편적인 활동이 등산이 아닌가 합니다. 다행히도 우리나라는 국토의 많은 부분이 산악지형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등산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아주 좋습니다. 더욱이 서울처럼 대도시 주변에 등산할 수 있는 산들이 병풍처럼 둘러 싸여 있어 누구나 쉽게 등산로에 접근할 수 있다는 사실은 다른 나라에서는 흔치 않은 우리만의 축복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등산은 특별한 기술이나 고가의 장비 없이도 누구나 자신의 취향에 따라 즐길 수 있고 무엇보다 돈이 적게 들어 퇴직자들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여가활동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회원기고

저도 이런 이유로 등산에 재미를 붙여 전국의 많은 산들을 다니게 되었고 이러한 등산활동을 통해 건강도 다지고 여가생활도 풍성하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욱 발을 넓혀



〈아프리카 대륙의 최고봉 킬리만자로 등정〉

지고 해주기 때문에 참가자는 아무 부담 없이 즐겁게 참여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보니 7 Summits에서 2 Summits는 이미 오른 셈이 되었습니다.

2004년 2월에 다녀온 안나푸르나 베이스캠프의 산행에 대하여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히말라야는 8,000m급 이상의 거봉들이 14개나 자리 잡고 있는, 말 그대로 등반가들의 성지라 할 수 있습니다.

전문 산악인들은 정상을 등반하러 이곳에 오지만 전문 산악인이 아닌 사람들로서 등반에 호기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트레킹(trekking)이라고 불리는 비전문 등반 활동을 즐기러 이곳을 많이 찾고 있습니다.

히말라야에는 에베레스트 베이스캠프(EBC)와 안나푸르나 베이스캠프(ABC) 2개의 트레킹코스가 일반적인 코스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각 코스에는 트레킹을 하는 사람들이 숙식을 해결할 수 있는 민박집들이 많기 때문에 숙박에 따른 불편함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민박집들은 소박하고 비교적 정갈하여 크게 거부감이 들지 않습니다.

식사는 푸짐하거나 기름지지 않고 소박하고 단순하여 다이어트하기에 적합할 듯 합니다. 등반 운행은 아주 천천히 걸어 하루 6시간 이내로 하기 때문에 며칠씩 트레킹을 한다 해도 육체적으로 크게 힘들지는 않습니다.

저는 2004년 2월 7일부터 18일까지 11박 12일의 일정으로 안나푸르나 베이스캠프(ABC)를 다녀왔는데 한국에서 참가를 신청한 2명과 네팔인 가이드와 포터 이렇게 4명이 단출하게 그야말로

- 2004년 2월에는 히말라야의 안나푸르나 베이스캠프(4,130m)
- 2008년 2월에는 아프리카 대륙의 최고봉인 킬리만자로(5,895m)
- 2008년 7월에는 유럽대륙의 최고봉인 엘브러즈(5,642m)

를 등정했습니다.

이들 등정은 모두 여행사의 여행상품으로 판매되는 것들을 통해 이루어졌기 때문에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모든 준비와 진행은 여행사가 책임



M

Members

L

Letter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트레킹을 하였습니다.

만년설을 이고 있는 히말라야의 연봉들을 감상하며 느긋하게 산행을 즐기는 트레킹은 인생에 있어 새로운 경험이었고 또한 재충전의 기회였습니다. 부드러운 햇살을 받으며 야생화들과 눈을 맞추고 이따금씩 만나는 네팔 어린이들의 순박한 모습을 보는 것은 어린시절 즐거운 소풍을 떠난 기분이었습니다.

민박집에는 전기가 없고 따라서 그 흔한 TV도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저녁을 먹고 나서 특별히 할 일이 없습니다. 더욱이 고산지방이라 해가 떨어지면 기온이 급속히 떨어지기 때문에 침낭 속에 들어가 가만히 있다가 잠이 들면 다행이고 아니면 계속해서 잠을 청해야 합니다. 문명생활에 익숙했던 현대인이 갑자기 원시생활로 되돌아간 상황인데 히말라야에 오지 않고서는 경험해 볼 수 없는 특별한 체험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트레킹을 시작한 지 나흘째 되는 날 해발고도 4,130m에 있는 베이스캠프에 도착했습니다. 베이스캠프 지역은 사방이 눈과 돌덩어리들로 뒤덮여 있는데 한마디로 황량하기 그지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야 처음으로 안나푸르나의 본체와 정면으로 마주 한 것입니다. 산소가 희박하여 머리가 아픈 가운데에서도 안나푸르나의 거대한 몸통 전체를 한눈에 본다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감동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압도당하는 기분이었고 전문 산악인들이 왜 안나푸르나에 오르려고 하는지 어렵פות이나마 이해를 할 것 같았습니다.

베이스캠프 한 쪽에는 돌을 쌓아 제단 비슷하게 만들어 놓은 것을 여러 개 볼 수 있는데 모두 한결 같이 안나푸르나를 오르다 목숨을 잃은 등반대원들을 위하여 동료들이 세운 추모비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 문헌 너희들을 결코 잊지 않는다.’라고 새겨진 어느 외국 원정대의 글귀는 사뭇 가슴을 아프게 하였습니다.

검은 대륙 아프리카의 최고봉인 킬리만자로에는 2008년 1월 31일부터 2월 10일까지 10박 11일의 일정으로 다녀왔는데 이것도 여행사에서 판매하는 여행상품이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것은 해외여행을 떠나는 것 정도의 수준이었습니다. 다만 여행지가 아프리카이기 때문에 특별히 ‘황열병’ 예방주사를 맞는 것이 추가될 뿐 그 이외에는 어느 해외여행 준비사항과 다를 게 없습니다.

열대의 나라 아프리카에 만년설을 이고 있는 킬리만자로는 오래 전부터 한 번 가보고 싶은 곳이었는데 이번에 그 꿈을 이뤄 너무 기뻐합니다. 킬리만자로는 거의 6,000m의 높이를 자랑하는 산이지만 전문 산악인들의 등반보다는 비전문 등반인들의 트레킹이 주류를 이루는 곳입니다. 히말라야와 마찬가지로 트레킹을 하는 사람들을 위한 숙박시설이 준비되어 있고 식사도 현지인들이 준비해 주기 때문에 트레킹에 참가한 사람들은 그저 트레킹을 즐기기만 하면 됩니다. 이번에 제가 갈 때도 한국에서 23명이 참가하였는데 21명이 정상등정에 성공한 것을 보면 이해가 갈 것입니다.

회원기고

열대우림에서 시작된 등반이 고도가 높아지면서 점차 식물들의 개체수도 줄어들고 키도 작아지다가 풀 한 포기 없는 화산암 지대를 만나는 과정들을 음미하면서 천천히 걷는 게 고소적응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오는 고소증(高所症)은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경험한 고소증은 머리가 기분 나쁠 정도로 아픈 두통과 만사가 귀찮아지는 무력감 그리고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찾아오는 졸음이었는데 그런 것들을 경험해 본다는 것도 또 하나의 즐거움이었습니다.

등정 마지막 날, 그러니까 정상등정을 하는 날에는 4,700m에 있는 마지막 산장에서 출발하는데 보통 자정쯤으로부터 등정을 시작합니다. 두통과 졸음을 참아가며 7시간 정도의 사투를 끝내고 정상에 섰을 때의 감격과 희열은 정말 말로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떠오르는 태양과 눈 아래로 끝없이 펼쳐지는 아프리카의 평원들을 만년설 위에서 바라본다는 것은 고통을 이겨낸 사람만이 맛볼 수 있는 한 순간의 호강일 것입니다.

킬리만자로를 오른 것 못지않게 등반이 끝난 후 후속 프로그램으로 진행된 사파리 여행과 마사이족 거주지 관광은 아프리카 여행의 또 다른 즐거움이었습니다. 너무 먼 곳이라 생전에 가볼 수 있을까 생각했던 아프리카를 다녀온 것을 보면 세계화가 나에게도 닥쳐와 있다는 사실을 실감할 수 있었고 이제 아프리카인들도 자각하여 과거의 어두운 굴레에서 벗어나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는데 앞장서기를 바라는 마음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008년 7월 25일부터 8월 4일까지 10박 11일 일정으로 다녀온 엘브러즈 등반에 대하여 간략히 언급해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럽 대륙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가 알프스에 있는 몽블랑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엘브러즈 봉이 유럽의 최고봉입니다. 러시아에 있으며 모스크바에서 비행기로 3시간 가량 남동쪽에 자리 잡고 있는 엘브러즈의 높이는 5,642m라 킬리만자로보다는 약간 낮습니다.

이번 등반도 여행사의 여행상품이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준비할 사항은 별로 없었고 모든 준비는 여행사에서 담당했습니다. 다만 눈 위에서의 등반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에 대한 준비가 추가되었을 뿐이었습니다. 숙박 문제와 식사 문제도 큰 불편 없이 해결되는 상황이었는데 복병은 날씨가었습니다.

마지막 날 그러니까 정상등정을 시도하는 날 새벽 3시에 3,700m에 있는 숙소를 출발하여 설상차를 타고 4,600m까지 이동을 한 후 이곳에서부터 걸어서 정상등정을 하는데, 바람이 너무 강하게 불고 구름이 짙게 드리운 최악의 기상상태였습니다. 러시아 가이드의 무리한 등반운영 때문에 고생고생하여 7시간 만에 어렵사리 정상에 밟기는 하였는데 너무 힘들고 무서워서 정상등정의 감격과 희열은 전혀 느끼지 못했습니다. 대신 천신만고의 험난한 하산과정을 끝내고 안전을



〈유럽대륙의 최고봉 엘브러즈 등정〉

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엔 다시 도전하겠다고 웃으며 이야기하는 게 너무 멋져 보였습니다. 그런 나이에 그런 꿈을 가질 수 있는 노르웨이 신사가 정말 부러웠습니다.

꿈을 꾸다고 모든 꿈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특히 7 Summits 등반과 같은 꿈은 무모한 몽상처럼 보이지만 그렇다고 꿈까지 꾸지 않는 것은 너무 슬픈 일인 것 같습니다. 60대 후반의 나이에도 에베레스트를 등정한 기록을 우리나라도 갖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혀 불가능한 일이라 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공사 동창생 가운데 최초로 7 Summits를 등정한 사람이 된다면 하는 꿈을 꾸어봅니다. 아니, 공사 동창생 가운데 최초로 7 Summits 등정을 꿈꾼 사람으로 기억되는 것만 해도 감지덕지하겠습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확인하고서야 살아 돌아왔다는 안도감과 희열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엘브러즈의 등반을 통하여 산악안전에 대한 뼈저린 자각과 이를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절감했습니다.

사실 7 Summits의 꿈을 갖게 된 계기는 바로 엘브러즈에서였습니다. 딸과 같이 엘브러즈에 온 노르웨이인을 만났는데 그 분이 7 Summits를 이야기 해주었습니다. 나보다 두 살이 많은 그 분이 7 Summits의 첫 번째 목표로 엘브러즈를 찾았는데 날씨 때문에 정상등정에 실패했

지난날의 꿈



9기 사관 임병선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처음 임관했을 때
온 세상은 모두 우리것인 것처럼 보였다.
그날 저녁 우리는 들뜬 기분으로 술집에 모여
싸구려 술을 마시면서 열띤 토론을 벌렸다.
조국의 안보와 항공력의 발전을 토론하고
비행술에 대하여 열을 올렸고
중국에는 야한 여자애기로 마지막을 장식했다.
하늘은 우리 삶의 터전이었으며
옳은 일을 위해 목숨을 바치겠다던 우리들의 맹세는
어두운 하늘을 향해 한없이 메아리쳐 갔다.

비행훈련 부대로 돌아온 우리는
날마다 훈련기와 씨름을 해야 했다.
비행훈련장은 바로 전쟁터였고
교관의 책망과 질타 없이는 하루도 지낼 수 없었다.
훈련에서 탈락되면 다음날 짐을 싸서 부대를 떠나야 했다.
당시의 당면 목표는 훈련에서 살아남는 것이었고
비행훈련에서의 탈락은 죽음보다 두려웠다.
그러나 비행기로 활주로를 박차고 이륙하면



M

Members

L

Letter

하늘은 광활하고 아름답고 신비스러웠다.
젊음의 땀과 고통, 그리고 낭만과 정열이 그곳에 있었다.
우리들의 모든 것을 바쳐도 아깝지 않았다.
가끔 일어났던 비행사고들은 우리들을 슬프게 했고
우리들은 유언장을 써서는 몰래 책갈피에 끼워두곤 했다.
주말이 되어 잠깐 해방되면
사천동네와 진주시내가 좁다고 돌아 다녔고
술집에서는 남이 들어주지도 않는 노래를 목청껏 불렀고
노래 소리는 공허한 밤하늘로 흩어졌다.

그로부터 50년
그동안 몇 명의 전우들은 하늘에서 순직했고
살아남은 우리들은 모두 순백이 되어
공군기지 골프장에 모였다.
의례적인 안부를 묻고
건강 얘기, 자식들과 손자 얘기로
남아도는 시간을 때웠다.
회비를 걷어서 점심 값으로 지불하고서는
몇 명은 방석을 깔고 고스톱을 했고
몇 명은 비리 정치인 얘기로 입에 거품을 뿜었고
세상 돌아가는 것에 대하여 개탄했다.
그리고는 마치 바쁜 일이라도 있는 것처럼
뿔뿔이 흩어져 집으로 향했다.

모두가 그저 살고 있었다.
이제는 맹세할 일도 없어졌다.
우리들 젊은 날의 꿈은 한갓 신기루였단 말인가?
우리들의 헌신과 희생은 모두 허사였단 말인가?
우리들의 인생은 이미 흘러갔는가?
여전히 하늘에는 구름이 흘러갔고

회원기고

전투기가 굉음을 남기며 먼 하늘로 사라져 갔다.
우리들은 어깨를 힘없이 늘어뜨리고
우리들이 꿈을 키웠던 높은 하늘을 올려다 보았다.

전우들이여 다시 한 번 일어나자.
예전처럼 인생의 목적에 대하여 격론을 벌이고
술에 대취하여 광활한 하늘을 쳐다보자.
조국의 안보와 항공력의 발전에 열을 올리고
남아있는 정열을 아낌없이 불태우고
목청이 쉬도록 노래를 불러보자.
그리고 마지막엔 야한 여자 애기라도 실컷 떠들자.
우리는 아직 꿈을 버릴 만큼 늙지 않았다.





M

Members

L

Letter

생도생활 회고



7기 사관 김국창

“우리는 피끓는 배달의 아들 / 높고 빛나는 한배님 정신 이어 받아서
누리에 떨치고자 하늘로 솟나니 / 우리들 영혼의 기지 공군사관학교
하늘은 우리의 일터요 싸움터 / 하늘에 살면서 하늘에 목숨 바친다”

까마득한 진해시절의 명암이 파노라마처럼 뇌리를 스쳐간다. 엄동설한 팬티만 입고 장천 앞바다 차가운 물속으로 뛰어들면서 불렀던 노래요, 염천폭염 속에 완전군장으로 천자봉 소봉(小峰)에 기어 올라서도 불렀던 교가다.

젊은 날의 꿈과 열정, 고뇌와 갈등, 인내와 감동이 잊혀져가는 교가와 함께 아스라이 노스텔지어 되어 노병의 가슴을 적신다. 아- 덧없는 세월의 흐름 속에서 떠내려 가버린 청춘이여! 그 때를 그리며 아쉬워 하노라.

졸업 50주년에 부쳐 그 때를 더듬어 ‘에피소드’ 중심으로 회고담을 적는다.

1. 우리의 만남(기본 군사훈련)

우리가 공군사관학교 ‘7기 사관생도’ 로 처음 만난 것은 1955. 3. 1. 오후 대전 항공병학교에서였다. 쌀쌀한 날씨에 바람까지 몰아치는 황량한 연병장에서 시골장터에 끌려온 촌닭의 형국으로 우린 만났다.

청운의 꿈을 품고 헌병정도는 우습게 여기며 정문을 통과하여 연병장에 모인 126명의 건아들! 인사과장 김소령이 “이제부터 여러분은 나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고 선언하며 주의 촉구한다.

회원기고

그리고 갑자기 ‘앉아, 일어서’를 몇 번 시키더니 우물쭈물하는 촌답들에게 “야- 너희들, 혼 좀 나볼래”라는 불호령으로 기를 꽉 꺾어 놓은 후 하나 하나 명단을 불러서 3개 구대로 나누어 편성한다.

그런 다음 구대장이란 분에 의해 구대별로 인솔되어 간 내무반이란 곳! 5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허름한 공간. 침상위에 앉히더니 작업복, 작업모, 군화, 내복 등 여러 보급품을 나누어 주며 즉시 사복과 바꿔 입으란다.

처음 입어보는 군복이기도 하지만 미제 군용품으로 대부분 커서 마치 들판의 허수아비 꼴들이다. 서로 바라보고 웃다보니 금시 서먹함이 가시고 서로 군복과 군화를 바꿔 입고 신다보니 금방 동료가 되고 만다.

우스꽝스런 모습으로 구대장께 맞는 것으로 바꿔 달라고 건의하니 자기도 웃으면서 ‘군대는 군복에 몸을, 군화에 발을 맞춰 입고 신는 곳’이라는 이해되지 않는 말로 입을 틀어막고 만다.

5시에 구대장의 인솔로 식당으로 갔다. 일렬로 줄을 서서 배식구에 가니 식기에 보리밥 한 그릇과 멸건 국 한 그릇을 내 준다. 그걸 들고 식탁으로 가 입에 떠 넣으니 목에 넘어가질 않고 금방 어머니 생각이 떠오른다.

‘36.7 대 1’이라는 엄청난 경쟁을 뚫고 합격, 고교 조회 때 단상에 올라 가 전교생의 박수까지 받고 떠나 온 귀하신 몸(?)이 불과 몇 시간 만에 나락으로 떨어져 버린 기분이 들어 가슴이 답답해진다. 야간에는 구대장의 설명에 따라 바늘과 실로 보급품에 주기를 하며 부산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10시 조금 전쯤 주변사령이란 분이 나타나 인원 점검을 하더니 10분 내에 이불을 펴고 자리에 누우란다.

소등을 하고 영화에서나 듣던 취침나팔 소리를 들으며 잠을 청했지만 40여 명이 붙어 자는 합숙소에서의 잠이 쉽게 들질 않는다. 자는 등 마는 등 밤을 보내고 멍한 기분으로 병영에서의 첫 아침을 맞이했다. 그날부터 시작된 군사훈련은 날이 갈수록 강도가 높아졌고 3주차가 되자 훈련을 견디지 못한 5명이 보따리를 싸들고 떠난다. 8주 훈련과정을 다 마칠 때까지는 7명이 더 도태되어 결국 114명이 수료하게 되었다.

우리는 대한민국 공군 사관생도라는 자부심과 온갖 어려움을 이겨냈다는 승리감 그리고 이제 사관학교에 가면 좋은 시설에 잘 먹으며 공부하리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의기양양하게 항공병학교를 떠났다.

2. 사관학교 생활

희망과 기대를 안고 진해 기차역에 내린 것은 5월 1일 오전. 군용 트럭으로 옮겨 타고 공군사관



학교 교문을 들어서니 기대와는 전혀 다른 야릇한 시설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선배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으며 생도대 연병장에 도착했지만 무슨 수용소에 온 기분을 지을 수가 없다.

우리는 각 구대별로 분산, '지도선배'의 인솔로 각 대대 내무실로 갔다. 그날부터 지도선배와 생활을 같이하며 내무생활 관숙과 입교식 준비훈련을 거쳐 5월 9일 10시, 입교식을 가짐으로써 '정규사관생도'가 된 것이다.

가. Tiger Training

입교식 날 밤 지도선배께서 “오늘밤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 놀래지 말고 침착하게 대처하라”는 말을 하고 나간다. 22시에 소등을 하고 막 잠이 들려고 하는데 몇몇 생도들이 선배의 지시에 따라 밖으로 나가는 것 같더니 드디어 나를 깨우며 옥외 화장실 뒤 방공호로 가 보란다.

방공호에 들어가니 책상 위에 촛불이 켜 있고 선배 한 분이 대충 그린 지도 한 장과 손전등을 주며 “방금 전에 선배가 북괴 간첩에 끌려 갔다. 그 지도를 보고 공동묘지에 찾아가면 묘지상석 위에 촛불이 켜있고 묘지 인근에 선배가 묶여 있다니 빨리 가서 선배를 구해 오라”고 지시를 한다.

지도를 보며 후문을 나서 한참을 뛰어가니 저수지가 나온다. 뚝을 따라 달려가니 야산이 나타나고 산길로 이어진다. 으스스한 기분으로 조심조심 숲 속을 걷고 있는데 갑자기 양옆에서 괴한들이 튀어나와 나를 잡아채더니 “너 사관생도 같은데 왜 도망가느냐”며 몇 대를 쥐어박는다.

“나는 진해부두 노동잔데 공동묘지 너머에 있는 우리 집에 가는 길이니 놓아 달라”고 말하자 거짓말 한다며 계속 때린다. 끝까지 내가 ‘노동자’란 주장을 굽히지 않자 이 친구 둘은 것 같다며 “야, 우린 너희 선배야. 정신 차려”하며 달래기 시작한다. 그 때서야 “선배님이 맞습니까?” 했더니 세상에 너 같은 고집불통은 처음 봤다며 어서 가보란다.

산길에는 걸려 자빠지도록 장애물과 나무에 허연 허수아비를 걸어 놓는 등 여러 괴물들을 만들어 놓아 간담을 서늘하게 했다. 한참을 더 달려 숲 속을 빠져 나오니 공동묘지가 보이고 저만큼 떨어진 큰 묘의 상석 위에 촛불이 하늘거리고 있다.

섬뜩한 가슴을 달래며 묘지에 접근하니 갑자기 좌우에서 소복을 한 괴한들이 나타나 나를 넘어뜨리고 패기 시작한다. “간첩들아 우리 선배, 내 놓으라”며 악을 써대니 “그래 수고했다. 다친데 없느냐”며 확인한 후에 동기생들이 대기하고 있는 곳으로 안내 해줘 함께 학교로 돌아 왔다.

나. 밥퍼(배식) 인생의 고뇌

기본군사훈련 과정에서의 ‘배고픔’은 훈련의 일환일 것으로 여기고 사관학교에 가면 다 해결될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그것과 별로 차가 없는 것에 실망한 것은 등치 큰 운동선수뿐이 아니

었다. 사관생도가 먹는 것에 연연한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지만 많은 사역과 '3보 이상 구보'로 뛰어 다니며 생활해야 하는 1학년 생도들에게는 심각한 문제였다.

생도식당! 판자로 적당히 만들어진 식탁 하나에는 선후배 생도 6명이 섞여 앉아 있고 식탁 한쪽에 식관 두 개와 식판 6개가 놓여 있으며 1학년 생도가 배식을 담당한다. 절대량이 부족한 밥을 가지고 선배들의 식사를 먼저 푸고 나면 '밥피' 몫이 부족하기 일쑤다. 혹 실수로 어느 선배의 식판이 좀 허전하면 민망하기도 하고 또 불안하기도 했다.

휴일은 외출이 불허된 1학년들이 포식하는 날이다. 선배들이 외출하고 난 점심에는 두 생도가 6인분 식사를 다 먹어 치우고 만다. 그러다 보니 과식으로 화장실을 드나드는 대가를 치러야 하지만 그래도 휴일 점심시간에 우리끼리 마음껏 식사하는 즐거움은 1학년들의 유일한 낙이었다.

매주 한 번 있는 '해피 디너' 시간! 후식으로 미군용 'C-Ration'이 나오니 별미에다 배식에 신경을 덜 써도 되니 '밥피' 들에게 기쁨을 주는 날이다.

우리가 결신(乞神)의 노예에서 풀려난 것은 2학년이 되면서부터다.

선배의 체면도 있고 1년간 위가 단련을 받았으며 '밥피'의 고충도 아는 터라 신입생의 밥이 좀 적다 싶으면 밥을 덜어주는 아량도 생기게 됐다.

다. 불탄 자리 집합

생도생활 중 가장 큰 고통은 구타였다. 1학년 때는 2~3일이 멀다고 밤마다 특별 훈련이요, 때를 맞고 살았으니 지금 생각해 봐도 아찔하다.

곤장을 맞고 궁둥이가 아파 엎어져 자야 할 때가 무릇 기하(幾何)였던가?

결핍하면 야밤에 3대대 불탄 자리에 선착순 집합이다. 1대대는 내무실이 멀어 좀 늦게 와 보면 2·3대대 동기생들은 먼저 와 '뺏다'를 들고 있는 선배들 앞에 줄을 서 있다. 늦게 도착한 생도들은 마음씨 좋은 선배를 찾아 우왕좌왕! 그러면 사관생도가 '쥐새끼 짓' 한다며 불호령이 떨어진다. 이유도 모르고 집합 당한 우리는 결국 '쥐새끼 같은 정신상태'가 이유가 되어 10대씩 얻어맞고 돌아와 쥐새끼처럼 엎어져 슬프게 잠이 든다.

곤장을 맞고 불침번을 서고 있노라면 어느 선배가 가만히 찾아와 다친데는 없느냐며 위로해 준다. 그러면 응어리진 마음이 슬며시 풀리고 만다.

구타 위주의 후배교육은 7기생이 선배가 되면서 다소 시정되었다고 자부한다. 나는 선배가 되면 절대로 폭력은 쓰지 않겠다고 결심했고 내가 1대대장 생도를 하면서 단 한 번도 후배를 때리지 않고 근무를 하곤 했다.



M

Members

L

Letter

라. 아- 신라의 달밤이여!

2학년 가을쯤이면 생도생활에 권태기가 온다. 이때를 맞춰 떠나게 되는 수학여행은 생도생활에 청량제가 된다. 10월 중순, 설레는 가슴을 안고 경주로 2박 3일간의 수학여행 길에 올랐다.

우리를 태운 기차는 동해 남부선을 달려 경주 불국사역에 도착, 불국사 인근 여관에 8~10명 단위로 방을 정하고 여장을 풀었다. 모처럼 즐겁게 저녁식사를 한 후 21:30까지 외출이 주어졌다.

당시만 해도 불국사 앞 기념품 가게등은 별로여서 대부분의 생도들은 외출시간을 소화하지 못하고 일찍 돌아와 쉬고 있었다. 그래도 몇몇 재주꾼들은 마침 수학여행 온 여고생들을 만나 '미팅'을 즐기다가 귀영시간에 맞춰 아슬아슬하게 들어와 동기생들의 가슴을 태우게 했다.

취침점호를 끝내고 22시에 소등을 했지만 잠이 쉽게 들지않아 옆 전우들과 담소를 하고 있는데 뜻밖에 비상소집령이 내려진다. 수학여행와서까지 야간훈련을 실시하는 것에 어리둥절해 하며 여관 앞 공터에 집합하니 불침번이 없어졌다며 당장 찾아오라는 지시가 떨어진다.

10여 명의 생도가 불침번을 찾아 나섰고 남은 생도들은 달빛을 받으며 '엎드려 뻥혀'를 하는 처지가 되고 만다. 10여 분 후 불침번이 돌아와 안도하는 순간 인솔관은 공동책임을 묻겠다며 공개된 장소에서 생도들에게 '몽둥이 세례'를 퍼붓기 시작하는 것이다.

천년의 고도(古都) 서라벌 땅에서 화랑의 후예들이 당하는 수난을 보면서 산천초목도 울었고 여고생들도 울었으며 불국사의 스님들까지도 염불을 올렸다는 말이 들려와 위안이 되기도 했지만 한편 부끄럽기도 했다.

사건 내용인즉, 인솔관은 불침번에게 권총을 내주며 '성실근무'를 명하고 훈육관들과 함께 외출을 했다. 범주 몇 잔을 걸치며 대화하는 도중 불침번에게 실탄이 든 권총을 그냥 주고 온 것이 생각났다. 황급히 여관으로 돌아와 불침번을 찾았으나 바람과 같이 살아진 뒤였다.

불침번 두 사람은 공교롭게도 고향 친구로 잠시 걸으며 이야기나 좀 나눈다는 것이 그만 달빛에 흘렸는지 임무지역을 조금 이탈하고 만 것이다.

잠자기가 어려울 정도로 심하게 몽둥이 뜸질을 당한 생도들은 다음 날 새벽 토함산 해맞이 길을 절룩거리며 올랐으니 다음 여정을 원만하게 진행할 수 없었다. 즐거웠어야 할 수학여행은 고행여행으로 끝나고 말았다.

자그마치 반백년이 지난 지금도 동기생 회식 때면 '신라의 달밤' 노래가 등장하고 그때 그 사연이 동기생들의 입에 회자되는 전설 같은 이야기다.

3. 공부, 운동 그리고 훈련에 얽힌 이야기

생도교육의 목표는 지, 덕, 체를 갖춘 유능한 정규사관의 양성에 있었다. 1·2학년은 언어 영역과 수, 물, 논리, 국제법학 등 교양과목을, 3·4학년은 항공, 기계, 통신공학 등 전문과목으로 짜여 있었다. 그리고 운동과목은 럭비 등 각종 구기종목에 수영, 기계체조 등이었다.

게다가 D. M. S.(Daily Memory System) 운영으로 매일 시험을 치러야 했고 운동 중, 특히 기계체조는 기준미달 시 휴가출발이 유보되기도 했다.

가. 어느 교반장의 수난

어느 겨울날 1교반 반장 K생도는 강당준비를 위해 조금 일찍 학과장에 갔다. 난로에 불을 피우려고 하니 ‘카뷰레터’가 어디론가 사라졌다.

다급한 김에 인근 사무실로 달려가 그곳 병사에게 사정을 말하고 ‘카뷰레터’를 빼가지고 와 기름 호수를 입으로 빨아 겨우 난로를 피우고 오전 수업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

점심식사를 하고 내무실에 돌아오니 훈육관실에서 호출, 훈육관을 찾아 가니 이유를 물을 것도 없이 ‘사관생도가 도둑질을 하면 되느냐’며 얼굴을 마구 때려 얻어맞고 돌아와서 교반장답게 담담히 수업에 임했다.

강의시간에 교수님은 K생도의 얼굴을 보고 “자네, 요즘 공부 좀 하더니 살도 췌다”며 칭찬을 하니 생도들은 웃지도 울지도 못하고 난감했다.

그는 요즘 내무성적 때문에 ‘특등’을 놓쳤다며 동기생들을 웃긴다.

나. 운동선수들의 고민

매년 국군의 날 행사의 일환으로 서울 동대문운동장에서 갖는 ‘삼사 체육대회’는 생도들에게 엄청난 부담을 준다. 운동선수는 운동 때문에 골병 들고 일반생도는 응원 때문에 등골이 빠진다.

특히 운동선수들은 하반기부터 오후수업을 앓고 운동연습을 하다 보니 학과진도를 따라가기 쉽지 않다. 대부분의 운동선수들이 연등시간에 동기생의 노트를 빌려보며 공부를 하지만 역부족일 수밖에 없다.

어느 중간시험 때의 일이다. 독어 교관님은 운동선수 보충수업을 하며 시험에 대비, 힌트를 조금 주며 생색을 냈다. 그 사실을 감박한 교관은 다른 문제를 출제해 일부 선수들에게 골탕을 먹였다. 그래도 운동선수들의 고충을 가장 잘 이해해 주었던 교관으로 기억하며 고마워하고 있다.



공부와 운동의 이중고 속에서도 백골이 진토되도록 기량을 갈고 닦아 ‘삼사 체육대회’에 삼년 연승을 일구어 낸 그 주역들이 우리 7기생이었음을 자랑스럽게 여겨 오고 있다. 그들은 진정 ‘공사의 영웅들’이었다.

다. 산타클로스 선배들의 고마움

이승만 대통령 탄신축하 행사나 국군의 날 행사를 위해 상경할 때 대개는 화물차를 이용하던 시절이다. 화물차는 급행열차 등에 밀려 역마다 가다 서다를 반복하다 보면 서울역까지 10시간이 넘게 걸릴 때도 있다.

작업복을 입고 화물칸 바닥에 앉아 이 길고 지루한 여행을 하게 되는 생도들에게 인솔관은 이것이 ‘인내력 훈련’임을 선포한다. 인내를 먹고 잘 살아가는 것이 생도생활이지만 별다른 간식도 없이 10시간을 인내하는 훈련은 ‘마진터널 무장구보’보다 더 힘들게 느껴진다.

이러한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 주는 기차역이 대구역과 대전역이다.

대구와 대전 등 큰 역의 정차시간은 좀 긴 편이다. 기차가 서면 동작 빠른 생도들은 쏙살같이 플랫폼의 ‘간식식당’으로 달려간다. 단참에 우동 한 그릇을 사서 후루룩 들이키고 돌아온다. 그리고 별 것도 아닌 것을 무슨 무용담이나 되는 것처럼 신나게 털어 놓으며 함께 웃고 지루함을 달랜다.

또한 생도들이 기다리는 대망의 산타클로스! 대구기지와 대전 항공병학교에서 근무 중인 선배들이 빵을 잔뜩 사 들고 나타난다. 그 때 먹던 꿀 같던 빵 맛과 그 정은 지금까지도 잊을 수 없는 고마움으로 남아 있다.

라. 입이 새까매진 이유

야간 ‘각개전투훈련’이 있는 날이다. 장촌마을 부근의 만두고지 주변에는 고구마 밭이 있다. 밭 주위에서 훈련을 하는 생도들은 어둠을 틈타 슬그머니 고구마 밭으로 기어들어가 고구마를 캐 먹는 행운을 잡는다.

훈련을 마치고 돌아와 집결한 생도대 연병장! 군장검사를 하던 빠끔이 훈육관이 입 검사를 병행한다는 말에 가슴이 덜컥한다.

생도 입에 손전등을 비추며 “왜 자네 입이 새까만가? 모르겠습니다.” “너 고구마 몇 개 먹었어?”, “네, 한 개 먹었습니다.” “너는?, 저도 한 개! ‘말’로 처먹었구나”, “또 너는?, 저는 두 개... 거짓말! ‘섬’으로 처먹어 놓고는 능청을 떨어...” 참고 있던 생도들의 웃음이 폭발한다.

웃으면서도 한편 ‘오늘밤에 무사할까’ 하는 걱정이 머리를 때리는 순간, “오늘 밤 훈련에 수고가

많았다. 고구마를 캐 먹은 생도들은 주말 외출 때 발주인을 찾아가 사과하도록 해!” 오- 자비하신 하나님시어. 아멘!

4. 끝내는 말

우리 ‘7기 사관’은 6·25의 전흔이 채 가지지 않은 어려운 시기에 공군사관학교에 입교했다. 대부분 학교에서 공부 깨나 한다는 엘리트들로서 나름대로 꿈을 안고 사관학교에 들어 온 것이다.

그러나 당시 사관학교의 교육여건은 이러한 젊은이들을 효율적으로 키워내기에는 너무나 열악한 상태였다. 학과교육은 이현재 교관님을 위시하여 비교적 우수한 교수진을 갖추고 있었고 군사훈련도 큰 문제가 없었다.

다만 훈육관과 선배들에 의해 실시되는 인성교육이 문제였다. 개념마저 마련되지 않은 채 의욕만 앞세워 강압 일변도 교육을 하다 보니 선후배간에 갈등을 초래하고 학습의욕까지 저하시키는 등 부작용이 적지 않았다.

그러나 한편 생각하면 강한 후배로 키우기 위한 선배들의 열의와 사랑이 있었기에 그 어려운 4년 과정을 잘 극복할 수 있었고 임관 후 선사후공(先私後公)의 혼탁한 세태 속에서도 위국충절을 간직한 채 국가안보를 위해 올곧게 헌신할 수 있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게 한다.

사회에 나와서도 일반인과 다른 국가관, 정의감, 봉사관을 견지하는 가운데 시류에 물들지 않고 국가 사회에 기여하며 건실한 가정을 유지하는 등 모범적인 생활을 해가고 있다고 자부한다.

자기가 고생했던 쪽으로는 머리도 두지 않는다는 사람들도 많지만 우리는 모교를 사랑하고 공사 출신인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다. 그리고 피붙이보다 강한 ‘동기생애’를 가지고 자주 만나, 해서 즐겁고 들어서 재미있는 옛 이야기들을 격의 없이 쏟아내며 웃고 웃으며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으니 이것은 우리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임에 틀림없다.

그렇다면 이처럼 강한 ‘동기생애’는 어디서 오는 것일까? 그것은 모교와 온갖 어려움을 함께 이겨낸 4년간의 생도생활에서 비롯되었음이 분명하다.

5. 임관 후의 동기생 개황(概況)

‘7기 사관’은 1959. 4. 1. 서울로 이전한 모교에서 이승만 대통령을 모시고 졸업 및 임관 한 첫 기생이다. 돌이켜 보면 우리는 생도생활, 장교생활 그리고 예편 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54여 년의 삶을 동기생이란 운명적 울타리 속에서 살아왔고 또한 여생을 그 울타리 속에서 살고 지고 할 것이다.



여기에 하나의 명제가 있다면 최후에 돌이 남는 순간까지 서로를 귀하게 여기며 사랑으로 끌어안는 끈끈한 '동기생애'의 계속 유지라는 생각이 든다.

우리는 114명이 입교, 93명이 졸업하였고 그 중 63명이 생존하여 국내 53, 해외 10명이 거주하고 있다. 다만 30명이 유명을 달리하여 영예로운 '졸업 및 임관 50주년 기념행사'에 자리를 함께 하지 못한 아쉬움이 크다.



지난날의 군수활동을 생각하면서



3기 사관 전승우

공군 군수사의 수리창, 보급창이나 물동부 그리고 비행기지의 정비보급부대는 항공기 및 부속장비를 수리하여 군수물자의 작전상 요구되는 시일에 즉각적으로 공급해야 하는 것이 유일한 임무이고 목표인 것이다.

이러한 군의 작전상 임무수행과 군수지원체제는 일심동체의 상호의존의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

나의 정비장교의 창 재직시절을 회상하면 소위 때부터 시작하여 장기간에 걸쳐 창에서 성장하기도 하였으며, 연세대 대학원의 위탁교육을 받게 된 것도 그러한 동기에서 주어진 것이다. 공군의 작전임무 수행을 위하여 항공기의 기종의 변화와 양적증가는 시설과 장비에 있어서 양과 질 면에서 확장되었으며 창의 복잡한 군수자원의 지원체제를 가져오게 된 것이다.

따라서 창의 시설은 정상조업도를 유지하면서 능률과 경제성 그리고 기술향상을 시킬 수 있는 경영과학(MANAGEMENT SCIENCE)과 경영공학(MANAGEMENT ENGINEERING)의 능력개발이 요구된다.

여러 가지 제도개선을 위하여 경영기법을 관리의 도구로서 활용하여 창의 경영의 합리화와 기술개발을 기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창의 운영관리를 위해서 과학적인 의사결정이 요구된다. 주어진 자원을 가지고 목적을 성취하는 것을 최대화하여야 한다. 경영전략과 비용은 소총의 전면과 후면의 양면의 관계에 놓여져 있다. 따라서 균형을 유지하면서 군수지원체제는 기술면에서 변화하고 발전하지 않으면 안된다. 우리는 한국전쟁의 폐허 속에서 세계역사상 유례가 없는 최단기간에 경제대국으로 발돋움하였다.

이와 같이 보다 변화와 혁신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경제를 리드해 나가야 할 것이다. 분석을



M

Members

L

Letter

통해서 군수지원의 제도개선과 혁신의 요소를 찾아 확인을 해야 한다.

최근에 창의성(CREATIVITY)이라는 말이 수없이 등장하고 있다. 기술진보(TECHNICAL PROGRESS)와 과학의 발달은 새로운 자원의 개발, 생산방법 및 경영방식의 개선 등으로 이뤄진다.

기술진보는 소위 슈페터(JA. SCHUMPETER)의 혁신(INNOVATION)을 의미하는 것이다. 주어진 환경에서 주도권을 잡는다. 혁신은 노력이다. 한 분야에만 노력을 기울일 뿐이다. 거기에는 엄청난 근면성, 창의성이 요구된다.

명심보감(明心寶鑑)에 삼계(三計)가 있으니 하루의 계획, 일년의 계획, 일생의 계획을 합쳐서 삼계(三計)라 하였다.

공자(孔子)의 삼계(三計)에 이르기를 일생의 계획은 어릴 때 있고, 일년의 계획은 봄에 있고, 하루의 계획은 새벽에 있나니 어려서 배우지 않으면 늙어서 아는 것이 없고, 봄에 밭을 갈지 않으면 가을에 거둘 것이 없으며 새벽에 일어나지 않으면 그날의 할일이 없느니라 하였다.

이노베이션(INNOVATION)은 인적자원과 물적자원에 대하여 보다 큰 부(富)를 창출할 수 있는 것이다. 불확실한 내일을 위하여 오늘 무엇을 해야 한다. 일의 생산성을 분석하므로 일에 필요한 작업의 순서를 알아야 하며 이를 종합하므로 작업을 보여서 그 프로세스를 편성하여 관리하므로 일의 방향, 양과 질, 그리고 기준과 예외에 대한 관리수단을 세워야 한다.

사람과 노동의 매니지먼트에 있어서 X이론과 Y이론이 있다. X이론의 전통적인 견해는 사람이 태만하여 일을 싫어한다고 말한다. 때문에 규제가 필요하며 스스로 책임을 질 수 없는 존재라 간주한다.

이에 반하여 Y이론은 사람의 욕구를 지나고 일을 통해 자기실현과 책임을 바란다는 이야기이다. 산업 심리학은 대부분 Y이론에 충실하다. 자기실현, 창조성, 인격과 욕구에 대한 심리적 문제를 이해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매니지먼트에 전능하지 않으면 안된다. 업무상 인간관계는 존경에 기초를 두고 있어야 한다. 프래그머티즘(PRAGMATISM)의 실용주의 철학과 인스트맨트리즘(INSTRUMENTISM)의 도구주의 철학은 교육으로서 목적에 도달하기 위한 1관리의 도구가 된다는 뜻이다.

태일러(FW. TAYLOR)의 과학적 관리의 시간과 동작연구는 작업공정의 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기법으로 활용하고 있다.

매니지먼트는 비용과 효과의 균형을 얻기 위한 의사결정이며 자신의 조직에 대한 책임인 것이다. 매니지먼트의 개발은 조직의 활동성과를 올리기 위한 것이며, 경영과학은 인간으로 구성되는 시스템이며 인간의 가치를 느끼고 인정하는 것이다.

원천적으로 위험이란 주위상황의 변화와 혁신의 기능을 가져야 하며 활동의 위험을 없애거나 최

소화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경영관리자의 주어진 과제의 특징은 생각하는 사람, 행동하는 사람이야 하며 인간적인 사람의 성격을 갖추어야 한다.

성장에는 전략이 필요하다. 최고경영자에게 변화의 의지가 없다면 모든 것이 쓸모가 없게 되는 것이다. 경영철학자인 피터 드러커(PETER F. DRUCKER) 교수는 관리자는 강점 위에 구축하고 강점을 활용한다.

문제보다 기회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지금 있는 곳에서 무엇에 공헌할 것인가를 생각한다.

성실은 모든 영리함보다 뛰어난 능력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여성의 능력을 활용하라고 하였다.

톨스토이(TOLSTOY)의 전쟁과 평화에서 군사력은 병력의 수에 비례한다고 가정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병력의 수와 어떤 X축 군대의 정신, 과학적인 문제해결, 장군의 통솔력, 장비의 선택, 전투 의지의 강약, 위험 극복의 의지의 강약 등에서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

프러시아의 육군대장인 클라우제비츠(KUON KLAUSENTE)(1834년)의 전쟁에서 “전략이란 전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며 전투의 술(術)이다”라고 정의하였다.

매니지먼트는 경영공학이나 경영과학의 분야에서 연구발전되었다. 그것은 과학적인 의사결정인 것이다. OR(OPERATION RESEARCH)는 군대에 있어서 ‘작전연구’의 용어에서 유래되었으며 군사작전의 제 문제의 경영과학이며 경영정책결정의 과학인 것이다.

인간관계관리의 제 제도에 있어서 사기조사와 태도조사, 인사상담제도, 제안제도, 면접제도는 과학적인 기법인 것이다. 가장 효과적이고 주어진 자원을 가지고 목적을 성취하는 것을 최대화해야 한다.

그리고 경제적이어야 한다. 주어진 목적을 수행하는데 비용을 최소화해야 한다. 일의 생산성을 향상하기 위하여 분석하고 종합하며 관리를 하여야 한다. 경영은 책임으로서 그 그룹에게는 신분, 탁월성, 권한과 동사에 의수가 주어진다.

그들은 일원으로 작업의 윤리, 즉 책임의 윤리를 요구한다. 경영자는 조직의 성과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람이다. 경영자는 문제해결을 위해서 “THINK SMART, WORK BETTER”의 생각을 방법론으로 제시되는 것이다.

창의적 사고를 통한 창조적 경영은 새로운 가치를 창조해 나가는 활동인 것이다. 최대의 책임과 도전을 동반해야 하며 최대의 공헌을 가능케 하는 것이어야 한다.

의사소통은 지각이다. 소크라테스는 “목수와 대화할 때는 목수의 발을 사용한다”고 가르쳤다. 경험에 바탕을 둔 언어를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다.

커뮤니케이션은 기대인 것이다. 수신하는 쪽이 기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한다. 위에서 아래로 아래에서 위로 상의하달(上意下達), 하의상달(下意上達)이다. 그러나 커뮤니케이션을



성립시킨 것은 발신자이며 무엇을 말하고 싶은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인플레이션(INFLATION)은 일반적으로 물가수준이 지속적으로 현저하게 상승하는 현상을 말한다. 장기간에 걸쳐 빠른 속도로 추진되면 경제에 많은 폐해를 가져온다. 인플레이션은 자산의 재분배, 소득의 재분배효과를 가져온다. 그뿐만 아니라 수출입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쳐 국제수지의 변화를 일으킨다. 따라서 인플레이션은 억제되어야 한다.

완만한 인플레이션은 투자활동을 활발하게 경제성장을 촉진시킨다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국민들의 저축의욕을 감퇴시켜 투자재원이 부족하여 경제성장을 저해한다. 인플레이션은 수출을 억제시키고 수입을 조장시켜 경제성장에 지장을 줌과 동시에 경제자원의 배분을 왜곡시킨다.

경제발전이란 인구의 증가, 자본의 축적, 기술의 진보, 문화발전 등의 사회적 발전이다. 경제발전은 국민들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고 나아가서 국가의 안정과 번영을 가져다준다.

경제의 양적증대가 경제성장이다. 경제이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혁신을 수행하는 것이며 혁신이야말로 경제발전의 유일한 요인이며 혁신이 없는 곳에서는 경제발전을 이룩할 수 없는 것이다.

국민경제를 행복한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는 성장도 필요하고 안정도 필요하다. 그러나 성장과 안정 사이에는 충돌관계(TRANSC OFF)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성장과 안정에는 조화가 필요하다는 말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경제정책의 목표는 시대에 따라서 상대적 중요성이 달라지는 것이다.

성장하되 안정위주의 성장을 추구한다.

성장보다는 안정을 상대적으로 중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안정도 깨지고 결국 성장도 취약해지는 것이다.

그래야만 다시 재도약할 수 있는 경제가 개편될 수 있다. 따라서 경제개혁은 안정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개구리도 더 큰 뿔을 뛰기 위해서는 움츠린다. 움츠리지도 않고 계속 뛰려고 한다면 아마 그 개구리는 허공에서 떨어져 죽고 말 것이다. 더 큰 뿔을 뛰기 위해서는 일단 땅을 바탕으로 잘 움츠려야 하는 것이다.

우리 인간들도 마찬가지다. 마라톤 경주를 보면 자기의 체력과 힘을 적절히 안배해야 끝까지 마라톤을 마칠 수 있다.

자기의 체력도 생각지도 않은 채 계속 빨리 뛰기만 한다면 체력이 달려 중도에서 포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의 경제는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있다.

제한된 자원과 기술을 가지고 성장해야만 하는데는 그에 맞는 속도가 있어야 한다.

나의 제3의 인생 ‘농촌 생활’



9기 사관 서용택

나는 지금 70대의 나의 삶을 제3의 인생이라고 부르면서 경기도 이천시 변두리에 있는 농촌에서 텃밭 농사를 지으며 몇 년째 살고 있다.

내가 지금의 농촌 생활을 제3의 인생이라고 부르게 된 것은 공사 33기의 후배가 공사 총동창회지인 ‘성무지’에다 “내 인생의 하프타임”이란 제목으로 쓴 글을 읽으면서부터다. 그는 인생을 축구 시합의 전반전, 하프타임, 후반전으로 비유하면서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40세가 넘으면서부터 직장 생활과 퇴직이라는 인생 전환점 사이에서 갈등과 고민이 시작되고 ‘퇴직 후에 무엇을 하면서 살아갈까’ 하는 준비를 하다가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퇴직 이전을 축구의 전반전, 즉 제1의 인생으로, 후반전을 제2의 인생으로, 그리고 제2의 인생을 찾아가는 준비시기를 하프타임이라고 했다.

그런데 나의 경우 연장전이 또 필요했다. 60세의 노인이 되어 가면서 은퇴시기가 가까워오고, 마음속으로는 원하지 않았지만 제2의 인생으로 생활해 오던 두 번째 직장에서 명퇴라는 이름을 빌려 물러나게 되었다. 그리고 모든 은퇴자들이 겪는 삶의 변화가 주는 어려움, 다시 말해 그 은퇴자 개인 인생의 최고 직장 수준에서 실업자의 위치로 바뀌고 그러한 현실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적응하는 사고의 전환 과정 시기를 나도 똑같이 겪었다.

그런데 내 인생의 변화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시대도 변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내가 젊었을 때는 전혀 듣지 못했던 ‘고령화 시대’라는 용어가 나돌기 시작하고 현재의 사람들이 옛날보다 평균 20~30년 정도는 더 살게 된다는 것이다. 오래 산다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그 긴 남은 인생을 늘면서만 지낼 수도 없는 답답한 삶이 되었다. 그렇다면 그 길어진 인생의 삶을 위한 새로운 인생 설계를 해야 하는데 제2 인생을 준비할 때만큼 갈등이나 고민이 절박하지는 않았지만 만족함을



M

Members

L

Letter

느끼지 못하는 못마땅한 느낌을 주는 생활이 오랫동안 지속되었다.

만약 내가 지금 사오정 세대로서 제2의 인생을 준비 기간 중에 있다면 축구의 연장전, 즉 제3의 인생도 고려한 새로운 인생이 탄생하도록 삶의 의미를 가미한 설계를 하겠다.

나는 화분꽃은 키워 본 적이 있으나 텃밭 농사를 지어 본 적도 시골에 살아 본 적도 없기 때문에 시골이 마치 꿈의 거처로서 전원 생활이 매우 멋진 삶을 줄 것이라는 생각은 갖고 있지 않았다. 오히려 농부가 농사를 짓느라 고생은 죽도록 하면서도 도시 직장인들보다 어렵게 살고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삶의 의미, 삶의 가치를 별로 느끼지 못하는 생활을 하던 중 추석을 맞게 되었다. 추석이 되니 우리나라의 전통 관습대로 온 가족이 모이게 되고 자연스럽게 가족회의와 같은 대화가 오고 가게 되었는데 대화 중에 자녀들이 “지금 아버님이 직장을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특별한 자영업업을 하는 것도 아니며 어머니는 병으로 인해 몸이 몹시 허약해져 있는데 시골에 가서 아버님은 텃밭 농사를 짓고 어머니는 맑은 공기를 마시면서 건강을 회복하는 것이 어떠냐”고 제안을 하였다.

이 제안이 동기가 되어 농사일에 도전해 보고 싶은 마음이 생겨 농촌 생활을 생각해 보게 되었고, 텃밭 농사와 자연 농업 관련 책을 사서 읽게 되었다. 그리고 아내와 더불어 농토를 구매키 위해 수도권에 인접한 경기도 일대를 돌아본 끝에 지금 살고 있는 곳에 약 300평 정도를 사게 되었다. 이때부터 제3의 인생, 농촌 생활이 시작되었다. 아내는 몸이 몹시 허약한 2급 장애인이기 때문에 아내가 농사일을 할 것이라고는 애당초부터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아내가 40대 후반에 자궁에 혹이 생겨 수술하기 위해 병원에 가서 수술하기 전에 혈당을 측정했는데 그 수치가 무려 400 이상이 나와 의사도 놀랄 정도였다. 그 후로 당뇨 합병증 때문이었던지는 모르지만 잔병도 많이 앓게 되고 심장 수술을 비롯해서 모두 7번이나 각종 수술을 했는데 너무나 병원엘 자주가고 입원을 하기 때문에 나는 아내를 보고 종합병원을 먹여 살리는 ‘종합병원환자’라고 불렀다. 이러한 아내의 모습이 자식들에게는 몹시 가슴을 아프게 했던 것 같다. 자식들이 아내에게 잘 해주려는 모습을 쉽게 볼 수가 있는데 이로 인해 아내는 자기가 필요한 것이나 하고 싶은 것을 자식들에게 말하지 않고 자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내가 시골에 가서 텃밭 농사를 지으면서 살겠다고 친구나 이웃에게 얘기했을 때 어렸을 때 농촌 생활을 하신 분들은 거의 다 반대를 하였고, 또 어떤 사람들은 시골 사람들은 서울 사람이 시골에 와서 사는 것에 대해 배타적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것은 나의 평소에 생각과 다르다고 생각을 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서울 사람은 깍쟁이고 시골사람은 착하다고 들어왔기 때문이다.

이사 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은 전화번호부에서 이장 댁 전화번호를 찾아 이장에게 전화를 해서 새로 이사 온 사람인데 인사차 찾아뵙겠다고 했다. 군대로 말하면 전입신고를 하려던 것이었는데

오히려 이장님이 우리 집으로 오셔서 인사를 하겠다고 하셨다. 이장님이 처음 만나서 하는 말이, 서울에서 전입해 와서 이장에게 인사차 찾아뵙겠다고 한 사람은 내가 처음이고 오히려 자기가 찾아가면 앞으로 찾아오지 않아도 좋다고 말하기 때문에 만나는 일이 거의 없다고 했다. 그리고 서울 사람이 자기 마을에 논이나 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약 30가구 정도 되는데 직접 농사를 짓는 사람은 없다고 했다. 내가 텃밭으로 가꾸고자 하는 땅은 약 300평 정도밖에 안 되지만 먼저 살던 분이 전혀 농사를 안 짓던 땅이라 무엇이든 심으려면 우선 밭을 갈아야 하겠기에 트랙터를 가진 이웃에게 부탁하여 갈았다. 예상보다 큰 돌들이 많이 나왔다. 아쉬운 대로 무엇을 심을 수 있게 만든 후에 5일장이 서는 날 아내와 함께 시장에서 상추, 오이, 가지 등 7~8종 정도의 모종을 사다가 심었다.

나의 생애 처음 지어보는 농사였다. 물론 텃밭 농사 관련 책을 두어 번 읽어 보았고 가을 수확 때까지 병충해 문제로 종종 책을 읽어 보았지만 책은 기초적인 지식을 주는데 도움이 되지만 지금 내가 농사를 짓고 있는 바로 이곳의 토질이나 기후 특성을 고려해서 쓴 것이 아니고 막연히 중부지방을 기준으로 썼기 때문에 이론과 실제가 차이가 있듯이 실제상황에서 생기는 모르는 문제 해결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았다.

농사를 지은 지 몇 년이 지난 지금 돌이켜 보면 작물의 특징, 파종시기, 병충해 문제 등 이곳에 적합한 농사법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이곳에서 수십 년 농사를 지어 본 농부들이다. 나는 비록 텃밭 정도라는 농사를 지으면서 살기 위해 농촌에 왔다면 그 현지에 있는 이웃과 교분을 맺고 지내는 것이 농사를 위해서도 좋고 농촌 생활을 윤택하게 하는 데도 좋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내가 사는 마을 주변에도 전원주택이 있지만 직장인들이 대부분 살고 이웃 원주민들과는 거의 교분이 없지내고 있다. 아내와 나는 이곳에 와서 이웃들과 교분을 트는 데 매우 운이 좋았던 것 같다. 아내는 기독교에 대한 믿음이 매우 강하다. 순복음 교회에서 1993년에 권사가 되었다. 이곳에도 순복음 교회가 있으니 당연히 그 교회를 나가야 되는데 나의 설득으로 우리 집에 가까운 교회로 나가게 되었다. 나는 아내를 따라 교회에 나가지만 아직까지 정말 나의 마음속에 주님께서 임재하지 않은 것 같다. 마음속에서 스스로 우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참된 기독교 신자라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종교 그 자체는 착한 사람, 성실한 사람이 되도록 인도하는 역할을 하므로 나는 우리 가족 모두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구주되신 예수님을 믿는 것을 찬성한다. 그리고 기독교를 바라보는 나의 시각은 기독교에는 구교인 천주교뿐만 아니라 신교에 많은 종파로 분리되어 있지만 그 많은 종파가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이며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의 종교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몸도 허약하고 자동차 운전도 못하는 사람이 똑같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가까운 교회를 옆에 두고 집에서 멀리 떨어져 시내에 있는 순복음 교회를 반드시 나가야만 되느냐 하는 것이 나의 생각이었다. 아무튼 그 설득이 통했는지 이웃교회를 나가게 되었는데 나가서 보니 신자수가 20명



정도 못되는 미자립 교회였다. 그러다보니 모두가 가족 같아서 서로 사랑이 넘치는 생활을 하게 되었다. 오전 예배가 끝나면 항상 점심을 같이 먹고 금요일 저녁에는 구역예배를 차례로 성도의 집에서 예배를 드린다. 그러다보니, 짧은 기간 동안에 급속히 친하게 되고 지금은 주일이 아니라도 자주 만나 농담도 하고 웃고 지낸다.

서울에 사는 친구들은 골프를 비롯하여 각종 스포츠나 바둑 등 취미생활을 통해 스트레스를 풀고 여가 선용을 하지만 시골에서는 게이트볼을 즐기면서 생활의 활력소를 찾는 노인들이 많다. 게이트볼을 치는 것이 건강에도 좋고 건전한 취미 생활이라는 생각이 들어 게이트볼을 치게 되었는데 게이트볼장에 나가면서 같은 마을 사람뿐만 아니라 이웃 마을 사람들과도 교분을 쌓게 되었다. 농번기가 아닌 겨울철에는 농부들뿐만 아니라 나 역시 여가 시간이 많기 때문에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오후에는 게이트볼을 즐긴다. 교분을 맺는다는 것이 인사 한 번 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자주 만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 서로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교회와 게이트볼장에 나가는 것이 좋은 기회를 주었다.

아무튼 신참 촌놈의 농사짓는 일은 시작되었다. 농사 자체가 주로 육체적인 노동이라 힘든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그 중에서 육체적으로 가장 힘든 것은 밭을 가꾸는 일이었다. 물론 힘든 일의 대부분을 기계가 해 주지만 그래도 사람의 손길이 가야만 무엇이든 심을 수 있게 된다. 농사짓는 첫 해는 밭을 가꾸기 위해 이웃의 도움을 받았지만, 1년이 지난 후에 관리기라고 불리는 소형 경운기를 사서 밭을 가꾸기 시작했다. 이처럼 농촌 생활을 시작한 지도 어느덧 4년이 되었다. 이제 농사에 대한 기본적인 감각은 익혔지만 농사의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초보자의 수준도 못 벗어났는데 다시 말해 내가 심고자 하는 작물에 대해 병충해의 증상을 알아보고 그에 따르는 효율적인 방제 방법이나 사전 예방 방법에 대하여서는 초등학교 1학년 수준도 못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 비해 생산 효율이 낮다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다. 그래서 몇 가지 작물에 대하여는 철저히 공부해 볼 생각이야. 농산물 이외에 약용작물로 오가피나무를 40여 그루, 매실 10여 그루, 그리고 유실수도 두세 그루씩 7~8종류를 집 주변에 심었는데 그 중에서 지난 해 처음으로 포도, 복숭아, 배나무에서 꽃이 피고 열매가 열렸는데 수확기가 되기 전에 거의 전부 떨어지고 수확기에는 한두 개 정도밖에 남지 않아 그것을 보고 웃었다. 그런데 채소류 작물 중에도 생각보다 어려운 것이 고추농사였다. 파란 고추일 때는 괜찮았으나 빨간 고추가 되어서 수확기에 반드시 병충해의 피해를 입게 되었다.

나는 작물의 수확량이 직계가족, 그리고 친구들과 조금씩 나누어 먹을 수 있을 정도로, 그리고 무공해 농작물을 짓기 위하여 가능한 화학 농약을 사용하지 않으면서 지어보려고 한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자연 친환경 농업 기술이 많이 거론되고 있는 것을 보아 왔는데 기회가 되면 자연 농업 교육을 받고 싶다. 자연 농업으로 농사를 짓거나 축산업을 하는 것이 이상적인 방법일 것 같은데

그것이 농부들에게 보편화되지 않는 것을 보면 내가 모르는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인지, 또는 홍보가 부족한 때문인지 모르겠다. 몇몇 농부들에게 왜 자연 농법으로 농사를 안 짓느냐고 물어보면 그것은 전문가나 짓는 농사법이라고 대답한다.

농촌에서의 일과는 해가 뜨면서 시작된다. 여름에는 아침 5시 전후해서 밭이나 논에서 일하는 농부를 쉽게 볼 수 있다.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은 닭에게 먹이를 주는 것과 자전거 타기 운동이다. 이 곳에 온 지 얼마 안되어 병아리 20마리를 키웠는데 달걀을 낳기 시작할 때는 8마리밖에 남지 않았다. 자전거 타기 운동을 통해 이제는 내가 사는 주변의 지리를 어느 정도 알 수 있게 되었다. 닭 모이 주는 것과 자전거 타기 운동은 아침 식사 전에 주로 반복되는 일이지만 식후에 하는 일은 계절에 따라 또는 그 날의 특수한 과제에 따라 나의 일과는 다르다.

자기가 스스로 알아서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저녁에 잠자기 전에 내일은 무슨 일들을 해야겠다고 마음속으로 계획을 세우는 일이 습관화되었다. 텃밭 농사 일이 농촌 생활에서 나의 주업이라면 화단을 가꾸고 꽃을 심는 일이 취미 생활 중의 하나다. 잡풀이 밭에서만 나는 것이 아니고 집 주위에도 엄청나게 나기 때문에 이를 뽑아내 주는 것도 큰 일 중의 하나인데 집 주위에 잡풀나는 곳에 꽃나무나 유실수, 아니면 산나물을 심어 잡풀을 없애는 것을 목표로 세워 진행하고 있다. 스트레스도 풀고 건강을 위한 운동으로 한 달에 서너 번씩 등산을 50년 가까이 해 오고 있는데 나이가 70이 넘으면서부터는 산행이 4시간이 넘는 코스는 너무 힘이 들어 산을 넘어가는 것은 자제하고 나로 인해 일행들의 산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노력하면서 등산으로 여가시간을 즐기고 있다.

취미 생활이 아니면서 농촌 생활만이 줄 수 있는 기쁨이 있다. 텃밭 농사를 지으면서 아무리 적은 양의 작물을 심어도 그리고 그 수확량이 적다 할지라도 우리 가족과 친구들에게 조금은 나누어 줄 정도가 돼 나눔의 기쁨을 알게 해 주었다. 내가 짓고 수확한 작물을 이웃과 나누는 생활은 나 이 들면서 더욱더 생활의 활력소가 되어 주고 있다. 밭에서 바로 수확한 야채로 반찬을 하면 서울에서 살 때 시장에서 구매하여 반찬을 해 먹을 때 보다 훨씬 더 맛있다는 것도 알았다. 특히 상추 같은 것은 밭에서 바로 따서 쌈을 해 먹으면 바다에서 바로 잡아 생선회를 먹는 것 못지않게 맛있다는 것을 촌놈이 되어서야 알았다. 여가 생활을 즐기는데 먹거리 여행이 일조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해안이 많고 서해나 동해에 있는 어촌에서 계절에 따라 그 어촌 특유의 해산물 축제 홍보를 요란하게 하고 있는데 가끔 자식들의 권유로 같이 여행을 한다. 처음에는 그 먼 곳으로 식사를 하러 가는 것이 사치와 낭비라고 생각하고 반대하였지만 지금은 국내 관광 여행으로 생각하고 기쁜 마음으로 갔다 온다.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교회에 나가니 어떤 때는 목사님의 설교가 지루하게 여겨 질 때도 있으나 남을 섭섭하게 해 준 일이 있으면 반성을 하고, 남이 자기에게 섭섭하게 해 준 일이 있으면 용서해



주라는 설교 덕분에 일주일에 한 번은 예배시간을 통해 내 자신을 반성해 봄으로써 내 마음을 밝게 해 주고 있다. 이는 이곳에서 사귄 지역주민을 대할 때 긍정적인 마음 자세로 만나게 되어 웃으면서 농담도 쉽게 하게 되고 산과 논밭으로 둘러싸인 자연 환경 속에서 제3의 인생 농촌 생활을 하니 어찌 아니 즐겁다고 할 수 있는가? 농촌에 온 지 4년 정도가 된 지금 아내가 1km 이상을 걸을 수 있을 정도로 건강도 좋아졌다. 정말로 다행한 일이다. 농촌으로 온 목적 중의 하나를 달성한 것 같아서 지금의 이 생활에 더욱 만족감을 느낀다. 젊을 때는 아내와 종종 등산을 갔지만 1985년도에 다니고 있던 직장 산악회원들과 함께 제주도에 관광 겸 한라산 등산을 간 것을 끝으로 지금까지 함께 등산을 하지 못했다. 이 곳으로 아내가 올 때는 아내의 건강이 동네 시장을 가는 데도 100m 정도 걸고 10분 이상 쉬어야 하고 약간의 언덕길은 10m 정도 가서 5분 정도 쉬어야 하는 것이 아내의 건강상태였다. 여기에서 아내가 하는 큰 일 중의 하나는 아내의 친구들의 요청으로 믿을 수 있는 시골 농산품을 사서 갖다 주거나 택배로 부쳐주는 일이다. 서울 시장이나 대형 할인마트에 가면 얼마든지 살 수 있는 농산품인데도 우리들의 먹거리가 상품을 판매하는 상인의 농간으로 인하여 그 식품에 대한 불신이 가정주부들에게 얼마나 큰지를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 아내가 부탁받은 것 중에 하나를 예로 들면 참깨와 들깨였는데 아예 사서 기름까지 짜 달라고 하니 그 일이 만만치 않았다. 마을의 아는 사람들에게 부탁을 하여서 직접 생산한 깨를 사서 깨갓이 씻은 후 직접 말려서 기름 짜는 집에 가져가 기름을 짜는 것을 끝까지 지켜보고 그 다음에 보내 주는데 지난 가을에 들깨만도 3가마 정도를 기름을 짜서 보내주었다.

이곳에 오기 전에 충분한 사전계획도 없이 그리고 정말 농촌에 정착을 해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확신도 없으면서 왔지만 이제는 서울에 가서 다시 살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다. 그러나 서울에 살고 있는 친구들에게 늙어서 서울에 사는 것보다 농촌에 사는 것이 더 좋다고 설득할 자신도 없다. 친구들이 이 글을 읽으면 아마도 '저 자식 정말 촌놈 다 됐네.' 라고 말 할 것 같다.

나는 선배님들 중에 시골에서 전원생활을 하시는 분이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2006년 7월에 발간된 성무지 33호에 서진태 장군 부인 윤여훈 여사께서 쓰신 '우리집 머슴 각하' 를 읽고 깜짝 놀랐다. 서진태 장군은 1년 선배님일 뿐만 아니라 같은 서씨이기에 잘 알고 있는데, 머슴 각하라는 별명을 붙일 정도로 농촌 생활을 하실거라는 것은 전혀 상상도 못했다. 또한 윤여훈 여사 역시 우리 세대의 사람은 신문, 방송 등의 언론을 통해서 몇 번은 그 이름을 들어 볼 수 있을 정도의 상류사회 출신인데 그러한 분이 앞장서서 노후에 농촌 생활을 하실거라는 생각도 못했다. 나는 윤 여사님께서 서진태 선배님께 비록 '머슴' 이라는 별명은 주셨지만 머슴 뒤에 '각하' 라는 존경 호칭을 붙여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리고 싶다.

2008년도 여름에 역시 1년 선배님이시고 같은 통신병과 출신이신 신재익 선배님으로부터 전화를

회원기고

받고 또 한 번 놀랐다. 나에 대한 얘기를 보훈병원에 갔다가 우리 동기생을 우연히 만나 들었다면서 전화를 하셨는데 양평에서 농촌 생활을 하신 지 10년이 되었다는 것이다. 그 전화를 받고 한 번 오시겠다는 것을 못 오시게 하고 예의상 아내와 내가 먼저 양평으로 찾아가 뵈었다. 신재익 선배님 말고도 두 분이 더 계시고, 전국 시골에 다른 선배님들이 많이 살고 계시다는 얘기를 들었다. 나는 '나같이 머저리 같은 놈만 은퇴 후 시골에 가서 촌놈이 되어 살려고 하는구나' 하고 잠시 생각한 적도 있었는데 화려한 경력을 가진 많은 선배님들이 농촌 생활을 기꺼이 하고 계시는 것을 알고는 더욱더 만족감을 갖고 촌놈 생활을 하고 있다.





M

Members

L

Letter

카페, 우주선 <Silverstar 12>호를 말한다



12기 사관 배기준

註 : 공군사관학교 제12기생 사이버 공간이 <홈페이지>에서 더 수준 높은 <카페>로 재탄생하였습니다. 때를 맞추어 카페를 좀 더 낭만적으로 <Silverstar 12>호라는 우주선 이름으로 명명하였습니다. 이 글은 12기생 네티즌, 그 우주선 선장과 선원에게 보내는 축하의 글이기도 합니다.

공군사관학교 제12기생 네티즌이 사이버 공간을 향해 발사되어 머나 먼 항해를 떠난 지도 어언 4년이 지나갔습니다.

했수로는 6년이 되었군요. 오늘 <홈페이지>에서 <카페>로 갈아타기 위해 우주를 날다가 잠시 지구에 착륙한 틈을 타서 그동안 흘린 땀을 닦으며 숨도 고르고 마른 목도 축이면서 지나 온 발자취를 잠시 살피려 합니다.

강이 흐르는 것 - 봉우리에서 솟은 물이 골짜기에 모여 냇물이 되고 다시 강물로 합쳐져 그 강물이 들과 산을 돌아 바다로 간다면 - 이것은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도도한 흐름이지요. 그 막을 수 없는 까닭은 자연발생적이기 때문입니다.

그 이치처럼 12기생의 사이버 공간도 스스로 싹이 튼 것은 2004년 가을 동기생 사천여행에서 카페지기 최대 식 동기가 우리들 암흑의 컴세계를 눈 뜨게 함으로써 세상 밖으로 나왔고 이제 누구도 가로 막을 수 없는 도도한 강물이 되었습니다.





처음 얼마동안은 남의 작품만 보내더니 차츰 손수 경험한 소중한 이야기도 배달하는가 하면 마침내 댓글로 서로 박수를 쳐주며 따뜻한 칭찬과 격려의 메아리가 일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동안 우주선 <Silverstar 12>호, 그 선장과 선원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사시사철, 밤낮을 가리지 않고 별들의 신비를 찾아 우주를 향해하며 탐사해 온 소식, 정보, 지식, 예술, 관광, 명언, 유머, 그리고 죽마고우, 우리들끼리만 은밀히 통하는 화끈한 물건(?)들까지... 그 여러 가지 희로애락으로 우리는 미지의 고달픈 인생을 보다 깊게 넓게 음미하고 관조하였습니다. 그 말은 '킴은 진화한다' 라고 하였으니 우리가 걸어온 길도 한 곳에만 머물지 않고 구석구석 짚어 가며 건강하게 정상적으로 진화하여 왔다는 증거입니다.

해가 거듭될수록 선원은 늘어나 지금은 가족까지 모두 50여 명이 승선하였습니다. 거기에는 물론 미국에 살고 있는 동기생과 미망인 그리고 아들 딸 가족이 함께 날아가고 있습니다. 개인 사정으로 혹은 여건이 제한되어 다소 차이는 있지만 더 높은 기술을 익혀 우정을 나누려는 열망은 짝짝한 밤하늘에 별처럼 빛났습니다. 아울러 안타깝게도 아직 승선하지 못한 지각생에게는 조용히 늘 문을 열어 놓고 기다리며 환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잠시 미래를 조망하기 위해 지나간 발자국을 돌아보고 우리 모두가 공감한 사실을 묶어 보았습니다.

네티즌의 필수 덕목은 서로 간에 간섭하지 않으며 부담도 주지 않고 자신 스스로가 선택하는 <자유>와 자신의 기술과 능력만큼 <참여>가 있을 때 그 두 바퀴는 온전하게 굴러 간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들의 미래는 해가 갈수록 기동력과 경제력이 떨어져 만나는 기회는 어쩔 수 없이 제한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메일을 통하여 그 友情을 나눌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실과 미래를 보면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매우 좋은 조건과 환경을 보다 잘 활용하여



M

Members

L

Letter

더욱 재미있고 즐거운 우주선 <Silverstar 12>호를 만들고 싶은 의미 있는 동기로 변했습니다.

시중에는 별로 두터운 정도 없는 사람끼리도 네티즌의 연을 맺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좀 다릅니다. 사관학교 캠퍼스의 인연은 무엇과 바꿀 수 없는 우리들만의 고귀한 자산입니다. 하루 아침에 이를 수 없는 50년이라는 반세기의 역사가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주고 받는 단순한 메일의 경지를 넘어 따뜻한 사람 냄새가 나는 어울림의 한 마당, 즉 <카페>를 가꾸는 것이 우리들의 꿈이자 희망이 되었습니다. 다 잘 아시다시피 결국 그것은 사정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열어보고, 써서 보내고, 나아가 댓글을 부치는 데서 바로 시작이 되는 것이지요. 무관심으로 절대 방치하지는 말자는 것입니다.

“기러기떼는 소리를 내어 서로 격려하고 선두의 자리를 스스로 바꾸어가며 대열을 이끌어 간다”라는 멋지면서 감동적인 말은 정말 가슴에 와 닿습니다. 누가 이래라 저래라가 아니고 자유 속에서 스스로 제자리를 잡아가는 그 질서를 바라보면서 저 하찮은 날짐승으로부터 사람, 12기생 우리가 자율, 그 정신을 배우려 합니다.

마지막으로 무슨 일이나 처음은 참으로 어려운 법인데 탄생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습을 밖에서 바라 본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강물이 바다에 이르러 잠길 때까지 흘러흘러 가라는 찬사와 갈채일지도 모릅니다.

아니 분명 물이 말라 끊어지지 말고 그리고 한 곳에 고여 썩지 말고 깨끗하게 끝까지 흘러가라는 지독한 주문이었습니다.

이제 붉은 황색 불기둥을 뿜으며 다시 우주선 <Silverstar 12>호는 카페로 발사되었습니다. 우주선에는 선장과 선원이 모두 자기 자리를 지키며 새 깃발 아래 꿈과 희망, 그리고 그리운 전설을 찾아서 힘차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12기생은 지금 너무나 아름다운 <행복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남성의 상징 전립선 튼튼 7가지 비결

여자에게 자궁이 있다면 남자에게는 전립선이 있다.

전립선은 남자의 방광 밑에서 요도를 에워싸고 있는 분비액으로 요도의 내벽을 매끄럽게 해주고 정자를 위한 환경을 마련해 준다.

하지만 전립선에 문제가 생기면 배뇨에 이상이 나타나고 성능 장애를 일으킨다.

1. 50대 이상의 남성은 1년에 1회 이상 검진을 받는 것이 좋다.

전립선암의 발병 여부를 확실히 알아보기 위해 PSA 검사를 한다. 소량의 혈액을 채취하여 혈액 중 PSA의 수치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전립선암의 조기 진단에 매우 유용하다. 전립선 검사 비용은 보험이 적용돼 1만원 안팎이며 검사 소요시간도 짧다.

2. 성생활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한다.

주기적으로 부부 사이를 확인하면 전립선 질환에 많은 도움이 되며 파트너가 없을 경우 자위 행위도 좋다.

3. 전립선 슈퍼 푸드를 섭취해야 한다.

전립선에 좋은 음식으로 콩, 토마토, 마늘, 녹차, 배추, 연어 등이 있다.

4. 감기약은 함부로 먹지 말아야 한다.

전립선 질환의 증상이 있는 사람은 감기약을 복용하기 전에 반드시 담당의사와 상의해야 한다.

5. 적절한 운동을 한다.

전립선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운동은 빨리 걷기이다.

6. 목욕을 자주 한다.

온수 좌욕이나 목욕이 전립선 예방에 도움이 된다. 주 3~4회 하루에 30분씩 37~40도 정도의 따뜻한 물을 용기에 담아 배꼽까지 20~30분씩 담그고 아랫배 주위를 마사지 한다.

7. 평소 생활습관을 잘 들여야 한다.

남자도 여자와 마찬가지로 차가운 바닥에 앉는 것을 피한다. 또한 바지 뒷주머니에 지갑 등을 넣고 다니거나 꽉 조이는 삼각팬티는 피한다.

제공 : 靑波



WHO에서 발표한 몸에 해로운 10대 식품

1. 기름에 튀긴 식품
심혈관 질병을 일으키는 원인이며 발암 물질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비타민을 파괴하고 단백질을 변질시킨다.
2. 소금에 절인 식품
많이 섭취하면 고혈압을 일으키며 신장에 큰 부담을 준다.
그리고 후두암을 일으키며 점막이 쉽게 헐거나 염증을 생기게 한다.
3. 가공류 고기 식품
발암물질 아질산염과 방부제를 대량 포함하여 간에 큰 부담을 준다.
4. 과자류식품
식용 향료와 색소가 대량 포함되어 있어 간 기능에 부담을 주고 심하면 비타민을 파괴한다.
5. 사이다·콜라류 식품
인산 탄산을 포함, 몸속의 철분, 칼슘, 성분을 소변을 통해 배출시킨다. 또한 인체에 유해한 색소도 많이 들어 있다.
6. 편리류 식품
염분이 매우 높고 방부제, 향료를 포함하고 있어 간에 손상을 줄 수 있다. 열량만 있을 뿐 정작 중요한 영양 성분이 없다.
7. 통조림식품
생선, 육류, 과일류 등을 모두 포함한, 비타민을 파괴하고 단백질을 변질시킨다. 이 또한 열량은 매우 높지만 기타 영양 성분이 낮다.
8. 설탕에 절인 과일류식품
발암물질의 대표적인 아질산염을 포함하고 있으며, 염분이 너무 높고 방부제, 향료를 포함하고 있다.
9. 냉동 간식류 식품
아이스크림, 아이스케이크 등 단 냉동 음식을 말한다. 쉽게 비만해질 수 있고 당도도 너무 높아 식사에 영향을 준다.
10. 숯불구이류 식품
불에 구운 닭다리 한 개는 담배 60개비의 독성과 같으며 신장, 간에 부담을 가중한다.



숨어 있는 뇌경색 찾아 내는 법

◆ 뇌경색을 일으키는 위험인자들

흡연,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피임약, 나이

◆ 증상으로 알아보는 뇌경색 자가 체크표

- 평상시와 다른 두통이 긴 시간 동안 계속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 평소 현기증이 심하게 나타나면서 구토가 있거나 메스꺼움이 나타난다.
- 걸을 때 다리가 꼬이거나 걸려 넘어질 뻔하기도 한다.
- 계단 오르내리거나 문턱을 넘을 때 한쪽 발을 자주 부딪힌다.
- 이전에 비해 손끝이 자연스럽게 않다거나 글씨가 바르게 써지지 않는다.
- 이전에 비해 계산이 서툴러졌다. 특히 숫자 개념이 모호해졌다.
- 얼굴과 입술이 마비될 때가 종종 있다.
- 일시적으로 의식이 몽롱할 때가 있다.
- 갑자기 혀가 잘 돌지 않아 말이 잘 되지 않을 때가 있다.
- 말을 얼버무려서 알아듣기가 쉽지 않다.
- 물을 먹을 때 사례가 자주 걸린다.
- 사물이 이중으로 보이거나 시야가 흐려진다.
- 작은 일로 갑자기 운다거나 큰소리로 웃어댄다.
- 갑자기 침울해진다거나 우울해질 때가 있다.
- 손발이 저리다.
- 평상시 대소변 장애가 나타난다.

※ 이상의 항목 중 3항목 이상 해당되는 사람은 한 번쯤 숨은 뇌경색을 의심해 보아야 한다.

◆ 뇌경색을 예방하는 생활법

- 정상적인 생활습관을 유지, 식사는 규칙적
- 충분한 수면
- 규칙적인 운동, 비만하지 않도록
- 베스트 식품 : 당근, 피망, 시금치, 견과류, 채소, 해조류



견과류의 놀라운 효능

◆ 협심증과 심근경색증

미국 심장학회는 1주일에 5번 이상 견과류를 섭취한 사람은 협심증 발병률이 반으로 줄어든다는 연구결과를 토대로 심장병 예방을 위해 매일 약 1.5온스(42g)의 아몬드, 헤이즐넛, 땅콩, 호두, 피칸(pecan) 등 견과류를 먹으라고 권고하고 있다. 14년 동안 간호사 8만 5,000명을 관찰한 하버드의대 연구결과에선 1주일에 5번 이상, 하루 30g의 견과류를 먹은 그룹은 14명이 심장병으로 사망했지만, 그렇지 않은 그룹은 197명이 심장병으로 사망했다.

◆ 치 매

견과류에 함유된 비타민 E와 불포화지방의 일종인 오메가-3 지방은 뇌신경 세포를 발달시키는 영양소이다. 2002년 미국의학협회지(JAMA)에 발표된 논문에 따르면 비타민 E가 풍부한 음식을 섭취한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알츠하이머병에 걸릴 위험이 최고 70%까지 낮았다. 경희대 동서신의학병원 영양관리센터 이금주 팀장은 “견과류는 노인의 치매예방뿐만 아니라 아이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해서도 많이 추천되는 음식”이라고 말했다.

◆ 대표적 견과류

- 호두 : 불포화지방산의 일종인 오메가-3 지방이 풍부해 뇌의 활동을 돕는다. 비타민 A·B군은 피부 건조를 막아준다.
- 아몬드 : 비타민 E와 섬유소가 풍부해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준다. 뇌세포 발달에도 좋다. 껍질의 플라보노이드는 항산화 영양소로 노화방지 효과가 있다.
- 잣 : 풍부한 마그네슘이 심장혈관 세포에 칼슘이 지나치게 흘러들어 심장 박동에 이상이 생기는 것을 막아준다. 철분은 빈혈 치료·예방 효과가 있다.
- 땅콩 : 단백질이 풍부해 근육 형성을 도와주고 올레인산·리놀렌산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해 동맥경화증을 예방해준다.
- 해바라기씨 :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하다. 토마토의 18배에 이르는 엽산을 함유하고 있으며, 혈액 응고와 동맥경화증 예방에 효과가 있다.



대한항공 공사동문회 동정



대한항공 공사동문회는 2008년도를 마무리하며 친목과 화합을 다지는 모임을 가졌다. 12월 12일 공군회관 그랜드 볼룸에서 330여 명의 회원 및 가족이 참가한 가운데 총회 및 송년의 밤 행사가 성대하게 치러졌다.

이 날 신임회장으로 권용국 기장(25기)을 추대하고, 그동안 노고를 아끼지 않았던 정희균 회장(23기)에게 큰 박수를 보냈다.

2부 송년의 밤 행사에서는 클래식 및 마술공연, 빙고게임으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공사 총동창회에서는 화환을 보내주어 이 날 행사를 함께 축하해 주었다.





아시아나항공 공사동문회 동정



아시아나항공 공사동문회에서는 4월 11일 북한산에서 50여 명이 참석하여 동문 정기산행을 하였다. 이 날 산행에는 OB 아시아나항공 동문모임(색동날개회)에서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었다.

산행코스는 참석한 동문의 체력을 고려하여 A코스(부왕동암문)와 B코스(백운대)로 운영하였고, 모두 안전하게 산행을 마치고 북한산 온천으로 이동하여 목욕을 하고, 인근 식당에서 막걸리에 뒤풀이를 하였다.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고...!! 사라져 갔던 우리의 과거가 화려하게 부활하여 벅찬 미래로 돌아온 아시아나항공 예비역들과의 재회는 멋진 앙상블을 이루었다. 내년도 동문 정기산행에 다시 만나기를 기대합니다.



1기 사관 동정

- 노병들의 뜨거운 전우애 -

공사 1기생회(회장 최규순)에서는 동기생 마중인 대령의 미망인이 남편의 병간호 및 생계유지를 위하여 부득이 한국 국적 상실 및 미국 국적 취득으로 인한 연금수급권 상실을 계기로 단순히 국적을 상실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연금수급권을 박탈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국방부에 여러 차례 진정과 건의를 하여 동기생 부인에게 연금수급권을 회복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이와 유사한 많은 연금수급자에게 연금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군인연금법을 개정(2003. 11. 21.부터) 하였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는 1기 사관들의 뜨거운 전우애가 큰 결실을 맺으며 연금제도 개선에 큰 역할을 하였다.





7기 사관 동정

2009년은 우리들 7기생들에게는 아주 뜻있고 기대가 되었던 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54년 전 진해만 천자봉 기슭에 자리잡고 있던 공군사관학교에 7기 사관이라는 이름아래 모였던 우리들이 단지 4년 동안 한술밥을 먹었다는 그 인연 하나로 임관 후 50여 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동기생이라는 그 끈끈한 정과 우정을 이어오고 있는 것을 보면 이 세상에 어느 누가 우리들보다 더 순수한 마음으로 따뜻한 정을 서로 간에 나누고 있는 사람이 어디 또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때에 지난 4월 24일에는 7기생 임관 50주년 기념일을 맞이하게 되어 비록 장소는 바뀌었지만 공군사관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그 아득한 옛 시절 우리들이 경험하였던 생도시절을 회상하면서 지금의 사관생도들의 생활모습을 보고 있노라니 정말로 감회가 깊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놀라우리만큼 변화된 오늘날의 생활환경과 주변여건들을 직접 체험하고 보니 마음이 뿌듯하고 흐뭇하였습니다.

돌아오는 귀경길에는 금번 행사에 참여하였던 동기생 84명(부인 36명 포함) 모두가 하나같이 가슴이 벅차고 공사교를 졸업하였다는 자부심마저 갖게 되었다는 이야기들을 하고 왔습니다.



8기 사관 동정

2009년 3월 19일 전우회 소강당에서 팔진회 김성환 회장의 적극적인 지원하에 팔진회(공사 8기 동기회) 기우회 창립 바둑대회가 있었다.

12명의 팔진회 기우회 회원이 참석하고 공사 총동창회 기우회 총무인 정지수와 특별히 윤자중 전 참모총장님께서 격려차 참석해 주셔서 팔진회 바둑대회 자리가 더욱 빛났다. 앞으로 가급적이면 매월 팔진회 바둑대회를 가질 예정이다.





14기 사관 동정

동기생 우의를 다지고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문화관광과 걷기와 등산을 매월 2~3회씩 계획하고 실시하고 있다. 작년에는 문화관광으로 비원·국립박물관·전쟁기념관·경복궁·땅굴과 걷기와 등산으로 청계산·서울대공원·무의도·예봉산·설악산·속리산을 다녀왔고 송년회를 사관학교에서 했으며, 금년에도 청계천 걷기로 시작해서 4월 말에는 경주·부산·남해안을 그리고 전국을 한 번 순회하려고 계획하고 있다.

“지금까지가 아니라 지금부터이다.”라는 목표를 갖고 지금 우리 나이가 주는 즐거움을 마음껏 즐겨보려고 한다. 약 반백 년 동안 인연을 맺고 살아온 우리의 삶이기에 우리에게 다가온 인연은 오래도록 소중하고 아름답게 지켜나가기 위해 자주 만남의 모임을 가져보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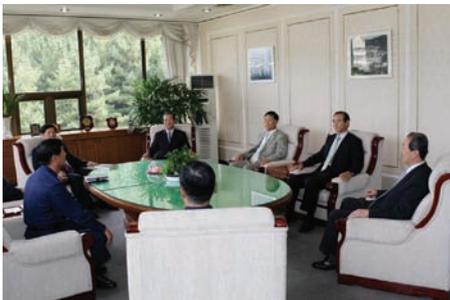
15기 사관 동정

공군사관학교 총동창회 전임 회장 김주식 장군과 임원진은 임기 후 2008년 10월 11일 모교를 방문, 교장을 예방하고 15기 사관이 총동창회를 운영하면서 근검절약하여 모은 일금 400만원을 모교 발전기금에 기탁하였다.

‘성스럽고 명예롭고 건강한 모임’ 그 이름 성의회는 동기간의 화목과 건강유지를 지상 최고의 목표로 삼아 세월을 붙잡으려는 듯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

동기간의 화목을 위하여 매월 셋째 주 수요일 명동의 중앙회관에서 오찬 모임을 갖고, 매월 15일에는 내자들의 모임을 갖고 있다. 건강증진을 위해서 등산과 골프를 즐기는데 등산은 서울 근교의 북한산, 도봉산, 관악산, 청계산, 수락산 등 매주 수요일 10시를 정해두고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이어가고 있다. 그 결과 지난 3월 11일 ‘성의 등산대 300회 돌파’ 자랑스러운 결과를 이뤘으며, 이를 기념하기 위하여 열혈대원 12명이 참가한 가운데 우리의 명산 북한산의 정상 백운대에 깃발을 꽂고 축배를 나누며 영원한 우정과 서로의 건강을 빌었다.

골프 모임은 월 3~4회 진행되고 있으며, 동기 전체가 참여할 때는 5팀이 초과되어 선착순 마감하고 있으니 이 또한 건강한 체력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노년의 행복은 건강으로부터 온다고 누가 말했던가?





16기 사관 동정



16기생은 금년 운영기수로서 박성국 회장을 중심으로 전 기생원들이 일심 단결하여 재원 마련 및 각종 행사계획 등 혼연일체의 단결심을 과시하였다.

2009년 4월 24일에는 공사총동창회 홈커밍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쳐서 공군사관학교장 및 전 장병에게 감사드리고, 전 동문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에 감사드린다.

특히 50·30·20·10주년 주인공이신 7기, 27기, 37기, 47기생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축하드리고 건승을 빕니다.

16기생 전 가족은 큰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친 흥가분한 기분으로 당일 오후 청남대를 관광하고, 대청호 명품식사를 즐기며 보람찬 하루를 보냈다.



17기 사관 동정

임관한 지 어언 40년이 흘렀습니다. 평생 일자리였던 군에서 희로애락을 같이하면서 젊은 시절을 보내고 사회에 나와 2막의 삶을 보내고 있지만 우리는 항상 사관학교 그리고 군에서 보낸 시절을 추억하며 같은 길을 걸었던 전우들에게 더욱 소중함을 느낍니다.

공식적인 행사인 50주년을 보내기에는 너무 많은 날들을 기다려야 한다는 판단하에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회장단(장호근, 이철희)의 추진력으로 의미있는 1박 2일의 동해안 여행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우박을 맞으면서도 즐겁게 해군골프장인 동해에서 운동도 즐겼고 녹음이 짙게 어우러진 설악산과 월정사에 들러 절경을 즐겼습니다.

단지 직장 및 개인적인 사유로 인하여 모든 동기생들이 함께하지 못한 아쉬움이 진하게 남는 여행이었습니다.





송대성 동문(17기) 세종연구소 소장 취임

송대성(63·예비역 준장·공사 17기) 동문이 금년 1월 5일 세종연구소 소장으로 취임했다. 송 소장은 공군사관학교에서 국방안보를 전공한 후 서울대 외교학과 국제정치학 학사, 미국 미시건대에서 국제정치학 석사·박사 학위를 땀다. 이후 공군사관학교 교수·합동참모본부·국군기무사령부 참모장을 거쳐 1996년 공군준장으로 예편했다. '96년 세종연구소에 들어와 정책연구실장·교육홍보실장·안보연구실 수석연구위원·부소장을 지냈다.



배창식 동문(21기) 경북항공고등학교장 취임

금년 3월 1일 군 중장 출신 고등학교 교장이 탄생했다. 전 공군 작전사령부 사령관으로, 개방형 교장공모제를 통해 경북항공고등학교 교장으로 선발돼 부임했다. 배 전 사령관은 공군사관학교를 졸업한 뒤 전투조종사로 38년간 군생활을 했으며, 공군사관학교 생도대장과 국방대학교 부총장, 교육사령관, 작전사령관 등을 거쳤고, 이 같은 경력을 인정받아 군 특성화학교인 경북항공고의 교장에 선발되었다.



김은기 동문(22기) 극동방송 사장 취임

김은기 전 공군참모총장은 금년 1월 5일 극동방송 신임 사장에 취임했다.

신임 김 사장은 충남 장항 출신으로 공군사관학교(22기)를 나와 공군 제1전투비행단장, 한미연합사령부 정보참모부장, 국방부 국방정보본부장 등을 역임했으며 2007년 4월부터 지난 10월까지 공군참모총장을 역임했다.





김응수(17기) 동문 오지에서 한국을 심다



김응수 동문은 한국국제협력단에서 운영하는 해외봉사단에 참여하여 아프리카 케냐 나이로비에서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다. 해외봉사단은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개발도상국의 지구촌 이웃에게 우리의 발전경험과 경제발전을 지원

원하는 나눔과 봉사단체이다.

해외봉사를 위해서 영어로 가르칠 수 있는 한국어교사과정을 수료하여 자격증을 구비한 후 국제협력단으로부터 아프리카에 지정을 받아 자비로 작년 8월 26일부터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후반기에는 나이로비대학과 카바락대학에 한국어과 설치를 추진하고 있어 대학에서 한국어를 가르칠 계획이다.

윤용현(25기) 동문 「비행역학」 출간



공군사관학교 항공우주공학과 윤용현 교수(대령, 공사 25기)가 국내 최초로 비행역학관련 전공교과서인 '비행역학'을 출간해 화제가 되고 있다. 이 책은 출간과 동시에 공군사관학교와 KAIST 등 국내 7개 대학에서 항공우주공학 전공교재로 채택돼 활용되고 있다.

특히 이 책은 추상적인 개념으로만 존재했던 '영공'에 대한 이해를 도모한 가운데 '비행역학에 관한 지식 없이 임하는 비행(flight)은 어려움(plight)과 공포(fright)에 처하게 될 것'이라며 체계적인 비행지식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안영준(41기) 동문 日 방위대 수석졸업

공군작전사령부에서 항공우주전략담당으로 근무하는 안영준(40·공사 41기) 소령은 일본 국방대학원 전자공학과에서 석·박사 연계과정을 수료하고 졸업논문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야마자키상을 수상했다. 이 상은 교수회의와 야마자키재단의 심사를 통해 졸업생 중 성적 최우수자에게 수여하는 것으로 일본 방위대에서 외국인 학생이 최우수상을 받는 일은 매우 드물다.

안 소령은 전파 흡수 재료에 대해 깊이 연구하였으며, 위탁교육 중 일본 국내와 국제연구 논문지에 6편의 논문을 발표하는 한편 한국·미국·일본·중국 등에서 18회에 걸쳐 연구 발표하는 등 왕성한 연구 활동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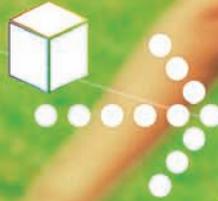
유로콥터는 헬리콥터 기초 군사 훈련과 고등 군사 훈련의 통합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유로콥터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종류의 현대식 헬리콥터 기종과 컴퓨터 기반 훈련 장비(CBT)로부터 비행 시뮬레이터(FFS)에 이르는 다양한 종류의 지상교육장비를 제공합니다. 유로콥터의 통합 훈련 솔루션은 고객의 기초 군사 훈련과 고등 군사 훈련 요구도를 100% 충족할 수 있으며 미래의 조종사와 정비사들이 최고의 수준에 이를 수 있도록 합니다. 유로콥터의 단발, 쌍발 헬리콥터는 보다 강화된 비행 안전성과 비교할 수 없는 비용 대 효과로 이미 세계의 많은 군에 의해 채택되었습니다.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스페인, 싱가포르, 스위스, 인도네시아는 그 나라의 조종사들이 전장 환경의 가장 힘든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EC120, AS350, EC135를 선택하였습니다.



Digitally, We Defend You!

첨단 기술 개발로 미래 산업을 선도하는
삼성탈레스의 내일 -
미래 핵심역량을 지닌 대한민국의 내일입니다.



디지털 방위산업을 이끌어 온 삼성탈레스가
더 넓은 미래를 향해 도약합니다.
첨단 정보통신 및 전자 기술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는 힘이 되겠습니다.



Powering intelligent defence solutions



With over 20,000 military engines in service with 160 customers in 103 countries, Rolls-Royce is a powerful player in the defence aero engine market. From combat to transport, from trainers to helicopters, our engines and pioneering service solutions ensure that our customers have world-leading engine technology

available, whatever the mission demands. Successful military operations rely on innovative and intelligent solutions. Rolls-Royce is delivering these around-the-world, around-the-clock to ensure that our customers have the power whenever and wherever they need it. **Trusted to deliver excellence**

www.rolls-royce.com



Rolls-Royce

무한한 가능성



F-136 엔진은 GE와 Rolls-Royce에서 이미 검증된 고도의 기술을 바탕으로 F-35 Lightning II 전투기 프로그램의 진화되는 요구조건을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GE Rolls-Royce Fighter Engine Team은 국제 협력 생산 및 개발 경험을 기반으로 전 세계 JSF 협력 국가들의 엔진생산, 지원 및 유지 보수 능력 분야에 있어 무한한 가능성을 제공합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ge.com/aviation 혹은 rolls-royce.com을 참조하세요.



GE Rolls-Royce
Fighter Engine Team





총동창회 알림

- ♣ 정기총회
- ♣ 회비 납부 안내
- ♣ 평생회비 납부 현황
- ♣ 공사재단 발전기금 현황
- ♣ 공군사관학교 발전기금 출연 현황
- ♣ 주소변경
- ♣ 각 기생회 임원 현황
- ♣ 편집후기/기고안내



정기총회

- 제16차년도 운영결과 보고 -



회칙 제4장 제12~15조에 의거 16차년도 공군사관학교 총동창회 정기총회를 6월 17일 공군회관에서 개최하였다. 100여 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16차년도 업무를 결산하고, 2009년 7월부터 2010년 6월까지 공사 총동창회를 맡아서 일할 제17차년도 회장단을 선출한 후 만찬을 즐기면서 회원 간의 친교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보고된 지난 일 년 간의 총동창회 활동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회원현황

- 임관 총 인원 : 8,710명
- 현재 인원 : 7,991명
- 예비역 인원 : 3,384명

◇ 적립기금(평생회비) 현황

구 분	금 액	비 고
기금 인수	477,575,887	제15차년도
제16차년도 적립	66,877,366	평생회비 : 40,600,000 이자수입 : 26,277,366
적립 총액	544,453,253	인계 금액

◇ 제16차년도 운영목표

1. 회원 간 친목도모
2. 선후배 동문간 의사소통 확대
3. 공사 뿌리찾기로 역사전통 계승
4. 모교 발전 기여



◇ 주요 추진사업 현황

1. 연속사업

- 가. 부대방문, 총동창회장상, 조문 활동
- 나. 홈커밍행사, 친선바둑대회, 성무지 발행
- 다. 3사 총동창회 유대 강화
- 라. 총동창회 참석 유도활동, 후배들과의 간담회

2. 신규사업

- 가. 친목의 날 행사 실시
- 나. 공사 주둔 기념비 건립
- 다. 운영위원회도 신설
- 라. 홈페이지 보완

◇ 연속사업 업무 보고

1. 부대방문

- 가. 상급부대 : 공본, 공사, 작사 방문
 - 나. 일선부대 : 8비, 황병산(레이더/방공포), 308대대
- ※ 격오지 부대 우선 방문

2. 친선 바둑대회

- 가. 공군회관(08. 11. 19)
- 나. 참가 인원 : 40여 명
- 다. 개인전, 단체전, 다면기 운영

3. 홈커밍 행사

- 가. '08. 4. 24/공사 연병장
- 나. 참가 인원 : 약 1,100여 명
- 다. 기념식, 열병 분열, Fly by, 고공 낙하, 오찬
- 라. 7기 50주년, 27·37·47기(30·20·10주년) 축하



4. 3군 사관학교 총동창회 유대 강화
 - 가. 3군 사관학교 총동창회장단 초청 운동
 - K-16 체력단련장, 20명(5/14)
 - 나. 육사총동창회 주최 '09 안보평가회 참여
 - 다. 총동창회간 정기총회시 화환 교환

5. 성무지 38호 개교 60주년 특집호 발행
 - 가. 공사 개교 60주년 약사
 - 나. 사진으로 본 공사 60년
 - 다. 개교 60주년 경축행사
 - 라. 공사 주둔기념비 건립(성남중고)
 - 마. 공사 흔적비 보수 제막(제주 대정초교)
 - 바. 1기 사관 60년 전 회고 수기

6. 안보행사 참가
 - 가. 한미동맹 강화 부시방한 국민대회(8/5)
 - 나. 60주년 국군의 날(10/1)
 - 다. 이승복 역사 복원 운동(12/9)
 - 라. 제59주년 6·25 기념식
 - 마. 현충원 참배(연초, 현충일)
 - 바. 전작권 반대운동 서명 참여

7. 회원 간 친목도모 활동
 - 가. 현역 후배기수들과의 간담회
 - 1) 8전비 기생대표와 오찬(11/7)
 - 2) 총동창회 적극 참여 다짐
 - 나.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동문들과 운동(수원)
 - 다. 대한항공 공사동문회 연말 총회 참석, 축하 화환
 - 라. 미 서부지회에 회장 신년인사



- 8. 모교 졸업식 총동창회장상 수여
 - 소위 정인식(57기), 금메달(10돈) 수여

9. 조문 활동 : 60회

10. 명예졸업증서 추천 → 24명 수여

11. 자랑스러운 공사인 선발 - 유보

◇ 신규사업 업무 보고

1. 친목의 날 행사 개최

가. 관악산 등산 및 소풍 : 2회, 100여 명씩 참석

1) 단풍축제(08. 10. 29)

2) 벚꽃축제(09. 04. 13)

2. 운영위원 제도 신설

가. 26~46기 대표 6명(4개 기수 조별 활동)

나. 의사소통 징검다리 역할

다. 국군의 날 행사 참가 장병 격려(9/26)

3. 공사 뿌리찾기

가. 성남중고 교정에 공사 주둔기념비 건립(3/5)

- 1기 사관, 총동창회 임원, 전우회, 공사, 원석학원 이사장 등 70여 명 참석

나. 제주 대정초교 훈적비 보수 제막(4/15)

- 공사 주관, 총동창회 후원

다. 공사 개교 60주년 특집호(성무) 발행

4. 홈페이지 개편

가. 전체적인 디자인 개편

나. 게시판 오류 및 기능, 보안 취약성 보완

다. 동문들과의 자유로운 대화채널 구축과 유용한 정보, 자료 제공을 위한 메뉴 신설

라. 홈페이지 유지보수 업체 계약을 통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관리



◇ 심의의결 안건

- 안건 1. 제16차년도 적립기금 결산 : '적립기금(평생회비) 현황' 참조
- 안건 2. 제17차년도 이사기수 의결 : '기별 분담금 납부안내' 참조
- 안건 3. 제17차년도 임원선출 : 총동창회 소식 '정기총회' 참조

◇ 운영금 현황

1. 운영금 조성(단위 : 만원)

항 목	계 획	실 적	비 고
16기 찬조	4,900	4,900	
기별 분담금	1,580	1,580	7~36기 이사기수
회원/특별 찬조금	380	600	
광 고 비	670	2,000	
이월 운영금	200	200	
총 계	7,730	9,280	+1,550

2. 회원/특별찬조

성 명	금 액	비 고
김 은 기	300만원	전 공군참모총장
신 성 환	100만원	26기 사관
아시아나항공 공사동문회	60만원	
대한항공 공사동문회	50만원	
김 주 식	30만원	15기 사관
심 인 태	20만원	30기 사관
김 영 환	10만원	1기 사관
윤 자 중	10만원	1기 사관
최 흥 선	10만원	5기 사관
박 춘 택	10만원	12기 사관

3. 운영금 집행현황

구분	순번	세부 항목	예 산	지 출	비 고
사 업 비	1	총동창회장상	1,000,000	1,900,000	57기 소위 정인식
	2	자랑스런 공사인 표창	500,000	0	유보
	3	50주년 및 홈커밍 행사	3,500,000	3,397,000	7기 사관, 버스대절
	4	친선 바둑대회	1,500,000	1,601,890	
	5	성무지 발행	5,000,000	4,782,370	발송/수고료, 기고자
	6	부대 방문	3,000,000	3,532,000	4개 부대
	7	동창회 참석 유도활동	3,000,000	2,828,400	대한·아시아나항공
	8	조문 활동	2,000,000	1,684,000	60회
	9	총동창회 등산	2,000,000	2,337,350	봄, 가을 2회
	10	모교 뿌리찾기	2,000,000	3,945,570	공사 주둔비 건립
	11	홈페이지 보완	3,000,000	3,355,000	
	12	현역후배와 간담회	1,000,000	720,400	8회
	13	3사 총동창회 교류	1,500,000	1,701,500	
	14	정기총회	4,000,000	4,000,000	예상액
	15	이사회	2,000,000	1,768,600	
	16	간담회	3,000,000	2,856,000	
		소 계	38,000,000	40,410,080	-2,410,080
운 영 비	17	친목단체 화환	800,000	700,000	인접 및 유관단체
	18	해외동문 우편료	800,000	711,100	미주 동부, 서부
	19	사무실 임대료	1,500,000	1,389,580	토지/건물 임대료 등
	20	사무실 운영비	6,000,000	5,381,000	
	21	인 건 비	25,200,000	25,200,000	
	22	이 월 금	2,000,000	2,000,000	제17차년도로 이월
	23	예 비 비	3,000,000	2,944,600	
		소 계	39,300,000	38,326,280	973,720
계획 대비			77,300,000	78,736,360	
총 계			92,830,097	78,736,360	잔액 : 14,093,737



회비 납부 안내

◎ 평생회비 납부 안내

◇ 평생회비 입금 계좌

우리은행 319-239049-01-001
예금주 : 공군사관학교 총동창회

◇ 평생회비란?

공군사관학교 총동창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회원 전원이 평생에 한번씩만 분담하는 회비로서 회원당 200,000원입니다.

현재 거출하고 있는 평생회비는 매년 총동창회 운영에는 일절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적립금의 이자로 총동창회를 운영할 수 있을 때까지 원금 및 이자까지도 은행에 계속 적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총동창회 연간 운영경비는 기별 분담금, 찬조금, 광고비, 운영기수 찬조금 등으로 충당하고 있으나 대부분 운영기수 찬조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운영기수 회원이 되면 적지 않은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먼 후배 기수를 위하여 선배 기수들이 감수하고 있는 현실임을 이해하고 미납회원은 평생회비 납부에 적극 협조해 주기를 요망합니다.

◎ 기별 분담금 납부 안내

◇ 기별 분담금 입금 계좌

우리은행 1002-880-450413
예금주 : 이문호(사무총장)

◇ 기별 분담금이란?

매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총동창회 운영경비의 일부를 일정액씩 분담하여 지원해 주는 당연직 임원기수 연회비로써 운영기수를 기준으로 선배 8개 기수(9~16기)는 40만원씩, 운영기수를 포함하여 후배 21개 기수(17~37기)는 60만원씩 분담하고 있습니다.

제17차년도 운영기수는 17기로 임원기수는 9~37기입니다.

본 회 회계연도는 7월 1일부터 익년 6월 30일까지로 기별 분담금은 총동창회 운영이 시작되는 매년 7월 내에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회비 납부 현황

◎ 평생회비 완납기수

1~21, 23, 24, 27기 완납

◎ 제16차년도 평생회비 납부자 현황

기간 : '08. 07. 01~'09. 06. 30

기수	현재인원	납부인원	미납인원	납 부 자 명 단		
22	102	76	26	김진호, 남태욱, 박재근, 오지영, 유영구, 유치호, 이금구, 이종관, 전병태		
23	108	108	0	김병창, 김정갑, 임연택 외 49명 기생회 대납		
25	128	65	63	강대회, 고경운, 고재일, 김규철, 김재훈, 김홍진, 박기호, 백문현, 손종철, 송명진, 안광진, 윤정진, 이영보, 이장춘, 임종호, 정 구, 최달순, 홍원표		
26	118	59	59	구창설, 김준기, 이태인		
27	123	123	0	권천만, 김경규, 김광수, 김수은, 김영만, 남궁완, 박경중, 박래백, 박주이, 백홍중, 유학정, 이태형, 이희명, 장경찬, 전태진, 최규돈, 최영섭, 최정근, 최정기, 최중현, 최청호, 황해원 외 70명 기생회 대납		
28	121	83	38	최정배		
29	138	72	66	한충수		
30	151	47	104	김영산, 김일형		
31	164	51	113	윤흥기		
32	166	30	136			
33	174	37	137	김대기, 김순길		
34	170	33	139	고광준, 김승수, 김신욱, 김정열, 김종명, 김형호, 박기근, 백윤형, 윤진철, 이해원, 임상수, 임수훈, 차용재, 허남희		
35	249	17	232			
36	263	10	253			
37	255	7	248			
38	237	13	224			
39	223	14	209	이창수		
40	241	12	229	41 241 4 237 이진수		
42	277	23	254	43 271 3 268		
44	218	5	213	45 220 19 201 김중수		
46	227	1	226	47 201 0 201		
48	192	104	88	49 200 1 199		
50	193	2	191	이수리 51 203 0 203		
52	202	0	202	53 211 2 209 문영섭, 최주영		
54	192	0	192	55 186 0 186		
56	155	0	155	57 157 0 157		
합	현재인원 : 7,991		납부인원 : 2,452		미납인원 : 5,539	

□ 분납 : 25기 김진우 (10만원)

※ 29기 김('08. 1. 30), 25기 총동창회비 김('09. 3. 26)으로 납부하신 회원은 성명을 총동창회 사무실로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 02) 823-1091



◎ 기 납부자 현황

(2008. 6. 30 이전)

기수	납 부 자 명 단
22	강수준, 강원호, 권영락, 김동학, 김명대, 김병근, 김옥태, 김은기, 김인식, 김장호, 김정근, 김재승, 김종세, 김준현, 김철구, 남궁혁, 남백우, 노장갑, 노창래, 류양수, 민형기, 박창규, 배효직, 백계근, 부중배, 손중열, 송인선, 심강운, 안중엽, 양진석, 연철봉, 오규열, 오봉진, 오원용, 우영운, 윤성기, 윤여동, 이강현, 이경환, 이광희, 이상성, 이승희, 이영하, 이용구, 이용익, 이원필, 이재관, 이정석, 이희용, 임영옥, 임인빈, 장영현, 장현섭, 전병만, 정갑순, 정 양, 정왕림, 정장교, 조영기, 조옥형, 주형철, 최병운, 최승열, 최호준, 한영렬, 한웅섭, 한중호, 홍재근, 황병호
23	강성철, 강지행, 강희창, 구본담, 권오봉, 김경순, 김동명, 김상문, 김성호, 김수환, 김우규, 김재용, 김종열, 김진필, 김창환, 김형선, 류연도, 박성순, 박정배, 박종철, 박종화, 서구범, 신용필, 유재복, 이강무, 이계훈, 이동호, 이상진, 이수현, 이영덕, 이영옥, 이은수, 이인기, 이정욱, 이정환, 윤남수, 윤재원, 윤차영, 장석원, 장창연, 정경모, 정규덕, 정대주, 정희균, 정희진, 조원진, 채홍원, 최병선, 최상익, 최종창, 최주식, 최진수, 하창호, 한규섭, 함경만, 허일영
25	강신환, 고덕천, 구도권, 권용국, 김국휘, 김동진, 김병용, 김상진, 김진태, 김중흠, 김정렬, 김종원, 김찬환, 김호식, 류홍규, 박용규, 박우성, 박창규, 박춘한, 서상철, 성신모, 손명환, 심재명, 양해구, 오창환, 윤양로, 윤용현, 윤학수, 이귀형, 이석찬, 이석호, 이성우, 이성재, 이승구, 이정표, 이천상, 인선석, 임시영, 임유규, 장희태, 조성구, 최미락, 최승규, 최형기, 하왕규, 홍건표
26	강충순, 강희규, 공진구, 기예호, 김병선, 김세창, 김용홍, 김유상, 김인호, 김정식, 김태영, 김현영, 문길주, 문팔암, 박성남, 박성보, 박식래, 박인규, 박중석, 박진규, 박화영, 배충영, 변종돈, 성삼식, 성일환, 송길수, 심상철, 심준택, 오문영, 오범석, 오희석, 이봉준, 이상길A, 이상길B, 오중기, 유지훈, 윤덕중, 윤병학, 은진기, 임탁봉, 임상현, 장래환, 전병구, 전성관, 전영규, 정영빈, 정진기, 조정호, 조희연, 진주원, 채재승, 최광우, 최병학, 최지수, 허중준, 황정선
27	고덕규, 고용하, 구명수, 구본쾌, 권영철, 권오성, 김만호, 김병산, 김상도, 김용상, 남은우, 박경규, 박준형, 박창권, 박한진, 손태용, 신용탁, 신해철, 신현기, 이광재, 이무섭, 이수철, 이영만, 이제훈, 임판식, 정동철, 최동환, 최영순, 한병국, 한정렬, 홍성은
28	강승구, 강영철, 김관호, 김남수, 김달재, 김도호, 김동수, 김명현, 김명호, 김명환, 김성근, 김영민, 김영석, 김영철, 김인동, 김재훈, 김주연, 김학수, 김형수, 김형철, 박강수, 박경진, 박민환, 방명환, 박연석, 박재규, 박종복, 박철규, 박홍부, 서근영, 신기훈, 신영덕, 안재모, 오상희, 이상천, 유길형, 유태일, 윤국진, 윤범여, 윤 우, 음종민, 이경석, 이경찬, 이대원, 이명우, 이명환, 이상욱, 이석원, 이성길, 이용표, 이재원, 이재필, 이주석, 이태운, 임성욱, 임종춘, 장대홍, 전덕수, 정덕호, 정동학, 정재영, 정형태, 조규형, 조민식, 조현제, 지윤규, 이태용, 정재부, 천홍우, 최병주, 최상일, 최승관, 최차규, 탁효수, 하태직, 한창환, 함선필, 현성규, 홍성표, 홍순협, 황신섭, 황위준
29	강동운, 강명홍, 구용우, 권오봉, 김경호, 김광수, 김규진, 김석중, 김성진, 김순노, 김영권, 김영본, 김영철, 김원규, 김희영, 김용희, 김철생, 김홍운, 나충렬, 남승우, 문병규, 박성기, 박장경, 박재복, 박춘기, 박충민, 백승욱, 송창석, 심동환, 심재광, 심평기, 양철환, 오승균, 오영봉, 오한두, 윤정용, 윤주혁, 윤한두, 윤항재, 이경달, 이규복, 이남진, 이동우, 이두희, 이명길, 이병두, 이수억, 이승호, 이완식, 이유인, 이인섭, 이일수, 이장근, 진동기, 정남범, 정대경, 정덕용, 정재순, 조병호, 진호영, 차영현, 최상철, 최성욱, 최승철, 최용준, 표상욱, 한봉규, 한봉완, 홍상기, 홍승조, 홍완표, 홍재욱
30	강구영, 강성호, 강지순, 고영문, 구 정, 권규홍, 권혁승, 김무겸, 김성용, 김세명, 김원규, 김용환, 김종선, 김진완, 나시중, 박국서, 박재현, 박종완, 박호성, 서희석, 손한섭, 신완희, 심인태, 안창경, 양승주, 염동선, 윤기성, 이연수, 이종돈, 이종식, 이지영, 이학주, 장덕진, 장석현, 장현동, 정경두, 정규호, 정 수, 조보근, 조영봉, 차주섭, 채덕상, 채종목, 최성규, 한상덕



기수	납 부 자 명 단
31	강경한, 강윤성, 김남호, 김동철, 김수복, 김시완, 김인택, 김정철, 김철승, 김홍준, 마권용, 문승주, 박승필, 박우일, 박항윤, 박해룡, 방은상, 배순근, 손상준, 신기균, 신재현, 오재현, 유병길, 유보형, 이병목, 이상호, 이선호, 이수완, 이왕근, 이재환, 이준희, 임봉수, 장동현, 장영익, 장춘석, 전병승, 정석환, 정재형, 조병수, 조승균, 조현기, 조환기, 채관석, 최병섭, 최승준, 한상훈, 허기주, 현용희, 황명균, 황중서
32	김석운, 김성환, 김영수, 김정룡, 김진호, 김현곤, 남동우, 박동창, 박승룡, 박호영, 손형규, 송기표, 송인수, 신익현, 심부수, 심청용, 원인철, 윤석준, 이건완, 이성우, 이정대, 이종선, 전종일, 전진문, 정만해, 전상필, 최원기, 최인영, 최재영, 하성룡
33	김동수, 김수태, 김유정, 김유현, 김재권, 김정태, 김조진, 김종도, 노준갑, 박삼남, 박성용, 박수철, 박진용, 박찬혁, 백호달, 심동섭, 오창규, 유준중, 윤병훈, 윤준로, 위강복, 이성우, 이경재, 이등교, 이재홍, 임경수, 장경식B, 장병노, 정남진, 정영철, 정희주, 조성호, 최병호, 최현국, 한상균
34	감수봉, 강우석, 김학준, 노승환, 박홍식, 서희창, 손 경, 송광혁, 심재관, 안상철, 안선환, 양희중, 윤기철, 이성호, 임 원, 정병학, 정상길, 정찬영, 조현상
35	강규식, 강성구, 강정운, 김부국, 김종은, 류영관, 민태기, 서완식, 손환주, 신형철, 엄태화, 은용섭, 윤재룡, 이영배, 이지원, 임재현, 최병오
36	김보현, 김성균, 김응문, 김하성, 나문관, 박종국, 박홍식, 오형식, 이준모, 임이철
37	기노신, 김연규, 이동훈, 이준혁, 이재섭, 진광호, 최기명
38	강재성, 공도현, 김성준, 김정수, 박종환, 성규철, 신보현, 심재환, 윤보정, 윤상보, 이동민, 이정호, 장창열
39	강진규, 권성범, 김용희, 김재권, 김정훈, 이재욱, 임정구, 임중택, 최정모, 최진원, 최한규, 허윤규, 홍봉선
40	강정현, 김재형, 김중기, 김진일, 김현수, 박기태, 박찬근, 손정국, 이만우, 이길주, 이현희, 황희철
41	김민호, 송창희, 임장석
42	금기호, 김성덕, 김의택, 김창진, 김태우, 박상진, 박세훈, 박윤철, 소상철, 신현구, 심대철, 온재섭, 이강녕, 이범기, 이준재, 이지호, 임유식, 장희준, 정우건, 천경덕, 최정욱, 한상형, 황수경
43	고경덕, 오동식, 이종원
44	고준기, 권기범, 박세순, 이강희, 전용성
45	강영운, 광기훈, 금기호, 김범수, 박도준, 안영록, 엄성범, 윤혁중, 이궁규, 이길영, 이인구, 정치영, 정한영, 정희두, 조중석, 채 원, 하동열, 황성연
46	장순천
47	
48	강규영, 고관진, 고종진, 구민규, 구분곤, 구필현, 금규태, 길태원, 김강주, 김경민, 김구일, 김년수, 김덕중, 김만중, 김민진, 김범준, 김상준, 김선규, 김성진, 김송현, 김시문, 김인영, 김용숙, 김우현, 김재훈, 김주배, 김창민, 김철한, 김태호, 김홍석, 나정흠, 남택수, 문보인, 민병익, 박경준, 박경수, 박준영, 박찬역, 박한민, 박희수, 사재철, 소영식, 손성진, 송영권, 송영민, 신 환, 신기영, 안상철, 안효훈, 양함주, 엄일용, 오상원, 원용창, 유 흥, 윤경식, 이광일, 이규동, 이기영, 이대연, 이동수, 이동훈, 이명선, 이무강, 이상준, 이석현, 이순재, 이우열, 이윤진, 이인호, 이정원, 이정훈, 이재영, 이종원, 이종훈, 이창용, 이창중, 이태승, 이형주, 이효성, 임병철, 임병호, 임수홍, 임은수, 임창순, 장균홍, 장성진, 전대만, 정기만, 정인식, 정재훈, 조정흠, 조혁준, 채 석, 천영호, 최원석, 최규완, 최균수, 최성호A, 최성호B, 최영기, 최재호, 추광호, 한영중, 허석희, 홍문기
49	이상현
50	안성민
	51~57기 납부자 없음.



공사재단 발전기금 현황

◆ 설립목적

생도 교육 및 학교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 중 예산획득이 불가능하거나 적기 획득에 어려움이 있는 사업 지원

◆ 기금모금 현황

구 분	금액(억)	비 고
기업 및 단체	29	삼성테크윈(주) 등 52개 단체
동 문	14	학교동문 1,508명
학부모/후원자	3	학부모 등 371명
합 계	46	총 1,879명, 52개 단체

※ 육사 : 152억, 해사 : 51억

◆ 기금사용 현황('08년)

구 분	금액(억)	비 고
생도 국내외 전문확대	1.3	생도 1인 85만원 지원
생도 학술·문화 체육사업	0.3	생도 대외 학술대회 참가 및 대외 경기 출전
교수/훈육요원 학술연구	0.1	교수 학술 세미나 등 교육발전 연구지원
지정기부사업	0.3	풍석, 동환 학술연구 기금
합 계	2.0	'96~'08 사용 총액(15억)

※ 기금원금 영구 보존, 이자수입만으로 운영

◆ 기부자 예우

- 학교시설 우선 이용혜택(야외결혼식장, 체력단련장, 도서관 등)
- 박물관 기부자 명부유지, 고액출연자 기념식수, 명예졸업증서 수여 등



공군사관학교 발전기금 출연 현황

◇ 기금총액 : 46억원

《1억원 이상》

경남기업(1억)	(주)대우(2억)	대우중공업(2억)
(주)보잉(1억 2천6백)	(주)부영(1억)	삼성테크윈(주)(10억)
(주)삼양화학공업(4억 2천1백)	이종학(공사3, 2억 6천2백)	최동환(공사 27, 1억 5천)

《1천만원 이상》

(주)원일인터내쇼날	공사발전후원회	공사총동창회	국민카드	기업은행
김규립(공사 12)	김대중(역대대통령)	김상태(공사 2)	김선도(광림교회목사)	김용철(공군가족)
김재식(공군가족)	김진호(공사 27)	박영민(사후 53)	박원석(사후 2)	박진숙(공사 5)
서정욱(사후 37)	양창근(공군가족)	온성철(공사 4)	이일남(공군가족)	임용환(공군가족)
최성열(공사 15)	최용철(공군가족)	홍재학(공사 4)	공사 2기생회	공사 3기생회
공사 4기생회	공사 5기생회	공사 6기생회	공사 7기생회	공사 26기생회
공사 35기생회	공사 36기생회	공사 37기생회	공사 51기생회	공사 52기생회
공사 53기생회	공사 54기생회	공사 55기생회	공사 56기생회	

《5백만원 이상》

강홍조 (조정노인병원이사장)	경주전장	공영화(공사 7)	곽현성(공군가족)	국민은행분평지점
김대욱(공사 15)	김락은(공군가족)	김문숙(군무원)	김선곤(공군가족)	김인기(공사 3)
안창명(공군가족)	원불교충북교구	이광학(공사 11)	이성재(공사 25)	이영수(공사 2)
장지량(사후 2)	최춘홍(독지가)	공사 1기생회	공사 14기생회	공사 15기생회
공사 20기생회	공사 21기생회	공사 22기생회	공사 23기생회	공사 24기생회
공사 25기생회	공사 27기생회	공사 30기생회	공사 31기생회	공사 32기생회
공사 33기생회	공사 34기생회	공사 39기생회	공사 40기생회	공사 41기생회
공사 42기생회	공사 43기생회	공사 45기생회	공사 46기생회	공사 47기생회



주소변경

(’08년 7월~’09년 6월)

기수	성명	주소	우편번호	전화번호
1	손정서	경기 군포시 오금동 871-7 삼익 소월(아) 382-1204	435-756	031-393-5527
2	고영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87 한신(아) 126-601	463-772	031-752-0912
2	문국진	경기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현암마을 동성2차(아) 202-301	448-754	011-716-0313
2	이종선	서울 동작구 상도1동 431 레미안 상도3차(아) 323-803	156-732	02-806-7399
3	김형수	12765 South Ridge Dr. Surrey, V3X3C7 CANADA		604-556-0932
3	이상복	서울 송파구 신천동 20 파크리오(아) 229-1003	138-240	02-548-8501
4	조시중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세류3동 1248 한라녹턴(아) 103-503	441-113	031-233-6750
4	이순요	서울 강서구 등촌동 637 서울시니어스가양타워 A-1420	157-030	02-544-9826
6	김종만	경기 안양시 안양1동 진흥(아) 10-102	430-711	031-421-6438
6	김형근	서울 강동구 명일동 56 현대(아) 11-1403	134-790	070-8614-3370
6	이선국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 1651 산들마을(아)203-1703	410-776	031-922-2390
6	이의재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3동 후곡마을 서안(아) 1009-1203	411-735	031-916-3852
6	하두호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4가 현대5차(아) 507-503	150-754	02-6747-5542
7	박용수	대전 유성구 관평동 672 대덕테크노벨리6단지(아) 607-702	305-509	042-935-5153
7	송해혁	경기 화성시 태안읍 병점동 817 신창(아) 104-401	445-773	031-231-2403
7	현규환	801 Winters Lane #433 Catonsville, MD 21228 U.S.A		443-878-9696
8	전석근	수원 영통구 매탄3동 1352 위브하늘채(아) 135-1301	443-751	031-211-3458
9	문영복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상록마을 라이프(아) 106-502	463-914	031-608-1992
9	함중우	경기 용인시 처인구 운학동 421-1	449-050	031-333-6132
10	김종선	경기 김포시 고촌면 신곡리 수기마을 힐스테이트(아) 201-1403	415-778	031-981-2216
10	김한용	경기 안산시 상록구 사2동 옥일(아) 502-1702	425-750	031-415-9940
10	손동현	경기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 32-3	461-800	031-708-3520
13	고명준	경기 용인시 기흥구 언남동 496 동일하이빌2차 202-702	446-705	070-7786-3256
13	김철웅	133-20 avery ave #5a flushing NY 11355 U.S.A		646-226-0068
13	이태규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가좌동 벽산(아) 605-1304	411-440	031-921-1773
13	정해성	경남 사천시 정동면 장산리 937	664-931	055-854-8901
13	조대길	2 hanlech glen bethlehem tauranga 3110 New zealand		64-7-579-3434
13	최영덕	경기 양평군 서종면 문호리 437-9	476-813	031-773-4346
13	최인일	경기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 630 솔내마을 현대홈타운(아) 110-702	446-912	031-286-0208
14	이역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양지마을 청구(아) 204-401	463-919	031-718-6807
15	김성덕	경기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동아솔레스티(아) 131-701	446-940	031-896-3285
15	오상현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 원마을 모아미래도 705-401	463-410	031-705-0657



기수	성명	주소	우편번호	전화번호
15	최용환	경기 군포시 산본2동 310-2 산본2차 e-편한세상 109-802	435-741	031-397-2821
16	박경웅	충북 청주시 상당구 용담동 체육공원로 74 106-1202	360-190	017-290-3839
16	김정갑	경기 양평군 지평면 무왕리 1010-1	476-872	031-774-3052
17	이용대	서울 중구 남산동2가 27-2 거구실업	100-042	02-776-5776
17	장호근	서울 강서구 등촌3동 59-1 에다인오피스텔 B-804	157-030	02-848-7335
18	김종식	경기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 629 삼성래미안1차(아) 112-201	446-557	031-274-3463
18	신평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이매촌동 진흥(아) 805-1502	463-904	031-705-7961
19	윤정재	경북 김천시 감문면 금곡리 1124	740-853	010-5076-2591
19	손정환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5가 22 진주(아) 1-307	150-095	02-6334-2949
20	김덕선	경기 양평군 개군면 하자포리 399-5	476-893	019-293-2805
20	김원춘	대전 중구 태평2동 422-7 버드네(아) 110-1503	301-780	042-524-4134
20	이재명	대전 유성구 관평동 대덕테크노벨리 7단지 707-503	305-790	011-583-0568
20	이영희	경기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 교동마을 현대홈타운 104-903	446-562	011-9050-3578
20	조태연	충남 계룡시 두마면 두계리 대림e-편한세상 103-504	321-764	042-841-5376
20	최병철	서울 용산구 한강로3가 65-230 한강트립프월드 3차 102-3101	140-778	02-780-1511
21	김창욱	서울 서초구 반포1동 반포 자이(아) 122-2102	137-041	02-532-3308
21	김태욱A	부산 진구 부암동 63-3 서면쌍용(아) 101-1305	614-090	051-893-8243
21	유근국	서울 은평구 응암4동 694-1 우성(아) 102-903	122-771	02-306-5211
21	이근재	서울 강남구 도곡1동 963 역삼레이크(아) 108-201	135-858	02-576-8597
21	이 찬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시범단지 현대(아) 421-804	463-777	031-707-4974
21	정용운	서울 송파구 가락동 80 성원쌍떼빌(아) 101-907	138-160	02-3661-9532
21	한홍섭	서울 성북구 삼선동2가 425 삼산푸르지오(아) 114-701	136-721	010-6424-1066
22	김은기	서울 마포구 염리동 마포자이(아) 105-2402	121-767	010-4162-9796
22	김철구	서울 용산구 문배동 24-6 CJ나인파크 202-2802	140-100	02-6342-0475
22	남궁혁	서울 서초구 잠원동 73 신반포 한신(아) 102-902	137-797	02-595-3316
22	부중배	서울 성북구 길음동 1280 길음뉴타운 214-502	136-110	02-941-1030
22	전병태	경기 남양주시 도농동 부영(아) 109-2004	472-709	031-512-4439
22	정갑순	서울 강서구 방화동 804 진로(아) 102-901	157-790	011-303-9677
23	김종현B	서울 마포구 용강동 500 대림1차(아) 102-1401	121-070	02-6351-4218
23	박정배	강원 양양군 현북면 어성전리 812 정재산장	215-835	033-671-3266
23	서구범	경기 고양시 일산구 대화동 대화마을6단지(아) 608-1501	411-765	031-912-5031
23	장수환	대구 북구 국우동 그린빌(아) 6단지 610-406	702-729	010-5087-8981
23	정대주	경기 용인시 수지구 상현2동 만현마을2단지 I-park 205-1201	448-926	031-265-1601
24	유지왕	경기 용인 기흥구 마북동 630 교동마을 현대홈타운 103-1601	446-562	031-274-7230
24	이월중	경기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980-1 미주빌딩 504호 월코에어로	412-270	031-924-1813



기수	성명	주소	우편번호	전화번호
24	전복진	서울 강남구 도곡동 934-10 역삼우성(아) 1-905	135-270	02-3462-3550
24	조진경	서울 동작구 상도동 527 브라운스톤 상도(아) 106-502	156-030	02-835-3980
24	조현규	경기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2동 삼성레미안 6차(아) 604-202	448-564	010-6879-8124
25	고경운	서울 송파구 잠실동 엘스(아)124-1603	138-908	070-8152-7378
25	김재훈	서울 송파구 잠전동 60-6 힐 프레이즈 501호	138-838	02-415-6620
25	김호식	서울 강서구 화곡6동 우장산 롯데캐슬(아) 301-1202	157-734	02-2602-3881
25	서상철	서울 강남구 삼성2동 상아(아) 5-905	135-508	02-793-2172
25	송명진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한솔마을 청구(아) 111-801	463-914	031-711-7692
25	윤정진	서울 서초구 서초3동 1559-1 jc라디앙 501호	137-729	02-3471-7512
25	이석호	대전 유성구 유성우체국사서함 35호 국방과학연구소 2기술연구본부	305-600	042-861-1351
25	인선식	서울 강서구 화곡5동 159 우장산 I-park 130-1204	157-015	02-6346-8791
25	홍석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7 더샵아일랜드파크 101-506	150-874	02-761-7034
26	오범식	경남 사천시 사남면 월성리 451 푸르지오(아) 101-402	664-712	055-853-5519
26	윤병학	서울 송파구 잠실2동 리센츠(아) 231-403	138-912	02-6084-2060
26	이태인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565 우성(아) 10-102	156-786	02-847-1170
26	전영구	서울 종로구 무악동 60 인왕산 I-park(아) 106-201	110-877	02-780-8327
27	남궁완	경기 고양시 일산구 마두2동 강촌마을(아) 517-1407	411-716	031-902-9710
27	최청호	대전 유성구 전민동 461-1 대한항공기술연구원	305-811	042-868-9092
28	송명섭	부산 동래구 온천2동 1433-52	607-837	016-808-2723
28	최승관	경기 수원시 장안구 천천동 482 비단마을 신명(아) 751-1802	440-732	010-5073-3632
28	최일용	서울 은평구 진관동 11 은평뉴타운 상림마을 722-1301	122-737	018-360-5990
29	이완식	경기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신안 팡림(아) 304-203	441-720	010-5072-5514
31	윤진	인천 계양구 용종동 초정마을 동아(아) 323-1401	407-710	032-276-7714
31	정윤식	경기 고양시 일산구 장항2동 771-1 우림로데오스위트 701호	411-837	031-903-9077
34	송광혁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 훼미리(아) 303-903	410-350	031-814-6279
35	이영찬	충남 당진군 당진읍 청구(아) 101-1706	343-752	041-355-5341
36	박종국	경기 김포시 장기동 1642 고창마을 반도유보라(아) 907-1703	415-060	031-985-3072
37	김재철	경기 고양시 일산구 마두동 백마 삼성(아) 104-1402	411-350	031-905-0843
37	정구학	경기 김포시 북변동 806 풍년마을 삼성(아) 309-905	415-720	031-989-4399
37	안계성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양지마을 금호1단지(아) 115-1801	463-919	031-712-3165
37	이만길	경기 고양시 일산구 주엽동 강선마을 동부(아) 507-201	411-370	031-912-0947
37	이준혁	경북 칠곡군 왜관읍 봉계리 397	718-803	054-971-3121
38	강현욱	인천 서구 마전동 현대힐스테이트(아) 107-1404	404-728	032-567-4836
40	정재영	서울 강서구 염창동 265-28 보람더하인(아) 105-602	157-863	02-2658-6557
43	조진호	서울 마포구 도화동 37 진도빌딩 606호 (주)경화자원물류	121-732	02-755-7748

※ 우편물 반송이 많습니다. 주소 변경시 총동창회 사무실로 꼭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기생회 임원 현황

(09년 6월 현재)

기수	회장	총무	기수	회장	총무	기수	회장	총무
1기	최규순		20기	김성일	최병철	39기	최춘송	김재권
2기	김성호	채영현	21기	황일서	박경석	40기	최세중	권민수
3기	정규혁	김필원	22기	민형기	정갑순	41기	김용태	신용규
4기	조시중		23기	윤차영	김우규	42기	이종서	이동현
5기	나병순		24기	황원동	조현규	43기	오동식	이종원
6기	김원근	손중서	25기	임우규	이정표	44기	고준기	
7기	김국창		26기	이태인	오중기	45기	양동혁	김도산
8기	김성환	백상희	27기	이영만	최규돈	46기	김용진	서정민
9기	이용세	천왕봉	28기	김형철	이명환	47기	이영진	문성훈
10기	김윤주	손동현	29기	남승우	조평현	48기	고종진	원기탁
11기	김용찬	전세일	30기	박국서	조보근	49기	이정영	
12기	김원인	이명환	31기	유병길	강경한	50기	정병식	손다혜
13기	김무신	최재구	32기	신익현	임상섭	51기	김계한	이현석
14기	강원순	문 광	33기	정남진	최현국	52기	유영광	이동제
15기	박종걸	손영철	34기	김형호	임수훈	53기	조영임	함승화
16기	이상렬	양길수	35기	최종태	송태섭	54기	조원기	권선영
17기	장호근	이철희	36기	김진호	황선남	55기	이재환	강수정
18기	천기광	구세환	37기	염성진	이경봉	56기	조해광	
19기	이강욱	손영수	38기	우태하	이종호	57기	정인식	김의중



편집후기

먼저 공사총동창회를 아끼고 격려해 주신 모든 분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바쁘신 가운데도 주옥 같은 글을 보내주셔서 ‘星武’ 지를 만들어주신 기고자 동문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16차년도에서는 감히 공사 개교 60주년 특집을 기획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미흡하더라도 16기생들의 충정으로 너그럽게 보아주셨으면 합니다.

편집에 수고하신 백동기·박영훈 편집위원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편집인〉

기고안내

공사총동창회 회지인 ‘성무’ 지는 연 1회(매년 7월) 발행되고 있습니다. 주로 회원들의 수필, 여행기, 사관학교 시절의 에피소드 및 취미활동 등을 주제로 한 글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39호 성무지 원고는 2010. 3. 31에 마감합니다. 많은 기고를 부탁드립니다.



발행일 : 2009. 7. 1.
발행인 : 박성국
편집인 : 박영기
발행처 : 공군사관학교 총동창회

주소 : (우 156-600)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우체국 사서함 5-1호
전화 : 02-823-1091, 팩스 : 02-823-1092
Homepage : <http://www.kafaaa.or.kr>
E-mail : 04airfa@hanmail.net



항공소년단과 함께

어린 꿈나무들에게 하늘과 우주를 향한 꿈을 심어주세요!

→ 항공소년단 자원봉사단 가입 및 후원안내

★ 자원봉사 활동분야

- 장비 및 시설 지원 활동
- 교육활동
 - 항공 이론 및 역사
 - 항공기능(RC, 열기구, 행 · 패러글라이더 등)
 - 조종사 비행 경험담
 - 레크리에이션
 - 해양훈련
 - 정신교육(심성수련)
- 행사 인력 지원
- 기타 사회 봉사활동

★ 자원봉사 활동지역

- 전국

★ 자원봉사단 모집기간

- 수시

★ 항공소년단 자원봉사단이 되려면

항공소년단 홈페이지 (www.yfk.or.kr) 에서 '항공소년단 자원봉사단' 회원가입
→ 활동이 있을시 이메일 또는 개인 연락처로 연락 → 봉사활동

후원금 입금 계좌

우리은행 1005-300-996245 (예금주:한국항공소년단)

※ 기부된 후원금은 법인세법 24조, 소득세법 34조에 의거하여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4가 3-1 명남빌딩 202호 / www.yfk.or.kr

항공우주시대 주역

공군사관생도 모집

2010학년도(제62기) 공군사관생도 모집안내

※ 입학원서

- 접수기간 : 2009년 7월 6일(월) ~ 7월 17일(금)
- 접수방법 : 인터넷 원서접수 - 공군사관학교 www.afa.ac.kr
- 유웨이 www.uway.com

※ 1차시험

- 시험일 : 2009년 8월 2일(일)
- 과목 : 언어(듣기 제외), 수리(문·이과 구분), 외국어(듣기, 말하기 제외)

※ 2차시험

- 시험일 : 2009년 9월 7일(월) ~ 9월 25일(금)
- 시험내용 : 신체검사, 면접, 체력검정

※ 최종선발

- 기준 : 수능(800점), 학생부(100점), 면접(70점), 체력검정(30점)
- 합격자발표 : 2009년 12월 16일(수)

※ 주요 신체기준

- 시력 : 조종분야 나안 0.5 이상, 정책분야 교정 0.7 이상
- 신장 : 162.5cm ~ 195cm(여자 정책분야 160cm ~ 195cm)

공군사관학교 입시문의 : 043) 290-5504, 043) 297-9156
www.afa.ac.kr

경주전장주식회사는 항공기 및 유도비행체의 발전기/모터류, Wire Harness를 개발, 제조 및
 창정비하는 항공기 전장품 전문생산 회사입니다.

주요 생산품으로는 정부 국책사업인 T-50 주발전기를 미국 GE-Aviation사와 기술제휴를 통하여
 생산하고, KHP 주발전기/송풍기/연료펌프모터, 함대함 미사일 발전기, 비호 안테나 구동모터,
 천마 Blower 모터를 생산하고 있으며, 2000년부터 창정비를 수행하고 있는 KF/F-16 CSD와
 주발전기 및 보조발전기 등을 비롯하여 F-4/F-5 주발전기, C-130H 주발전기, CN-235M 시동
 발전기 창정비 등 국내 모든 항공기의 전장품을 창정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5년부터 생산하고 있는 T-50 Wire Harness와 UH-60/Lynx FLIR는 KAI로부터 품질
 인증을 받아 생산하고 있으며, 2008년부터는 KT-1 수출용 Wire Harness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산제품은 항공우주분야의 국제품질 규격인 AS 9100 인증 및 국방품질경영시스템
 인증을 획득하고, 지속적인 항공기 전장품의 기초설계 기술개발의 투자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오늘보다 나은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기술중심의 Venture 기업으로 “21세기 우주항공
 전장품 전문 Maker 실현”을 Vision으로 항공기 전장품분야의 전문회사로 성장하기 위하여 끊임
 없는 연구개발과 생산에 매진할 것입니다.

Generator System

경주전장(주)은 한국 유일의 항공기 및 미사일용 발전기 생산 전문
 업체로, T-50 MGS(Main Generator System), 미사일의 Generator &
 Power Control Unit (PCU)를 생산하고, 한국 공군에서 운용하고
 있는 KF/F-16 IDG/CSD, Main Generator (60kVA), Stand-By
 Generator(10kVA), F-4D/E Generator, F-5/C-130H/CN-235
 Generator에 대한 창정비를 수행하는
 등 항공기 AC/DC Generator
 System(Oil 또는 Air Cooling System,
 CSCF/VSCF Type) 및 미사일용
 Generator를 개발, 생산, 창정비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
 니다.



〈T-50 MGS-40kVA〉



〈Homo-Polar Generator〉



〈KF/F-16 IDG/CSD/Generator-Overhaul〉

Motor System

경주전장(주)은 항공기 및 유도비행체와
 지상장비의 각종 Motor류를 개발, 생산하는
 Motor 전문업체로, Vulcan Drive Motor
 (Brush Type), 비호 안테나 Drive Motor
 (Brushless Type), 천마 Blower Motor
 (Brushless Type), K-9 자주포 Fuel Pump
 Motor(Brush Type), 미사일용 Fuel Servo
 Valve Motor (Brushless) 등 AC/DC Motor
 (Brush/Brushless Type Motor)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DC Motor-Brush Type〉



〈Servo Motor for Turret Drives〉



〈AC Induction Mot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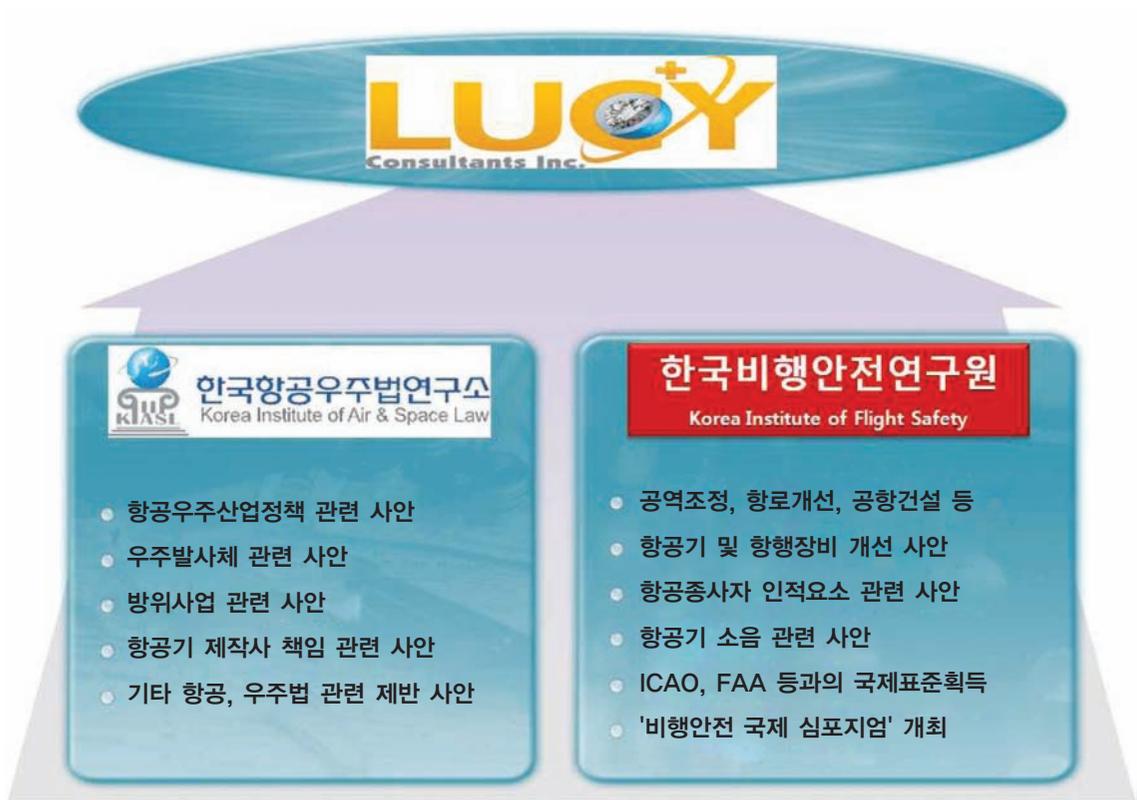
〈Blower, AC Induction Motor〉

비행안전의 최고 전문기관은 대한민국공군입니다.

비행안전관련 공군검토를 민간학회로부터 검증받아야 하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는 바입니다.

이에, 항공우주법연구소에 이어, 예비역 비행안전 전문가들과 비행안전 연구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합니다.



대표/소장 신 성 환 올림



Powering Freedom.®

Pratt & Whitney is proud to build the F135, the only engine powering the F-35 Lightning II. The F135 offers proven single engine safety derived from Pratt & Whitney's highly reliable F119, currently powering the F-22 Raptor. The F135 is the most powerful fighter engine ever built, has logged more than eleven thousand test hours and is now in production. Pratt & Whitney is the only engine manufacturer powering the F-35 and F-22 fifth-generation fighters. Pratt & Whitney. Powering Freedom.



The Eagle is Everywhere.™



Pratt & Whitney

A United Technologies Company

www.pw.utc.com





하늘을 보자,

하늘을 보자,

저희는 그 동안 모셨던 당신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지난 40년간 당신에게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힘들어 하실 때도 있었고, 성공하겠다는 굳은 결의에 차 계실 때도 있었고,

깊은 생각에 잠겨서 홀로 고독한 결단을 내리고 계실 때도 있었습니다.

분명한 건, 당신은 한 번도 같은 곳에 머무르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앞으로 새로운 40년, 아니 400년까지 더 넓은 세상에서 더 커진 당신과 만나고 싶습니다.





Seoul International Aerospace &
Defense Exhibition 2009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서울 ADEX) 2009

전세계 항공우주, 지·해상 무기체계 분야의
현재와 미래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국제규모의 통합전시회로 개최

2009년 10월 20일(화) ~ 25일(일) 서울공항

- Business Day: 2009년 10월 20일(화) ~ 23일(금)
- Public Day: 2009년 10월 24일(토) ~ 25일(일)

www.seoulairshow.com
www.seouladex.com



www.koreauav.com

제8회 로봇항공기 경연대회

무인항공기(UAV)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제고와
기술개발의 저변확대를 위해 2002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으며, 전 세계 UAV팀이
참가하는 **국제대회로 개최**

2009년 9월 26일(토)
한서대학교 태안비행장

대상 대학생, 대학원생, 일반인

www.koreauav.com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